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
'풍경소리' 전법 14년
원칙 지킬 때 '성취'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7월 2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55호 2013년 8월 28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잡보장경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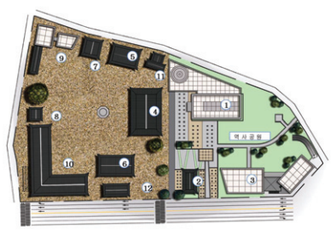
대표 도심 사찰 역사문화 중심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 시장이 8월 20일 조계사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지구로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 봉은사와 강남구,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정수 봉은사 신도회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조계사 일대 조감도

서울 종로 조계사

조계종 · 서울시 20일 협약
전통문화벨트 조성 예정
최대 3500억 원 투입돼

서울 강남 봉은사

市 · 구청과 현장 조정 회의
신증축 불가 민원 해결돼
주차장 공원화 · 사찰 복원



봉은사 정비 계획도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사찰인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와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가 시민들을 위한 역사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조계사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지구로 조성 · 개발하기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8월 20일 체결했다.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만 최대 3500억 원에 이르는 대작불사다. 조계종과 서울시는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조계사를 비롯한 이 일대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주중과 주말을 불문하고 많은 외국인 등으로 북적이지만 이에 관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 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계사를 비롯한 견지동 일대는 불교와 민족문화의 보고지만 다소 옹색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이 일대가 진정으로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본산으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역사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은 2013~2017년, 2018~2022년 총 2단계로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인사동과 조계사, 경복궁을 잇는 전통문화 벨트가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은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측과 경복궁 · 인사동을 잇는 전통문화벨트 조성을 위해 논의해왔다.

사업 대상지는 조계종 견지동 45번지 일대 2만 8577㎡ 125필지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계사 대웅전, 우정총국을 제외한 현재 조계사 일대가 모두 재정비 된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현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우정총국, 전법회관이 위치한 지역이 정비된다. 이곳에는 10 · 27역사공원 및 역사교육관이 건립되며 교육관 지하에는 전통문화상품아케이드가 마련된다.

역사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0 · 27법난을 상기시키는 교육공간으로 마련된다. 조계종은 2009년 10월 조계사 등 서울지역을 10 · 27법난 교육관 건립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석심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은 "10 · 27법난 작전명의 '작계45'은 견지동 45번지를 의미한다. 법난 당시의 자리였던 이곳에 역사교육관이 건립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업은 관광활성화 뿐만 아니라 도심 속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토지매입비 등의 변수를 고려해 2600억원에서 최대 3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 삼성동 봉은사도 서울시민들의 휴식처와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된다.

봉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강남구는 8월 23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민원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결의했다. 조정회의에는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그간 봉은사는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후 40여 년 넘게 여러 중복규제로 종교 활동에 필요한 추가적인 종교건물 신증축이나 시민 휴식공간의 건설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봉은사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원 지정을 해제거나 제대로 된 전통사찰을 건립하게 도와달라며 신도 등 2만8,500명의 서명부를 포함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초 역사공원 안에 전통사찰의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번 민원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이번 조정으로 강남구는 봉은사 측이 수립해둔 봉은사 가람정비계획에 공원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을 추가시킨 변경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시 역시 도시공원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후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는데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미 수립한 가람정비계획에 따르면 봉은사는 입구에 위치한 지상 주차장을 공원화하고 지하에 주차시설 등을 갖추어 지상에는 예전 모습을 최대한 재현한 전통사찰로 복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봉은사를 변모시킨다.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봉은사는 발전이 정체돼왔다"며 "앞으로 봉은사가 서울의 명소이자 전통사찰,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를 관련 규정의 개정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원만히 해결해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신중일 · 노덕현 기자

남북 화해무드에 불교교류도 활성화

조계종 민추본 · 천태종, 잇달아 北과 실무회담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민족화합을 위한 교류에 나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본부장 지홍)는 8월 18일~19일 양일간 중국 심양에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이하 조불련, 위원장 강수린)와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추본은 이번 협의를 통해 △금강산 신계사 낙성 6주년 기념 남북합동법회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 봉행 △서산대사 남북합동 다례재 11월 19일~22일 묘향산 보현사 봉행 △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수해지원 적극 검토 △(가칭)평양불교회관 건립사업 중장기적 추진 등을 협의했다.

민추본은 평양불교회관 건립에 대해 "우선 조불련은 부지 및 건물 확보를 위한 검토를, 조계종은 사업 시행의 타당성 검토 및 연구조사를 진행키로 했다"며 "남측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북측 조불련 전국신도회 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10월 신계사 합동법회 때 남과 북의 신도회 대표단이 참석하고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북불교도는 북측 사찰 성지순례와 북측사찰문화재 공동전수조사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추후 논의한다.

조계종 10월 신계사서
남북합동법회 봉행 예정

천태종 개성 영통사서
11월 대각국사 다례재

이번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에는 남측대표단으로 지홍 스님(조계종 민추본 본부장), 종훈 스님(조계종 민추본 집행위원장), 성원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등이 북측대표단으로 이규룡(조불련 서기장), 차금철(조불련 부장), 한정철(조불련 전국신도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함께 천태종도 11월 7일 개성 영통사서 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으로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천태종은 8월 17일과 18일 중국 심양 칠보산 호텔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측과 실무회의를 갖고 개성 영통사 낙성 8주년 및 대각국사 912주기 열반 다례재 남북합동법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실무회의에는 남측대표로 천태종 사회부장 보광 스님과 사회국장 성공 스님이, 북측 대표로는 조선불교도연맹 리규룡 서기장, 차금철 부장, 한민철 · 신석철 씨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남북합동법회 합의에 이어 관련 실무회의를 10월 중순 경 개성에서 다시 갖기로 했다.

천태종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영통사 · 관음사 · 안화사 3사순례를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조불련 측은 남측 통일부가 승인한다면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천태종 측은 단양 구인사서 대각국사 열반 다례재 남북합동 봉행 및 개성에 있는 천태종 사적지 합동 발굴 연구를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북측 대표단도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일 · 정혜숙 기자

조계종, 부정 선거 감시단 발족한다

중선위 22일 회의서 결정… 교구별 1인 추천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시단이 발족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8월 22일 제273차 회의를 열고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위원단을 늦어도 9월 13일까지 구성키로 결의했다.

공명선거위원단은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인 씩을 추천받아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본사 교역직 종무원,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소청심사위원 등은 공명선거위원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원담 스님의 총무부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복지부문 중앙종회의원에 단독 입후보한 법상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제19교구 화엄사, 제22교구 대흥사 종회의원에는 순천 동화사 주지 진성 스님과 해남 일지암 암주 법인 스님이 당선증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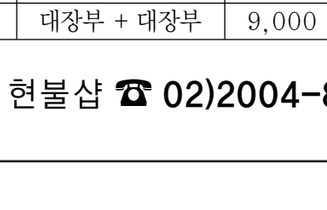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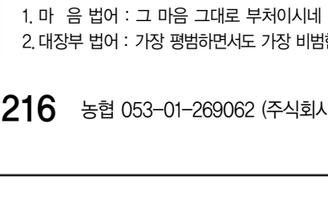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955호 INDEX

종정 · 방장 하안거 해제 법어 2·3
불영사 천축선원 해제 현장



시방세계 5
50주년 맞은 대불련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12
풍기 희방사

해외불교 18
탐욕 반대 명상시위

문화 20
동국대 평생교육원 찬불스쿨 개원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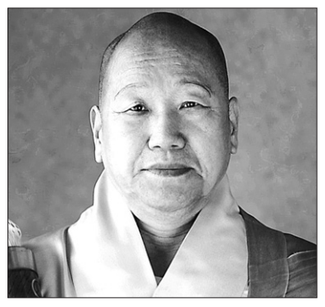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一句를 타파해 바른 안목 열어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상략〉 癸巳年계사년 夏安居하안거 解制해제를 맞아 八公山 桐華叢林이 開院됨으로 인해서 佛法門中이 圓融和合원융화합한 가운데 더욱 隆盛융성할 것이요, 佛教 中興과 世界平和에 크게 貢獻공헌하게 될 것이니, 모든 四部大衆과 萬人에게 더없는 祝福이 아닐 수 없습니다.

千聖의 頂額上정액상 一句는 一千聖人도 알지 못한지라, 頂額上 一句를 뚫어 지나가야사 諸佛諸祖의 깊은 用心處를 한 꼬챙이에 꿰어 正令을 잡아들이고, 佛祖의 鉗鎚겸추를 잡아 衆流를 截斷절단하고, 東에서 솟고 西에서 잠기며 逆順縱橫역순종횡하여 주고 빼앗음에 自在함이라. 그러므로 照用同時조용동시며 거두고 펴는 것을 竝行병행함이라, 大用이 現前함에 軌則궤칙을 두지 않음이로다.

어느 때는 丈六金身장육금신을 가져서 한 줄기 풀을 지어 쓰며, 어느 때는 한 줄기 풀을 가져서 丈六金身을 지어 씀이로다. 吹毛劍취모검이 손에 있음에 죽이고 살리는 때에 당하여 죽는 가운데 삶을 얻고, 삶 가운데 죽음을 얻어야만 온 몸을 굴려 自在함이로다.

自家의 보배를 運出운출하여 높고 낮음에 널리 應하고 前後에 어긋남이 없어서 各各現成함이라. 〈중략〉

昔日에 雲門禪師께서 大衆에게 三轉語삼전어 法門을 내려 지도하시기를,

一, 如何是道〈여하시도〉닛고.
二, 如何是 提婆宗〈여하시제바종〉이닛고
三, 如何是 吹毛劍〈여하시취모검〉이닛고

이러한 法門 등으로써 後學들을 提接제접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八公山 桐華叢林의 모든 方丈스님네들도 이러한 법문 등으로 工夫人을 제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諸方의 모든 공부인은 이러한 田地를 透得투득해야만 參學事참학사를 마침이요, 一方之師가 되어 만인의 바른 眼目을 열어갈 것입니다.

"마음 통찰하면 본각으로 돌아간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계사년 하안거 해제일을 맞이하여 선사가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세존께서 삼천년 전 영산회상에서 사자후(獅子吼)한 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어느 객승이 '큰상 위에다 구슬을 하나 떨어뜨리고는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그 모습을 본 선사는 빙그레 미소 지은 후 법상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은 이 구슬소리마저 안광(眼光)으로 들어야지 말을 하면 그르치게 됩니다. 입을 여는 순간 선지(禪旨)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선가에서는 아무리 암호화된 복잡구조도 찰나에 풀어냅니다. 이것이 '문성오도(聞聲悟道)'요, '견색명심(見色明心)'이니 '소리를 듣고 진리를 깨치고,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밝힌다' 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리와 모습이란 다름 아닌 자연의 소리와 모습을 뜻합니다.

자연은 우주만물의 원초적 고향이며, 마음이란 그 원천의 이치를 깨친 일심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자연과 합일하는 찰나에 일심이 되어 그 근본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효스님이 말한 깨침의 본체로서 일심이며, 평등무이(平等無二)의 실재일 뿐만 아니라 생동하는 각(覺)의 주체로서, 절대무집착의 대지혜와 절대무애(絶對無碍)의 대자비행을 일으키는 여래의 청정법신(淸淨法身)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미립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지만 분리가 아닌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우주만물이 하나의 궁극적인 에너지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통일장이론물리학에서 우주의 모든 물리적 실체의 근본이 되는 하나의 힘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일심원(歸一心源)을 궁극의 목표로 설정하고, 무애행을 실천함으로써, 매사에 당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략〉

수수 · 불수수, 두 방편 갖추라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상략〉 원오극근 선사가 말했습니다.

"동산양개 선사 문하에서는 차별된 두 가지 수법이 있다. 출세(出世)와 불출세(不出世) 즉 세간으로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과, 또 수수(垂手)와 불수수(不垂手) 즉 방편으로 손을 드리웠는지 아예 거두었는지를 동시에 말했다. 세간에 나오지 않을 경우 하늘만 응시하면 되겠지만, 세상에 나타날 경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얼굴에 흙을 묻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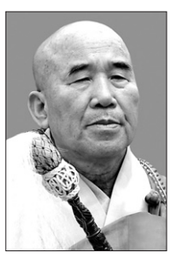
〈중략〉 역대 모든 선지식들이 더위의 안팎에서 두 번 손을 뻗은 까닭은 하안거 대중들의 눈이 가로로 붙어 있고 코는 세로로 곧게 뻗어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방편은 수수(垂手)요, 종지는 불수수(不垂手)입니다. 하지만 종지는 방편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고, 방편은 종지로 인하여 제대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수수' 와 '불수수' 는 결코 둘이 아닌 것입니다. 총림의 해제대중은 '수수' 와 '불수수' 라는 불이(不二)의 두 가지 방편을 동시에 갖추고서 해제길을 나설 때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해제라고 할 것입니다.

〈하략〉

"화두 일념이 고단한 몸과 마음 이겨냈는가"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금설안중예(金屑眼中翳) 여
의주법상진(衣珠法上塵) 이라
기령유부중(己靈猶不重) 이어늘
불시위하인(佛視爲何人) 이리오

모두가 생사를 판가름한다는 각오로 폭염의 여름 한 철과 씨름을 했습니다. 화두의 일념이 과연 고단한 몸과 마음을 이겨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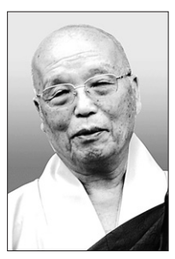
금가루가 아무리 귀하고 값지다 해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됩니다. 옷 속에 감추어 둔 여의보배도 알고 보면 그것도 문틈에 나부끼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토록 골똘하여 사무쳐 찾아낸 각자의 신령스런 그 한 물건조차도 고귀하게 여길게 없거늘 하물며 자신의 부처를 보아서 누구를 위하려고 하느냐고 고덕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경계에도 걸리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사 부처의 경계가 나타났다 해도 거기에 집착하면 병입니다.

지금 안거를 마친 대중은 어떻습니까? 애써서 어렵게 맛본 그것마저 떨쳐낼 용기를 가졌습니까? 진실한 용맹심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여기는 곳에서 능히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하략〉

"지금 여기서 화중생련을 친견하십시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여러분들은 모두 승패 없는 전쟁을 한 바탕 치렀을 것입니다. 올여름은 어느 때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맑은 정신 차리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며, 내가 나를 스스로 저울대질을 해봤을 것입니다.

화중생련(火中生蓮)이라. 불꽃 피는 데서 아름다운 연꽃을 발명한다하였습니다.

발명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밖에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고달픕니다. 신도들은 절에 가서 공양도 올리고 불사를 도와줘야하는데 어쩌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장전에서는 "지장보살, 지장보살"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무슨 힘입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화중생련을 친견하십시오. 〈중략〉

오늘날 우리는 과연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제자로서 출가한 본래 뜻을 항상 굳세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잊지 않고 되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략〉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



오늘은 바로 하안거 결제하고 석 달이 지난 해제날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수행방법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그 길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많이 나아졌습니까. 마음을 보기 위해 밤잠을 세워가며 수행한 것일진대, 마음이 바르고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졌을 것이고, 괴로움이 사라졌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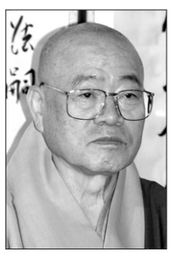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만 보내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곧 마음자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몸은 인연에 따라 지수화풍으로 흩어지지만, 근본자리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중략〉

깨달음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믿고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착각을 벗어나, 나고 죽는 것이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마음자리를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하략〉

만길 절벽 위에서 한 걸음 나아가라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삼계의 미몽한 모든 중생이 윤회를 쉬지 않고 자주 오르고 잠김이로다.

한 생각 몰록 깨달아 능히 구제해서 자타가 한가지로 무상각을 이룸이로다.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만 길의 절벽 위에서 다시 한걸음 나아가야사 바야흐로 향상일로에 이르며 장부 가운데 대장부요. 또한 이르되 해제니 만약 이 속에 이른 자 일진댄 속히 한마디 일러라.

잠깐 있다가 '할' 을 한번하고 이르되,

만약 한마디 이르지 못할진댄 이를 어찌 해제라 하리요. 바위돌이 용으로 화하고 마른 고목나무에 꽃이 피어야사 옳다.

게송으로 이르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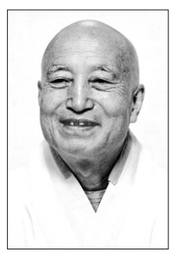
초목이 빛을 발하니 보배 아님이 없고,
바위돌이 눈을 뜨니 다 부처와 조사로다.

또, 행주좌와에 마음이 한결같아서 남으로가고 북으로 감에 잡념이 없으면 한 생각 즉하에 정각을 이루어서 자신도 제도하고 다른 이도 제도해서 국토를 청정케 하리라.

생각마다 현세불 출현이요 걸음마다 미래불 출현이로다.

진정한 정법은 보고 들을 수 없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천관이 타파되고 지축이 뒤엎어져 명과 암이 철저히 부서진 지도는 따로 샛길이 없다. 이 경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접근하기가 어렵다.

진정한 정법은 보고 들을 수가 없으며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정법을 이야기 해봐야 그 이야기 속에 이미 정법이 없기 때문이다.

향상일구인 정법은 이야기가 아니며, 글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다. 정법은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되지 않는다. 표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의 묘(妙)가 아닌가.

〈중략〉

이러한 경지야 말로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 되어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일한 자취가 없고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말 한마디 한 일이 없어서 일체(一切)에 무애(無碍)하고 살활(殺活)이 자재(自在)한 것이다.

승가가 정진에 소홀하고 무능과 무지, 무사, 무모로 방일한다면 네 가지 은혜를 저버린 죄가 크리니 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과 나를 향한 아름다운 회향

조계종 신도등록이 그 첫걸음입니다

종단 신도등록은 불자로서의 의무이자 자긍심을 갖는 계기입니다.
재적사찰에 신도등록을 해주시고 매년 신도교무금
1만원을 납부하셔야 협약된 종합병원, 숙박시설, 용품점 등
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신도교무금은 종단과 사찰발전을 위한
포교기금으로 쓰이며 신도여러분에게 회향됩니다.

▶ www.신도멤버쉽.kr에서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문의 02-2011-1996

‘자기완성·주변정화’ 곧 불교

하안거 해제 현장 불영사 천축선원을 가다



8월 21일 해제를 맞은 불영사 천축선원의 수좌들이 만행 전 주지 일운 스님 등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해제 3일전 재가자들과 수행하는 것이 불영사의 수행가풍이다.

하안거(夏安居) 해제를 하루 앞둔 8월 20일. 아직도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경북 울진군 천년고찰 불영사 내 천축선원에는 삼복더위도 아랑곳 없이 비구니 스님 20여명이 막바지 수행에 여념이 없다.

잠시 후 죽비 소리에 가부좌를 푼 스님들은 선원 앞 마당에 나가 원을 그리며 포행을 한다. 이처럼 천축선원 수행현장이 공개된 것은 2002년 이후 11년만이다. 천축선원은 주지 일운 스님이 1978년부터 운영하던 조그만 선원을 1995년에 재불사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니 천축선원만의 역사를 따지면 19년이 된 셈이다. 이 선원은 율을 강조하는 주지 일운 스님의 방침에 따라 청규가 엄격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천축선원에 방부 든 스님들은 새벽 3시에 기상해 예불을 시작으로 하루 10~12시간의 수행을 한다. 좌선과 정진, 포행 그리고 일종의 노동인 울력 등 꽉 짜여진 일과대로 하루가 빠빡하게 돌아간다. TV와 휴대전화는 물론 신문 잡지 등 외부세계와 연결된 것은 전면 금지다. 외부서 연락이 와도 종무소를 통해 급한 일만 취사선택해 본인에게 전달한다.

일운 스님은 “쓰레기통에 담겨진 음식이 더럽기 때문에 먹을 수 없듯이 우리 수행자들은 계율을 지키지 않고서는 승려라 할 수 없다”며 “계율을 지키면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수행이 깊어지기 때문에 지계를 엄격히 강조하는 것이 천축선원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스님은 “성중법중, 성경법경 이란 말처럼 스님이 높아야 법이 높아지고, 스님이 낮으면 법 또한 낮아지는 법”이라며 “자기완성을 통해 주변을 정화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란 생각에서 1년에 두 차례만 산문을 열고 수행에 정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운 스님 옆에서 묵묵히 있던 한주동민 스님도 한마디 거들었다. “선방 수좌로서 전국의 제방선원을 돌며 수행에만 매진하다보니 직선적이 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비심이 부족했었다”며 “이곳 불영사서 수행과 함께 자비실천도 펼치니 중생과 함께하는 하화중생의 근본 진리를 깨달아 가게 되었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불영사의 수행 가풍중에는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다. 20여 년째 안거 해제를

엄격한 청규 통한 수행생활 강조

일운 스님 “지계, 심신 청정하게”

재가자 1백명 ‘3일 정진’ 20년

3일 앞두고 1년에 두 차례(하안거, 동안거)씩 재가불자 1백 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는 것이다. 이날도 설법전에서 1백여 재가불자들이 정진하고 있었다. 참선 후에는 ‘오후불식 묵언수행’이란 패찰을 저마다 목에 걸고 절 마당을 포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제날 선방 스님들과 해제법회에 참석해 함께 회향한다.

한해도 빠지지 않고 재가자 하안거 템플스테이에 참석한다는 남명숙(49) 보살은 “인생을 살아나가다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생겨 번뇌에 빠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집중 수행 하다보면 집착과 번뇌가 사라져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로 산문을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을 20여년째 직접 지도하며 함께 수행하는 주지 일운 스님은 “수행할 때 화두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힘들어 하는 경우에는 근기에 맞게 염불 정진을 시킨다. 염불에 집중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망상을 다스릴 수 있다”며 “망상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염불은 공덕이 따르기 때문에 하근기 수행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제대로 자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덧붙였다.

일운 스님은 또한 현대인들에 대한 충고도 밝혔다. “자기의 본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내 자신의 실체를 알면 어떤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스님이 안거전 재가자들을 위한 수행법회를 여는 것도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일운 스님은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자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우주를 만든다. 부처님이 그런 것처럼 나를 낮추고 모두 참고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면 스트레스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8월 21일 해제까지 선원서 수행을 마친 스님들은 다시 중생 속으로 만행(萬行)을 떠났다. 3개월 동안 외부와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몰두한 스님들이 속세로 나온 것이다. 불영사 천축선원에서 안거를 무사히 마친 20여 스님들도 걸망을 지고 산문을 떠났다.

울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論하고 노래하고…9월은 평화의 달

D-30 한반도평화대회, 어떻게 진행되나?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평화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개월간 불교계를 시작으로 사회에 번지고 있는 평화기원 분위기가 막바지 본 행사를 앞두고 무르익고 있다.

먼저 8월 28일 오전 9시에는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동아시아에서 한국전쟁’을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려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가 제시된다. 포럼에서는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반도평화대회 상임운영위원장이자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불교의 평화론과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대한 기조 발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르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와 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왕후이 중국 칭화대 교수 등이 세계 석학들이 동아시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또 문정인·박명림 연세대 교수, 석길암 금강대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등이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다.

본 행사를 3주 앞둔 9월 3일에는 용산전쟁기념관에서는 KBS평화기원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이 음악회에는 불자가수 남진, 웅산, 아웃사이더 등이 출연한다. 평화대회 운영위 측은 열린음악회 최대 규모인 1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아시아와 한국전쟁’ 포럼

8월 29일 언론재단 회의장서

불자가수 출연 평화 음악회

9월 3일 용산전쟁기념관서

2일까지 통도사 평화 법회

본 행사 9월 27일 범어사

평화의 불 이운식 등 다채

사부대중 7만 명 운집 예상

행사 전날까지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서는 오전 10시 평화기원 기도법회가 봉행되며 서울과 부산지역 사찰에서도 기도법회가 진행된다.

본 행사일인 9월 27일 오전 10시에는 1000여 스님이 UN평화공원을 참배하고 금강경을 독송한다. 독송 이후 스님들이 이동하는 올림피아드 주경기장까지의 길에는 평화의 등이 걸린다. 운영위는 9월 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내 곳곳에 10만개의 평화의 등을 설치해 분위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올림피아드 주경기장에는 연꽃을 형상화한 18m 규모의 대형무대가 마련되며 약 7만여 불자들이 운집해 경기장을 가득 메워 환희심을 더한다. 행사에서는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의 ‘룸비니동산 평화의 불 이운식’을 시작으로 남북한 및 세계에 보내는 평화의 글 낭독, 평화선언, 천도재 등이 진행된다.

본 행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참석이 추진되고 있다. 이어 열린음악회가 진행된다. 사회는 박칼린 씨가 맡으며 인순이, 바비킴, 김건모, 성악가 폴 포츠 등이 출연해 대중들과 신명나는 어울림 한마당을 꾸민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총무원장 후보 추대 ‘가시밭길’

선원수좌회 ‘불교광장’ 추대위서 이탈… 무량회도 조짐

매번 반복되는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구성된 불교광장 추대위원회의 후보 추대 활동이 난관에 봉착했다.

가장 먼저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에 참여하고 있는 前 무량회는 8월 19일 오후 비공개 총회를 열고 8월 26일까지 자승 스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 불교광장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불출마 선언을 종용한 것이다.

前무량회가 이 같이 입장을 정리한 것은 불교광장으로 통합 당시 전제된 자승 스님의 불출마가 지금까지도 불출마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대표가 교체된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정찬, 원각)도 19일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열린 해제 회의에서 불교광장의 후보추대위원회와 갈마위원회에서 탈퇴키로 결의했다.

이 같은 주요 단체의 이탈과 종책모임의 예상된 선 긋기로 사실상 불교광장 추대위원회의 후보 추대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가 교역직 종무원의 불교광장 추대위원회 참여를 자제하도록 권고한 부분도 불교광장에게는 압박이다.

중앙선관위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종단 선거법 제7조 및 제41조는 ‘종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며 “각 종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교역직 종무원의 경우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추대위 존속여부 결정

무량회, 자승스님 불출마 종용

선관위, 교역직 참여 자제 권고

이런 상황에서 불교광장은 8월 26일 추대위 회의에서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불교광장은 8월 22일 공동대표 등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회의를 열고 26일 추대위 3차 회의에서 위원회 존속 여부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기로 했다.

불교광장 대변인 덕문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혼탁한 선거전 대신 불교의 전통 방식인 산중공의를 통해 총무원장 후보를 추대하고자 불교광장이 주도해 추대위를 만들었다”면서 “중앙선관위의 교역직 스님들의 추대위 참여를 자제하는 권고도 있고 여러 논란들이 있어 추대위 존속 여부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결과 특정한 후보를 정해 놓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며 “교역직 스님들의 추대위 참여를 권고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른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이 같은 안건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결과 차주 상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 추모 특별 전시회

법어 서화전(근원 김양동)
열반 보도 사진전

• 전시기간 : 2013년 8월 30일(금) ~ 2013년 9월 15일(일)
• 개 막 식 : 2013년 8월 30일 오후 5시
• 개막식 및 전시 장소 :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2층
• 문 의 : 02)2198-5101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한 평생 올곧은 수행으로 불자와
국민들의 정신적 스승이 되셨던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열반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부처, 성철 스님의 법향(法香)을 느낄 수 있는
특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상의 옷 한 벌’ 김양동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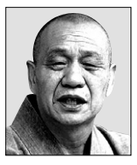
주최 |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주관 | 성철 스님 문도회

일 주 문



마사이족 생명살림단 파견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마사이족 산모생명을 구하기 위한 12명의 생명살림단을 케냐로 파견했다.



제13회 고산문학대상 수상

속초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은 시조시집 '적멸을 위하여'로 제13회 고산문학대상 시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전투 군종활동 전시회 자료 수집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9월 6일까지 정전 60주년 기념 '전투 군종활동 사료 전시회' 자료를 접수한다. (02)797-7266



법장 스님 8주기 다례재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9월 12일 오전 10시 수덕사 대웅전에서 인곡당 법장 스님 8주기 다례재를 개최한다. (041)330-7700



자비나눔 쌀 108포 전달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8월 21일 백중을 맞아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20㎏들이 '자비나눔 쌀' 108포를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별빛 마라톤 조직위원장 위촉

동화사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혜문 스님은 9월 14일 영천시민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인 제1회 영천 별빛전국울트라마라톤의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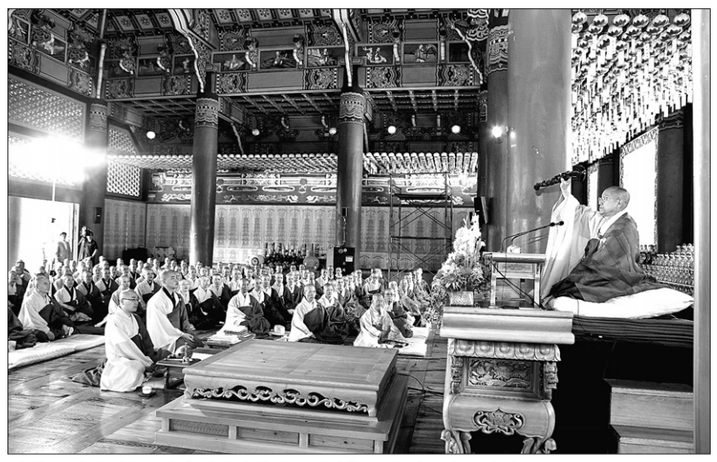


중앙신도회 신도임원교육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은 8월 23~25일 2박 3일간 인제 만해마을에서 중앙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교육을 실시했다.

"팔공총림 개원, 한국불교 발전 계기될 것"

팔공총림 동화사 초대방장 진제 스님 추대법회



진제 스님이 8월 19일 추대법회에서 주장자를 들며 법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총림으로 승격한 팔공산 동화사가 초대방장 추대하는 승좌법회를 봉행하고 팔공총림 개원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19일 경내 통일대불전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초대방장으로 추대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추대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원로의장 밀운 스님,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각계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대사와 축사, 헌사, 법어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총림 개원을 계기로 산중이 원융화합하는 가운데 불교발전 진흥과 세계평화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 같다"면서 팔공총림 개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동화사가 영남불교 1번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지위를 얻게 됐다"면서 "모든 수행자는 지도하는 방장은 선에 안목과 정견, 정안을 갖추셨기에 조계종의 법통을 상징하는 종정예하께서 팔공총림 방장이 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한국불교 최고의 총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팔공총림을 종합 수행도량으로 손색이 없는 수행기관과 처소를 갖추고 있다"면서 "더욱 내실을 기해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고 포교, 복지 등 제반사항을 가일층 챙겨 나아가겠다"고 하며 "총림대중들은 진제 법원 대종사의 가르침과 뜻을 잘 받들어 한국최고의 총림으로 발전하도록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헌사를 전달했고, 세계불교연합회 인도대표 하마톱짱 스님이 헌사, 동화사 유나 지환 스님이 불자를, 주지 성문 스님은 법장을 각각 봉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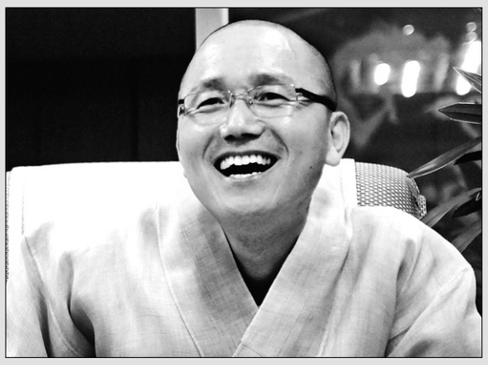
추대법회에 앞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다양한 깃발과 장엄물을 앞세우고 방장스님을 법회 장소로 모시는 '종사 이운식'을 펼쳤다.

한편, 팔공총림 초대방장으로 취임한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953년 출가해 해인사에서 석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8년 해인사에서 혜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마조도일 선사의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 화두를 치열한 정진을 통해 깨달았으며, 향곡 스님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이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하고 무차선대법회와 국제무차선법회 등를 개최하며 한국불교의 선풍 진작에 큰 역할을 했다. 2011년 세계적 신학자 폴니터 교수와의 대화로 해외로까지 이름을 알리며 한국불교 세계화에도 기여했다. 현재 조계종 13대 종정을 역임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다문화 가정, 객석 보다는 무대에 직접 세우고 싶었죠"

'제1회 다문화가정 음악회' 여는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계는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무시하거나 경계하는 게 아픈 현실입니다. 이제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를 전환할 때입니다."

9월 1일 오후 7시 천태종 분당 대광사 특설무대서 제 1회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가을빛 예술제'를 개최하는 주지 월도 스님(천태종 총무부장 · 사진)은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한다. 대광사의 이번 음악제가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다문화가정을 초청하는 음악회는 많았지만,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연을 펼치는 행사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월도 스님은 "대광사가 위치한 성남 지역은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들 나라의 춤과 노래를 한국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음악회를 객석에서 청중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면 다문화가정의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음악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고 취지를 전한다.

그래서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 1부는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공연으로 꾸몄다. 1차 오디션을 통해 총 10개팀이 예선을 거쳐 본선 경연을 하게 된다. 이어 2부에서는 가수 송창식, 김태곤, 정태춘, 박은옥 등과 클래식 앙상블 칸투스가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1차 오디션 통해 10개팀 경연
선문화체험관 1년 후 완공
다양한 다문화프로 마련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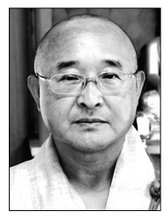
"이웃종교인 개신교에는 6백여개가 넘지만 불교계에는 다문화시설이 30여개도 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주요한 해결 현안인 다문화 문제에 우리 불교계가 관심이 부족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기관은 그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편적인 인류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토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우리사회는 한층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월도 스님은 이번 1회 음악회 행사를 기점으로 향후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스테이와 문화 행사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앞으로 1년 후면 대광사 경내에 선문화체험관이 완공될 것입니다. 이 공간을 바로 다문화가정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쉬고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생각입니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금산사 주지후보에 성우 스님 추대



김제 금산사 주지 후보에 은적사 주지 성우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금산사(주지 원행)는 8월 23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제15대 금산사 주지후보에 단독입후보한 성우 스님을 추대했다.

성우 스님은 "사부대중이 상부상조하는 명실상부한 화합의 도량이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공명정대하고 효율적인 종무행정, 전주 혁신도시의 불교종합센터 건립, 단위사찰의 지역사회 역량강화, 금산사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부대중이 금산사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산사 주지후보로 추대된 성우 스님은 1976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1981년 동국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부터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평창동 정토사 '원폭 희생자 유족회' 발족



평창동 정토사(주지 응천)는 원폭 희생 68주년과 백중일을 맞아 8월 21일 조선왕실 황손 이초남 씨를 회장으로 하는 '원폭 희생자 유족회'를 발족했다. 이초남 회장의 부친은 고종황제의 손자인 이우 공으로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해 별세했다. 유족들은 매년 정토사에서 위령제를 올려왔다. '원폭 희생자 유족회'에는 정토사 주지 응천 스님, 고종황제 증손며느리 정문자 씨, 고종황제 증손녀 이혜원 씨, 이상선 동국대 총동창회 부회장, 김용길 前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원폭 희생자 유족회는 정토사 내에 유족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향후 합동위령제를 지내기로 결의했다.

이초남 회장은 "유족회 발족은 한국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사업의 시작"이라며 "일본 희생자도 함께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응천 스님은 "내년부터 합동위령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원폭 피해 관련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02)379-3169

노덕현 기자

박태원 교수, 제1회 대정논문상 수상

'돈점논쟁의 쟁점…'으로, 시상식 9월 6일



대정장학재단(이사장 김지영)이 제정한 제1회 올해의 논문상에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의 '돈점 논쟁의 쟁점과 과제-해오 문제를 중심으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불교학연구〉 32호에 실린 박 교수의 논문은 2012년 발표한 '돈점 논쟁의 독법 구성'(철학논총 제169집)과 '돈오의 두 유형과 반조 그리고 돈점 논쟁'(철학연구 제46집)의 연장선상이다.

올해의 논문상 시상식은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 1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한편, 대정장학재단은 최근 김지영 보살의 원력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제1회 올해의논문상 수상금은 1000만원이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대학 2013학년도 후반기 등록생 모집

초기불교의 학문을 연구하고 전파하기 위한 전법사와 수행자의 진로 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개강한 초기불교 전문교육기관인 대한불교대학은 2013학년도에 개강하여 경남진주학습관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경남과 부산지역의 출석과정생 40명, 호주,베트남,중국 등 해외교민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등 경향각처의 사이버과정생 40명, 합계 80명으로 출석강의와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대학의 학생회 구성은 일반 재가자 70명, 수행자 10명으로 구성되어 년 간 42주 84강좌로 2년 4학기의 과정을 1년 4학기제(전반기 1 · 2학기, 후반기 3 · 4학기)로 학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등록 및 모집 안내

◈모집인원 : 출석과정 - 50명
사이버과정 - 100명 (합계 150명)
◈모집기간 : **2013년 8월 15일 ~ 9월 14일까지 (1개월)**
◈수강기간 : **2013년 9월 7일 ~ 2014년 7월 24일**(년 42주 84강)
◈졸업일자 : 2014년 8월 9일(예정)
◈교육장소 : 경남 진주학습관
경남 진주시 상봉동 1018-3번지
(사)감로심장회관 3층 진주거사림회관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3시 30분~18시까지** (4시간30분)
◈교과과목 : 초기불교기본교설, 초기불교교단사, 인도철학사, 초기불교사회사상사, 경장, 율장, 논장, 불교사, 상좌불교의례, 위빳사나 명상, 응용불교
◈교 수 진 : 마성스님, 냐냐로까스님, 이철헌, 임승택, 김재성, 김재영교수

※ 2013학년도

과목명	담당교수
經藏(Sutta-pitaka)	냐냐로까스님,마하보디선원주지
律藏(Vinaya-pitaka)	이수창(마성)교수
論藏(Abhidhamma-p.)	김재성 교수
佛敎史(History of Buddhism)	이철헌 교수
上座佛敎儀禮(Rites of Theravaada)	이수창(마성)교수

◈2013학년도 등록금 : 년 48만원 (년납 44만원, 2회납 24만원)
(2013학년도에 한정함)
◈등록원서 : 대한불교대학 홈페이지에 확인 바랍니다.
◈등록원서 접수처 : 팩 스 : 055)854-3067
이메일 : asrhkdqnftk@daum.net
◈등록금 납입계좌 : (농협) 351-0113-9532-13 (대한불교대학 광불사)
◈문 의 : **대학본부 055)854-8424 / 팩스 055)854-3067**
휴 대 폰 010-6796-0106 (학장)
◈주 소 : 대 학 본 부 : 경남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산113-4번지
경남진주학습관 : 경남 진주시 상봉동 1018-3
◈참 조 : 상세한 내용은 대한불교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홈페이지 주소 : **www.dbckorea.kr**

대한불교대학 교무처 www.dbckorea.kr

한국불교 동력, 반세기 열정 되짚어 보다

대불련, 창립 50주년 기념식 열어… 생명평화공동체 선언

"우리는 진리의 벗 참다운 구도자가 되련다. 우리는 진리의 얼 참다운 생명가치를 구현하련다. 우리는 진리의 빛 참다운 복지사회를 건설하련다."

반세기 동안 청년 불자의 열정과 노력으로 함께 이어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인들이 세대를 아우르며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박지연, 이하 대불련)와 대불련50주년 기념사업회(총재 자승)는 8월 1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백양사 수좌 지선 스님을 비롯해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 총재,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 원유자 대불련총동문회 회장, 대불련 동문 및 재학생 500여명이 참석해 대학 생명평화공동체를 일구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행사는 1부인 개회선언, 삼귀의례, 한글반야심경, 삼대강령, 경과보고, 50주년 기념사, 환영사 , 치사, 내빈소개, 축사, 감사패 · 공로패 증정, 대불련 50년 사진기록 영상, 대불련 미래비전 선포, 축하 떡케이크 커팅과 기념촬영과 2부 저녁만찬 및 축하한마당으로 이어졌다.

1부 행사에서 대불련인들은 △참다운 구도자 되기 △참다운 생명가치 구현 △참다운 복지사회 건설의 삼대강령을 선언했다.

박지연 회장은 50주년 기념사에서 "수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대학생불자를 사랑하고 지지해준 수많은 사부대중이 계셨기에 대불련은 세상을 밝혀나가는 법등으로 50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 50년 역사를 함께 했던 모든 인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50년을 넘어서 저희 대불련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꿈꿔본다. 진리의 벗 · 얼 · 빛이 돼 세상의 곳곳에서 연꽃으로 피어나가겠다. 더 멋지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청년불자의 모습으로 희망찬 100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부 행사에서 대불련인들은 △참다운 구도자 되기 △참다운 생명가치 구현 △참다운 복지사회 건설의 삼대강령을 선언했다.



박지연 회장(맨 왼쪽)과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오른쪽서 두 번째) 및 현 대불련 학생 등 4명이 '대학 생명평화공동체 미래비전'을 선언했다.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1963년 대불련 창립은 불교가 산중을 벗어나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일조했고, 한국불교가 청년 불자에게 다가가는데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키는 큰 역할을 했다, 50년 동안 한결 같이 대학생 포교의 원력으로 대불련을 이끌어온 역대 모든 대학생 불자들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대학생 불자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동량이다. 청년들의 힘과 열정은 앞으로 이 나라를 불국정토로 일구는 귀중한 땀방울이 돼 줄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왕성한 활동과 정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사에 이어 박지연 회장은 자승 스님에 대불련 50년 활동의 흐름과 사건을 사진과 자료로 정리한 〈사진으로 보는 대불련 50년사 진리의 벗 · 얼 · 빛〉을 봉정했다.

이후 26년간 공주교대 지도법사를 맡은 해월 스님을 비롯해 홍파 스님(동국대 63학번), 보명 스님(경희대 63학번), 윤월 스님(한양대 61학번), 김윤권(서울대 60학번), 명호근(서울대 61학번), 옥치담(부산대 61학번) 등 동문이 감사패와 공로패를 받았다.

대불련 50년 사진기록 영상 시청 후 대불련 미래비전 선포와 대학전법센터 건립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으며, 박지연 회장과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 및 현 대불련 학생 등 4명이 '대학 생명평화공동체 미래비전'을 선언했다.

이들은 "모든 생명이 서로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인류가 가야 할 길도 여기에 있으며, 우리 대학생불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도 여기에 있다"며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시대의 부름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대학 생명평화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 갈 것임을 선언한다. 미래의 희망인 대학생들이 개개인의 삶을 채운 생명평화의 기운이 동아리로, 대학 캠퍼스로, 세상으로 흘러들어 평화와 행복을 도모하는 붓다의 길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김정현 대불련 정책간사가 미래비전을 구체화한 '대학전법센터(Life & Peace Community)'에 대해 소개했다.

대불련은 대학전법센터를 통해 힐링, 나눔, 연구, 교육 등 4가지 세부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륜 · 혜민 · 도법 스님등 불교계 대표 스님 및 교육된 전문 인력으로 멘토단을 구성하고 순회강연과 북콘서트, 토크쇼 및 힐링 템플 스테이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생명평화공동체를 위한 나눔 활동을 실시한다. 이밖에 젊은 감각의 불교 이미지 및 컨텐츠를 개발 · 연구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포교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인력 교육과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에서는 저녁만찬 및 축하한마당이 이어졌다. 대불련 문화부와 대불련 졸업동문들이 노래 및 축하공연을 선보였으며, 재학생과 동문들간 소개의 시간도 이어지는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대불련을 거쳐간 동문



해월 스님 (공주 원효사 주지)
26년째 공주교대 지도법사 담당

1970년대 대학시절 금산사 도법 · 원행 스님이 지도해 주셨다. 내가 대불련 지도법사를 맡게 된 것도 학생시절 큰 스님들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다. 40년 전에 비하면 현재 대학생들의 신행활동이 위축돼 현장에 있는 법사로서 위기감을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한 불교 인적 저변이 있다. 불교 학생회 자원을 법회로 끌어 들이는 지도법사, 지도교수, 대불련 회원들의 역량 발휘가 필요한 때다.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 총재

오늘날까지 대불련은 1960년대 이후 한국불교를 기복 불교에서 청년 불교로 거듭 발전시키며 한국불교 대중화와 현대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한때 200여개 대학에서 2만 명 넘는 회원으로 발전한 대불련이 오늘날 대학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불련 재학생 및 동문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손을 맞잡고 꿈과 원력이 이루어지는 날 까지 불퇴전 의지로 정진해 나갑시다.



윤제철 전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1960년 대 대불련 활동을 하면서 성철 · 청담 · 퇴옹 · 탄허 · 광덕 · 법정 스님 등 불교계의 큰 스님들을 만나면서 나의 인생관 · 우주관이 불교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당시 고승대덕들과 많은 학자들이 대불련에 관심을 갖고 법문을 펼치셨는데, 요즘에는 대불련에서 큰 스님 모시기가 어렵다고 한다. 사부대중이 대학생 불자들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①1967년 봉은사 제4차 전국 대의원대회 ②1966년 대불련 학생들을 위해 법문을 펼친 박성배 교수, 이한상 거사, 숭산 • 성철 스님, 서경수 교수(오른쪽부터) ③1972년 한일불교학생회 교토 방문 ④1989년 동국대서 10 • 27법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불련 학생들 ⑤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시위하는 대불련 청년불자들 ⑥2011년 고창 선운사에서 진행된 Young Buddhist Camp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KBUF) 50년 연표

1960년대 대불련의 창립과 구도의 여정

1963. 9. 22 대불련 창립(17개 대학 · 사관학교 학생 참가)
1965. 3. 지부설립 결의
1965. 4. 창가학회(현 SGI) 규탄대회
1965. 5. 제1회 제등행렬서 주도적인 활동 펼침
1967. 서울, 충남, 강원, 경남 전북지부 등 56개 지회 설립
1967. 3. 대불련 회기 및 마크 · 회가 제정
1967. 4. 군종승제도 추진위 결성
1967. 4. 제1차 명예회원 추대식(탄허 · 행원 · 능가 · 광덕 스님, 서돈각, 이기영, 김영두, 홍정식, 이종익, 서경수, 이한상 등 명예회원 추대)
1967. 10. 대불련 출신 졸업생 중심으로 학사불교회 창립
1968. 11. 8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창립
1968. 11. 30. 국방부 군종승 설치약속(5월), 5명이 최초 군승으로 임명

1970년대 전국조직화와 화랑대회

1972. 8. '화랑대회' 개최 전국 17개 지부, 83개 지회 간부 참석
1973. 2. 8 대학별 83명 대표자 선발
1973. 1. '지구별 연합수련대회' 권역별 겨울수련회 개최
1973. 6. '제4회 한일학생불교회의' 개최
1975. 2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기념 남북통일 기원 대법회
1975. 3. 조계종 총무원서 한일불교세미나 개최
1975. 여익구, 고준환, 황석영 중심 민중불교회 결성

1980년대 민중불교 이념의 전개와 1600년 대회

1980년대 초 대불련 지방조직(서울 · 수원 · 원주 · 청주 등) 중심으로 약학 활동
1982. '화랑대회'를 '한국불교 1600년 대회'로 명칭 변경
1983. 7. 17 불교개혁 세력 2천여 명 전국청년불교도연합 결성
1984. 10 · 27법난 규탄 성명
1985.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해인사 승려대회 등 불교운동에 동참

1990년대 종단개혁과 통일운동, 내적인 혁신운동

1994. 대불련 집결, 조계종단 개혁운동에 동참,
1990년대 중반 북녘동포돕기 운동 전국단위로 확대
1990년대 후반 KBUF 아카데미 개설, 불교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실시
1990년대 후반 지역 · 지부별 생태학교,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 시도

2000년대 21세기 새로운 도전과 모색을 통한 활동 영역의 확대

2000. 6. 6.15 공동선언이후 통일순례 등으로 지속적 통일운동
2000년대 중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종교인권 운동 펼침
2000년대 후반 캄보디아, 중국, 일본 통해 역사 · 세계사 견문 확대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포교 · 신행 소식

포교사 4000명 범어사서 전법의지 다진다

8월 31~9월 1일 범어사서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

전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이 지계(持戒)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임희웅)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 부산 범어사에서 '제11차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를 개최한다.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는 포교사들이 지계를 점검하고 전법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장이다.

팔재계란 팔관재계(八關齋戒)의 준말로 재가 신도들이 하루 밤, 하루 낮 동안 받아 지니는 계율로 △생명을 죽이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 마시지 말 것 △몸을 치장하거나 가무를 즐기지 말 것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 것 △때가 아니면 먹지 말 것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수계실천대법회에서는 포교사 및 전문포교사 · 국제포교사 · 상담심리사 품수식,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특강, 8재계 수계식,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및 5km구간 촛불행진, 보살계 수계식 등이 진행된다.

이날 자리에서는 포교사단 부설 '무소유실천운동본부'의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의식 개혁운동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무소유실천운동본부는 청소년 가꾸기 사업으로 올해 4월 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학교폭력 및 왕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인성함양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는 재가자들 또한 수행자로서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며 "포교사 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불법홍포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산사워크숍 성료

8월 17~18일 성림사서, 데이비드 브레이저 초청



워크숍에는 스님 17명 재가자 59명 등 총 76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데이비드 브레이저 박사(가운데)와 10시간 동안 선 치료의 기본적인 입문 과정을 진행했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8월 17~18일 마포 성림사에서 수행지도자이자 현대 불교심리학의 개척자인 데이비드 브레이저(David Brazier) 박사를 초청해 제14회 산사워크숍 '선 상담 치료'를 개최했다.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스님 17명 재가자 59명 등 총 76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10시간 동안 선 치료의 기본적인 입문 과정을 진행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참가자들은 선 치료에 대한 상담 기법을 배우고 참가 사부 대중 모두 불교상담가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향후에도 불교심리학 분야의 명망 높은 강사와 교수들을 초빙하는 워크숍을 유치해 불교 상담을 연구하는 사부대중에게 폭넓은 수양의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오형근 교수, 금강삼매경론 강의

9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대승불교연구원서

유식학 연구의 기틀을 다진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의 금강삼매경론 강의가 열린다.

오형근 교수(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현 대승불교연구원장)는 9월 7일 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충무로역 인근 대승불교연구원에서 원효대사의 저서인 '금강삼매경론'을 강의한다. (02)2264-7120

이나은 기자

초보엄마 양육 스트레스 법회서 날리자

'아기엄마 수행법회' 열려 일요일 오후 3시 정토회관서

아기를 키우는 초보 엄마들은 양육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아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무력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또 이런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수행 등 신행생활을 해보려 해도 아기를 집에 두고 법당에 간다거나, 아기를 데리고 법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정토회 법당에서는 이런 아기엄마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육아고민을 나누는 이색 수행법회를 열고 있다.

법회 이름은 '아기엄마 수행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정토회관 2층 강당에 가면 자유롭게 예불을 보는 엄마와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6월 2일 첫 법회를 가진 '아기엄마 수행법회' 회원들은 8명의 엄마와 생후 9개월부터 44개월까지의 영 · 유아들로 구성돼 있다.

'아기엄마 수행법회'를 이끌고 있는 홍지원 씨(35세)는 "아기를 낳기 전까지 불교대학과 경전반 수업을 들었는데, 출산 후에는 법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느꼈다. 법회 자체가 성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아기가 법회에서 울기라도 하면 다른 분들을 방해하는 것 같아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아기를 낳고 키울 때 내 삶의 기준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산 · 육아 기간 동안 엄마의 마음이 자녀의 심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도반들과 법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명의 엄마와 생후 9개월부터 44개월까지의 영 · 유아들로 구성된 '아기엄마 수행법회' 회원들이 아기들을 옆에두고 삼배의 예를 올리고 있다.

회원들은 법회에 모여 삼귀의례 · 반야심경 독송 후 법륜 스님의 동영상 법문을 1시간 정도 시청한다. 법회 후에는 나누기 시간을 가져 한 주 동안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육아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거나 육아정보를 공유한다.

법회를 진행할 때 회원들은 간단한 규칙을 세웠다. 배고프거나 배변문제로 아기가 우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기가 울어도 법회 중간에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즉 아기와 함께 법회에 적응 하는 것이다.

이혜정(38세)씨는 "처음 법회를 시작했을 때는 아기들이 많이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엄마와 상황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이가 반야심경 독송, 삼귀의를 하면 기도하는 것인지 알고 흉내도 내고, 스님의 영상법문이 화면에 나오면 한참 쳐다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아이가 불교와 가까워지는 것 같아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회원들은 '아기엄마 수행법회'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 화목을 다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몸소 느끼고 있다. 남편과 함께 참석하는 엄마들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홍지원 씨는 "세 부부가 법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누기 시간에 평소 부부간 나누지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봤다"며 "또 육아를 하면서 배우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육아가 귀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올라와 죄책감을 느꼈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어 '나만 그런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덜어진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이어 "법륜 스님이 최소 3년은 아이에게 전념하라고 한 말씀을 새기면서 아이를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매일 정진하고 아이의 요구에 잘 귀기울이려 노력하니 정말 아이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혜정 씨는 "육아를 하면서 아기를 낳기 전에는 몰랐던 내 마음이나 카르마를 체력 ·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알게 된다"며 "아기엄마들이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수행법회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02)587-8990

이나은 기자

문학과 음악 어우러진 콘서트 시즌2 'Start'

대불청 · 불교문화사업단, 8월 29일 '템플스테이 음악여행'

20 · 30대 청년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열렸던 '쓰담쓰담 통통 콘서트'가 시즌2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와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템플스테이 음악여행'을 진행한다.

4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는 음악여행은 △'공감' -8월 29일 오후 7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 △'좋은 벗' -10월 17일 오후 4시 남인사마당 공연장 △'가을 소풍' - 11월 28일 오후 7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 △'힐링' -12월 26일 오후 7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각각 열린다.

대불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열린 '쓰담쓰담 통통 콘서트'는 문학과 음악을 결들인 힐링콘서트라면 이번 음악여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매회 마다 관객을 초대해 함께 할 수 있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월에 열리는 공연은 조계사 인근 견지동에서 일하는 불자와 함께하는 '공감'을 주제로 진행된다. 콘서트 1부에서는 어른을 위한 동화 '오세암'을 음악극 형태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2부는 건물 옥상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관객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하영태 대불청 연수원장은 "견지동에는 여러 불교 기관 단체가 모여 직 · 간접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들은 서로 스치듯 얼굴을 마주치거나 행사나 사업을 통해 만남은 이뤄지지만 일과 관련돼 딱딱한 자리에서 함께 했던 것 같다"며 "이번 공연은 음악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만들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0월 17일 개최되는 공연은 내 · 외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타악그룹 '야단법석'의 신명나는 타악공연을 펼친다. 또한 한국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만해 스님과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음악으로 만나보는 시간도 갖는다.



대불청이 청년불자 육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획한 '통통콘서트' 2시즌이 시작된다. '템플스테이 음악여행'을 주제로 8월부터 매월 1회씩 열릴 예정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11월 28일에는 〈꾸뻬씨의 행복여행〉을 주제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북 콘서트가 열린다.

12월 26일에는 겨울풍경이 가득한 문학과 음악을 통해 지난 삶을 되돌아 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불청은 "'음악여행'과 함께한다면 당신은 스마트폰의 불편한 기계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사찰에 앉아 새의 지저귐을 듣고 있는 듯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8-1920

이나은 기자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단 체 공 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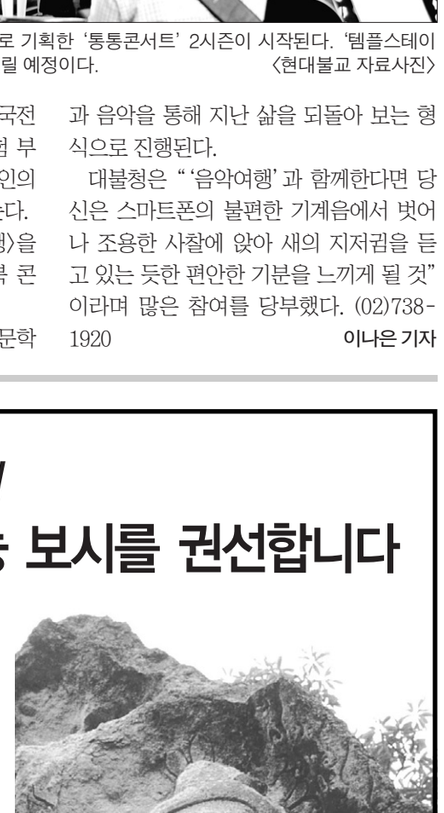
원효성사 성지 혈사(穴寺) 12처 석굴사원
골굴사에서 범종 도안(디자인) 기능 보시를 권선합니다

"굴속에 들어 기도를 하니 일만 근심이 사라지고, 마애여래불의 서광이 해마다 기적을 나툰다"라 기록된 신라 함월산 기림사사적기(1740)나 겸재 정선의 '골굴석굴도', 정시한의 '산중일기'에 보이는 골굴사는 15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천생 석굴을 갖춘 아름다운 기도 도량입니다.

선무도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국제포교도량 골굴사에서는 원효성사의 일심 · 화쟁 사상을 담아 세계인의 평화를 기원하는 범종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종의 도안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재능 있는 불자 예술가의 기능 보시를 권선합니다.

골굴사 천년 미래의 꿈을 장인의 예술혼으로 승화시킬 범종 도안에 큰 서원을 품은, 뜻 있는 예술가의 열정과 재능을 기다립니다.

■ 도안의 내용 :
신라 천년을 품은 골굴사의 역사, 원효사상, 선무도,
21세기 신 문화콘텐츠를 지향하는 메시지



문의 054)744-1689. 745-0246
대한불교조계종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원효성사 범종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다도명상·예절교육으로 '나'를 가꾼다

무소유실천운동본부, 청소년 문화체험교실 운영





'수메다' 참여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무소유실천운동본부 교육관에 모여 전문강사와 포교사단 회원들에게 다도와 예절, 전통 문화 등을 익혀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이혼율이 높아지고 맞벌이부부가 늘면서 나홀로 시간을 갖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할 시기에 이들이 홀로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 정서적 유대감 결여로 인한 인격·성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져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성찰·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하는 재가모임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포교사단 산하단체 무소유실천운동본부(회장 임희웅)가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청소년 가꾸기 사업-수메다' 프로그램.

무소유실천운동본부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운영금을 지원받아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청소년 문화체험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학 무소유실천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수메다(Sumedha)는 부처님 전생의 이름으로 지혜와 공덕을 쌓은 수메다처럼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프로그램명을 지었다"며 "학교폭력·왕따 문제를 겪거나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들을 지역 학교 및 관공서에서 추천받아 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메다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예절교실 △다도명상교실 △사물놀이교실을 개설해 매주 토요일 수업을 운영하며, 동·하절기로 나눠 수련회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참여 학생들은 20여 명 정도로, 이들은 매주 토요일 서울 삼선동 무소유실천운동본부 교육관에 모여 전문강사와 포교사단 회원들에게 다도와 예절, 전통 문화 등을 익혀나가고 있다.

'한문예절교실'은 한문을 배우고 예절 동영상자료를 통해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호배려의 예절을 익히는 시간이다. '다도명상교실' 시간에 학생들은 명상오디오 시청 후 명상수행을 따라하며 다도 전문 강사에게 다도를 배운다. 모두 자기성찰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효과가 있는 체험활동이다. 또한 학생들은 '사물놀이교실'에서 북·장구·꽹과리·징 등 사물악기를 연습해 가족과 친구 간 친화력을 키운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포교사단 회원들 대부분은 퇴직한 전문 인력들로, 단순한 재정적지원의 참여를 떠나 직접 참여해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성학 사무국장은 "참여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익히며 효도와 화합, 좋은 식습관을 배워 학교와 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 가능하다"며 "또한 자기성찰,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더불어 나누어 살 수 있는 자생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교사단에서 1998년도에 설립한 무소유실천운동본부는 행정자치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에 입각해 시민의식을 개혁하고, 무소유 정신을 사회에 구현해 바르고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8년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15년간 △장기기증 및 헌혈 등 생명나눔사업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운동 △군대·교도소 위문·새터민가정돕기 △성보문화재 보호 및 지킴이 사업 △자원과 에너지 절약사업 △자원봉사자 육성 및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02)927-0588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배우 정준호,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위촉



서울노인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배우 정준호(오른쪽)와 희유 스님이 기념촬을 가졌다.

배우 정준호가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8월 22일 서울노인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희유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정준호는 핸드프리팅 기념식과 실버DJ 어르신과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준호는 "어릴 적 조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들에게서 예절과 지혜를 배웠다. 현재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고 잘 자랄 수 있던 것도 조부모님 덕분"이라며 "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 시대로 가는 만큼 어르신들의 지혜와 목소리를 필름에 담아 그들의 인생이 빛날 수 있도록 젊은 배우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희유 스님은 "올해로 6회를 맞는 서울노인영화제는 개막초청작으로 노인을 주제로 한 해외 작품도 상영하는 등 명실 공히 노인영화제로서의 한 단계 더욱 도약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 서울노인영화제가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교감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어르신을 양성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호는 서울노인영화제가 노년기에 갖는 다양한 이야기를 노인 스스로 만들고 다른 세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인문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노인영화제가 향후 영화감독들에게 노인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작품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노인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이해를 돕는데 견인차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노인,노잉(knowing)'을 주제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열린다. 영화 상영은 물론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문화 축제로서 '관객과 함께하는 감독과의 대화', '열혈대담-감독, 감독을 만나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02)6911-9554

이나은 기자

복지·나눔 소식

철야정진으로 모은 성금 환아에 전달돼

조계종 산하복지관, 3000배 정진 모금액 지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은 8월 7일 복지관 선정회의를 거쳐 선정된 관내 사례관리 대상자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4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이 지역 환아들에게 전달됐다.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종호)은 8월 9일 난치병 어린이 의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금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마련된 금액이다. 복지관은 '뇌 해마 경색증'과 '선천성 다발성 관절만곡증' 등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2명에게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은 8월 7일 복지관 선정회의를 거쳐 선정된 관내 사례관리 대상자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했다.

조석영 관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꾸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리며, 의료비를 전달받은 두 학생이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고 공부도 놀이도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원경)은 8월 19일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2명의 어린이에게 각 200만원을 후원했다.

이나은 기자

동화작가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목동청소년수련관, 8월 31일부터 동화창작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직접 나만의 동화책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지완)은 서울시 특성화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동화창작 디자인 '동화아트 상상아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동화 및 동화작가 진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상상해 동화를 재구성하고 도안스케치를 그려 나만의 동화책을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될 '동화아트 상상아트'는 8월 3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총 12회에 걸쳐 실시된다. 모집인원은 10명이고 참가비는 8만원이며 신청방법은 수련관 방문접수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02)2642-1318

이나은 기자

속초종합복지관 여유음식 나눔 협약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연)은 8월 12일 한국전력공사 속초연수원(원장 김제동)과 '여유음식 기부를 통한 일석삼조 나눔'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 속초연수원이 여유음식 절감을 위한 나눔 사업을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제안하며 이뤄지게 됐다. 협약에 따라 속초연수원은 복지관과 연계해 여유음식을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결식위기에 놓인 소외계층가정에 매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김제동 한전 속초연수원장은 "여유음식 기부를 통해 사회적 나눔 문화 실천에 함께 할 수 있게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1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신문,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8월 31일

5. 문 의 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 교 조 계 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혜인 합장

입종 및 사찰 등록 안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우란분재는 조상천도·자기업장 참회 의식

동화사 백중6재 법회

양관 스님(동화사 승가대학 강주)

지상에서 맺었던 부모 자식간의 연. 그 끈을 동아줄 삼아 구천을 헤매는 조상의 넋을 천도하고자 하는 우란분재.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재이지만, 그 속에는 업과 참회와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어 살아있는 이들에게 경책이 되어준다. 8월 14일 동화사 백중 6재 법회에 모인 이들은 승가대학 강주 양관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불교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우란분절에 담긴 의미를 되새겼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양관스님은 … 통도사 강원 졸업. 은해사 승가대학원 졸업.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수료. 통도사 강사. 동국대 선학과 강사. 현재 팔공총림 동화사 승가대학 학장.

인과법을 수용하는 자세

승가대학 강사로 있으면서 일반인 여러분께 법문을 설하는 일은 많이 없었지만 우란분절을 맞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들었던 목련존자 얘기라든지 악업을 행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 등이 어떤 경전을 근거로 해서 설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는 분도 있으셨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라고 생각해 흘려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력 7월 15일인 백중. 불자들은 무슨 이유로 이 더위에 법당에 모여 조상님들을 다시 불러내고자 하며 또 각자 서원을 세우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걸까요. 백중 6재인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인 건 먼저 떠나신 분들이나 살아있는 존재나 다 함께 인연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먼저가신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기도 하며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란분경을 함께 읽으며 우란분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잠시 사리불의 얘기를 할까 합니다. 부처님의 초기제자 중에서 지혜제일존자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초기에 제자가 된 분들이죠. 그때 사리불은 탁발을 나갔다가 아주 여법하게 탁발을 하고 있는 마승 비구를 보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제자이며 당신의 스승이 가르치는 법은 무엇이냐" 고요. 그때 마승 비구가 "저는 아직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스승의 가르침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멸해간다는 것이 스승의 가르침입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리불은 그 말을 듣고 세상에 그러한 스승이 있다는 걸 알고 뛸 듯이 기뻐합니다. 모든 일이 인연법을 따라 간다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 우리들에겐 별반 감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내용은 당시 수행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말들을 가슴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한귀로 흘려듣는 우리들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죠. 어쨌건 사리불은 그 말을 듣고 부처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목련존자에게 찾아가 훌륭한 스승을 발견했다며 함께 출가하자고 권유하죠.

목련존자는 신통을 부리면서 중생들을 교화한 분이기도 하고 어느 누구보다 포교일선에서 많은 외도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10대제자 중에서 신통력이 가장 뛰어나서 신통제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목련존자는 외도들의 돌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신통력을 부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던 겁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인과로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인과법을 수용하는 자세를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인거죠.

우란분절은 부모에 회향하는 날

음력 7월 15일을 백중, 우란분절이라고 합니다. 백중은 24절기의 중간에 있는 날입니다. 예로부터 머슴들이 호미를 놓고 쉴 수 있는 민속의 날이기도 했으며, 불교에서는 전생 부모님을 천도하는 의식과 효도하는 마음이 합쳐져 그들을 기리는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기도 했죠. 고려시대 때부터 성행해서 '부처님오신날'과 버금가는 날로 인식돼 왔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미 존재했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고 그 분들께 이러한 마음을 회향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란분재는 효성이 지극한 목련존자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목련존자는 처음 신통을 얻고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았는데, 도안으로 보니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지은 업 때문에 아귀지옥에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음식을 잡수시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한 어머니를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을 가다듬고 밥이 가득 담긴 발우를 들고 지옥에 들어가 어머니께 드리게되죠. 그러나 어머니의 손이 닿자마자 밥은 뜨거운 석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란분경의 시작입니다.

우란분은 인도 범어로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으로 지옥에 매달려 있는 중생을 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바로 서는 것도 힘든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몸은 비록 바로 서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뒤틀려 거꾸로 매달린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번뇌에 쌓여있어 머리가 아래로 향한, 항상 고뇌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란분경은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란분재는 승가, 대중에게 음식과 여러 필수품을 공양하여 복을 짓는 불사를 가리킵니다. 이 공덕으로 돌아가신 부모를 포함해 7대조 부모까지 모두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에 태어나도록 발원하는 거죠.

목련존자 어머니는 목련존자가 출가하면서 재산을 보시하고 환원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귀 몸을 받게 됐습니다. 승가에서는 한 아들이 출가하면 삼족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목련존자 어머니는 훌륭한 수행자를 아들로 두고 있었지만 자기 업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목련존자도 외도들의 돌에 맞아죽었다고 했지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 다른 사람이 공양 가져온 걸 보고서 마음에 차지 않아 핀잔을 놓습니다. 악담 아닌 악담을 해서 그 과보로 부처님도 고통을 겪게 되지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깨닫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거기에 따른 과보가 오기 마련입니다. 항상 행동을 선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인과가 분명하다는 것. 부처님도 보여주셨고 목련존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련존자 효심으로 비롯
"우란분은 거꾸로 매달린
지옥 중생 구한다는 의미"

인과는 분명한 것 하지만 변할 수 있어

우란분경은 금강경과 마찬가지로 기수급고독원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기원정사를 보시한 급고독장자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대부호였고 부처님 법을 한번 듣고서 감동받아 기타 태자가 갖고 있던 동산을 사서 부처님을 위한 절을 지었습니다. 부처님이 설법할 장소를 마련해준 것이죠. 부처님이 가장 오래 기거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귀의를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귀의불양족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분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복을 많이 받고 지혜를 갖췄으면 바라죠. 그렇다면 복을 닦는 길은 무엇일까요. 보통 생각하길 부모님께 효도하고 착한 일 하고, 수행해서 마음 맑히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복을 가장 많이 닦았던 분이 바로 급고독장자가 아니겠습니까.

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달라진다고 하죠. 철저히 인과에 기인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우리들의 염원과 회향에 의해 약간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지장보살입니다. 우리가 지장보살 정근할 때 지장보살 멸정업진언하지 않습니까. 결정된 업까지도 멸하게 해준다는 건데요. 이러한 우리의 서원을 도와주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일반적으로 윤회를 얘기할 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아귀, 축생, 지옥 삼악도에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또한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인간으로 돌아오든지 천상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업을 쌓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 현실을 보면 때로는 불평등해 보이는 상황들을 보기 마련이죠.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인간으로 태어날 복은 지었으되, 그 복이 모자란 경우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겁니다. 전생에 살생을 했던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고 일찍 죽게 된다고 하고, 투도 즉 도둑질 한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다고들 합니다.

음 7월 15일 '자자' 행하는 스님을 공양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목련존자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목 놓아 통곡을 하고 부처님께 달려와 하소연을 합니다. 이에 부처님은 아무리 목련존자가 신통해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가 없으며 천신지신, 사천왕까지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스님들의 위신력만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자자를 행하는 스님들께 공양하라고 일러줍니다. 자자는 안거를 마친 스님들이 모여 서로 청정하게 지냈는지 참회하고 충고하는 대중행사고 자신의 허물을 대중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고해성사가 천주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에 접목시켜 대중과 함께 자신의 업을 참회하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수행임을 알려주죠. 우란분재는 이처럼 해탈이 개인의 뛰어난 신통력보다 대중들의 참회와 용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일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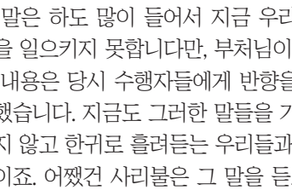
매번 불법승 삼보를 얘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믿는 마음이 모자라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철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업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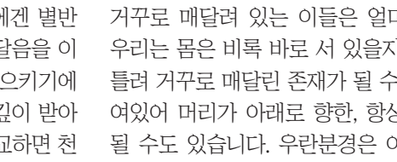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란분재에는 부모를 위하고 자신의 다음 생을 위해 업장을 참회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세생생 함께해 마음도 닦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악업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나가도록 하세요. 이러한 의미와 더불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의식도 함께 행함으로써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를 알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우란분재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조상을 천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천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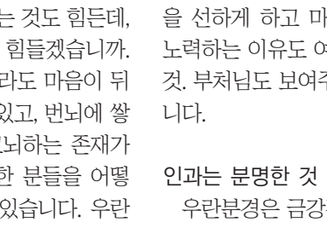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新製品

"YD-675 마이크"
100개 주문 한정 판매!!

스님들께서 보다 좋은 소리의 마이크를 원하심을 알면서도
단 100개만 판매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 고음질 YD-675
가격 : 115,000원

20년전,
"유코음향연구소" 김문화 소장이 개발 판매했던 신제품 마이크인
「DX-707 스탠드 마이크 (2000대판매)」를 기억하십니까?

여러 스님들의 요구에 의해, 또다시 맑고 깨끗한 소리의 고품질의 「스님 육성전용 YD-675 마이크」 The New Edition으로 1차분 100개 한정해 주문 제작 판매 합니다. 본 마이크를 소장하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걸이용 장식도 드립니다)

▶YD-675 고음질 마이크란?

音響研究家 김문화소장이 직접 개발 제작하는 스님 법문전용 手製品마이크로 고순도 니켈코아와 정밀 코일을 채택한 음성전용드랜스를 사용해 불필요한 소리의 초저역 저주파는 억제하면서 맑고 깨끗한, 귀로 듣기 좋은 주파수 대역만을 보다 잘 표현하도록 독자 개발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Stuart 브랜드"의 특수마이크입니다.

Stuart 상표는?
유코음향연구소 김문화 소장이 특허청으로부터 1986년 12월 27일자로 상표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에 이르도록 제조하는 모든 마이크에 사용하고있는 고유 브랜드로서 대표적인 마이크로 "DX-707" "V-606LC" "V-620" 신제품 "YD-675"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마이크는 사찰 외에 일반 시중에는 단 1개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 주문방법 :
• 은행 계좌로 입금후 주소를 Fax나 전화 문자로 넣어주십시오.
• 입금확인 순서에 의해 3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
• 마이크 코드가 필요하시면 프러그의 종류와 길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2-610-963886 예금주 : 김문화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백제불교는 해상 통해 인도서 전래”

신카와 토키오 와세다대 교수, 인도-백제-일본 실크로드 주장
‘고대 동아시아 불교문화교류와 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에서

“백제불교는 중국화된 불교를 전래받은 고구려를 거친 것이 아니라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로부터 직접 전래됐다. 이는 7세기 다시 일본으로 전래됐다.”

백제가 인도와 일본을 잇는 해상실크로드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일고 있는 실크로드에서의 경주의 위상 조명과 함께 해상 실크로드에서 백제의 위상 조명이다.

신카와 토키오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8월 16일 중국 시안(西安) 섬서사범대학에서 열린 제2회 국제학술대회 ‘고대 동아시아 불교문화교류와 실크로드’에서 신라와 백제의 불교 전래가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카와 교수는 ‘불교는 왜 유전(流傳)하였는가’ 주제발표에서 “신라 불교는 중국화된 불교로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한반도 북부를 거쳐 신라로 들어와 호국불교, 귀족불교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신카와 교수는 이어 “반면 백제는 사정이 달랐다. 백제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된 불교 영향으로 중국적인 색채가 덜 묻어나는 불교가 정착됐다”고 말했다.

신카와 교수는 그 근거로는 백제와 일본에서 출토된 목간에서 ‘숙세(宿世)’가 공통으로 발견된다는 점을 들었다.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을 가리키는 ‘숙세’는 "모든 인간의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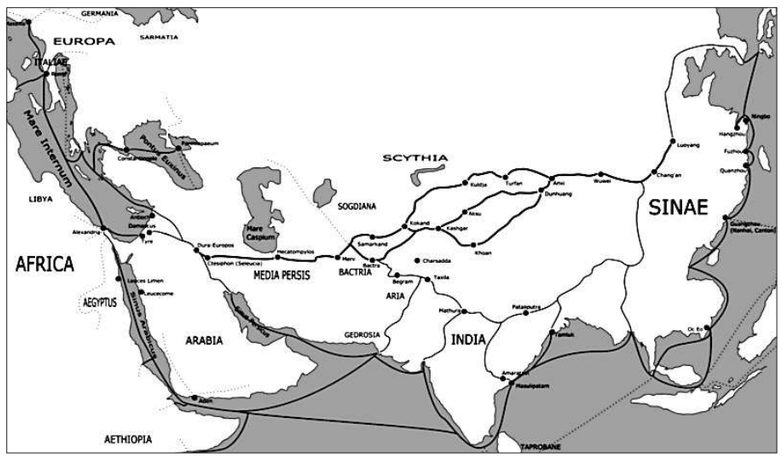
신카와 교수는 “중국화된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의 인과응보 형태를 취했으며 이는 중국화의 상징”이라며 “‘숙세’의 인식은 중국 지도층이 결코 받아들

일본 측 “일본불교 백제서 전래”
다이건싱 “中 시안 실크로드 기점”
최광식 “신라 경주 실크로드 기점”

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카와 교수는 이어 “백제가 육로가 아닌 해상 실크로드로 인도불교를 바로 받았음을 증명한다”며 “이후 백제불교는 7세기 경 일본으로 전파됐다”고 말했다.

신카와 교수는 “흔히 실크로드는 육상만을 설명하는데 해상 루트 등 다양했다”며 “한반도와 일본에 전래된 불교의 흐름을 다각도로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크로드 위키백과 지도. 굵은 선이 실크로드다. 한국 학계의 주장과 달리 아직 경주가 실크로드 기점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눈길을 끈다. 한국학계의 국제공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크로드 기점 두고 한 · 중 이견

이와 함께 다이건싱 산시사범대 교수는 “신라 경주가 실크로드의 기점으로 국제적 공인을 받으려면 최근 실크로드 관련 연구의 신동향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실크로드 동단 기점으로 신라 경주를 꼽는 움직임에 대해 반박했다. 다이건싱 교수는 “중국의 시안이 실크로드의 기점이라는 것은 주류 학술계의 공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광식 고려대 교수(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는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발표에서 “신라 미술에 보이는 서역, 인도적 요소는 신라와 인도 사이의 교류관계를 증명한다”며 “실크로드 선상에서 경주의 위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고려불화 연구를 심화시킨다면 서역과의 문화 교류 양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다이건싱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와 섬서사범대학 서북민족연구중심이 주관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8월 15~16일 중국 시안에서 열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리=전륜성왕 상징’, 왕실 주도로 신봉

한국불교학회 · 월정사 공동 워크숍에서 사리 및 보궁신앙 조명

“한국불교에 사리신앙이 전해된 이후 사리신앙은 시대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장미란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가 8월 19~20일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개최한 여름공동워크숍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미란 교수는 ‘한국 사리신앙의 중국적 전래와 특징’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사리신앙에는 개국 초 사회불안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이 포함됐다”며 “왕실 등에서 주도적으로 사리신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장미란 교수는 “이는 전륜성왕의 상징이란 것도 사리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자현 스님은 ‘자장의 오대산 개창과 중대 적멸보궁’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자장은 한국불교 계율의 정착자이자, 문수신앙을 통한 화엄과 보궁의 확립자”라면서 “자장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무희 국민대 강사는 ‘자장과 한국불교의 보궁신앙’이란 주제 발표에서 “자장


평창 월정사 적멸보궁의 사리탑비

이전에도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보탑신앙(寶塔信仰)이 있었다”며 “‘보탑신앙’이 황룡사 구층목탑의 건립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적멸보궁의 변천과 사상 - 5대보궁에 대한 정합적 이해(장성재 동국대 문화철학전공 교수 발표) △중대 적멸보궁의 역사(이원석 동국대 강의초빙교수 발표) △사리 정의와 사리 숭배를 난해한 고전에서 이해하기(원혜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발표)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왕릉 무인상은 불교 사천왕상이 모델”

임영애 경주대 교수, 신라사학회 10주년 학술대회서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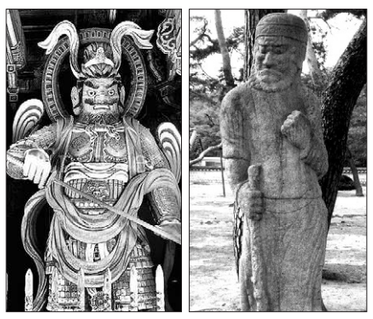
“그동안 왕릉에서 서역인으로 보던 무인상은 불교의 사천왕상에서 나온 것이다.”

임영애 경주대 교수는 8월 17일 경주에서 열린 신라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128회 학술발표회에서 ‘인식과 재현-미술사적 관점에서 본 신라와 서역’ 발표를 통해 “원성왕릉 무인상은 불교 사천왕상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성왕릉은 조형물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능으로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왕릉 서역인 무인상이 신라의 무역범위를 반증한 것이라는 학계 통설을 뒤집은 것이다.

임 교수는 이날 무인상이 보여주는 사실적 표현을 위해서는 서역인이 신라에 왔어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하며, 무인상이 조성된 9세기는 신라가 극심한 혼란을 겪던 때라 서역인이 방문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했다.

임 교수는 “금강역사상 또는 사천왕과도 흡사하다”며 “신라 왕릉 조각에 투영된 불교 미술의 영향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주 불국사 사천왕 중 동방지국천왕(좌)과 경주 원성왕릉 무인상(우)

임 교수는 이어 “사천왕상과 흡사한 갑옷을 입은 왕릉의 십이지신상, 불교 사자상을 연상시키는 능역의 사자상 등도 불교의 영향을 의미한다”며 “다만 중국에서 서역인 이미지가 금강역사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강봉원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의 ‘신라 골품제도와 屋舍에 관한 연구’와 조이옥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의 ‘신라와 일본 태재부의 무역’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대장경 관련 세계 석학 한자리 모인다

대장경축전조직위, 9월 3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고려대장경의 체계를 조명하는 국제세미나가 열린다.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9월 3일 서울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고려대장경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체계’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루이스 랭카스터 버클리대 교수, 로버트 버스웰 UCLA교수, 바바 히사유키 일본 불교대 교수 등 해외 석학을 비롯해 조은수 서울대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신규탁 연세대 교수 등 국내 불교학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 해인사 보존국장 성안 스님이 대장경 보존의 현황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학술세미나 이후 호텔에서는 대장경 사진전시 및 인경체험도 개최된다.

대장경축전조직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대장경 정신의 확산을 기대한다”며 “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사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055)211-6283

노덕현 기자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방안 학술세미나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승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는 8월 3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나경수 전남대 교수의 ‘불교무형문화유산 정책 방향과 과제’ △구미래 동국대 강사의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분류 체계와 조사 기준’ △이채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 조사 연구 사례’ 등 논문이 발표된다.

문화부는 “향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종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2)2011-1770

노덕현 기자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 갈등관리 세미나

동국대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소장 오영석)는 8월 20일 한국갈등관리학회(회장 최병학)과 동국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동국대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와 한국갈등관리학회는 사회적 소통과 신뢰 형성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에 나설 방침이다.

공동학술세미나는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충남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갈등관리 쟁점분석과 해결방향’과 이병일 경희대 교수의 ‘원자력발전과 지역신뢰’, 오영석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장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갈등의 치유적 접근’의 주제발표와 이철헌(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 송인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학린(단국대)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오영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장은 “갈등관리에 대한 비교연구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종교연합 ‘불교와 음식’ 포럼

한국종교연합이 개최하는 제68차 평화포럼이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에서 열렸다.

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남수)은 8월 27일 천태종 부산 삼광사에서 ‘종교와 음식문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불교와 음식문화’를 주제로 최만순 세계한식문화관광협회 대표와 ‘천도교의 음식과 영성’을 주제로 김용휘 한양대 교수의 발표가 이루어지며 구자상 부산 녹생당 대표와 최선임 한국전통약선연구소 대표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포럼을 주관하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한국종교연합 공동대표)은 “종교음식을 공유하고 알아감으로써 종교간의 이해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봉 한국불교 염불선종 축

창종 선포문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불교는 호국의 종교로서 흥망성쇠와 함께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종파마다 복잡하고 번쇄한 교리를 앞세워 대립하고 분규와 배척을 일삼았다. 석존께서 열반에 드시고 백여 년이 지난 뒤에 위대한 종교적 인격을 통하여 약동하던 자비지혜 원력의 정신은 없어지고 선종은 선종대로 교종은 교종대로 이기주의 보수주의로 흘러 지금에 이르러 무수한 종단을 탄생시켰다. 한국불교의 화두선 지상주의에서 염불을 폄하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염불은 내가 참 나를 생각하는 것이며 중도실상의 진여 불성인 법신자리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누구나 쉽게 근접할 수 있고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수행법인 우리의 본래 면목을 되찾는 염불에 화두를 붙여 "염불하는 이 자가 누구인가"를 참구하는 방법과 본래의 자성이 부처라는 법신을 관하는 실상염불 수행종단인 염불선종을 창종하고자 한다. 염불선종은 염불선을 종단수행의 모체로 삼고 위로는 석가세존의 교리를 예봉하며 일관된 화쟁사상으로 모두가 일불제자임을 알린 원효성사를 종조로 삼는다.이에 창종과 함께 창종선언문을 선포한다.

불기 2557년 8월 20일 제정
불기 2557년 8월 20일 공포시행

총 무 원 :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 1리 백련암
사 무 소 : 경주 복원사 원효불학원 010-3911-3646

창종주 영운 혜성 합장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3년 9월 3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전남 지역 최초 사찰 유리도가니 출토

장흥 천관사 발굴조사결과…고려시대 높은 위상 반증

장흥 천관사(주지 지행) 유적발굴에서 전남지역 최초의 유리 도가니가 출토됐다. 장흥군은 8월 19일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서 6월부터 9월까지 발굴조사 결과 유구는 승방지를 비롯하여 건물지 5동과, 석열 2기, 추정 탑지 등이 확인되었다. 건물지 4동과 석열 2기, 추정 탑지의 조성시기는 조선시대, 건물지 1동의 조성시기는 고려~조선시대로 유구로 확인됐다.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천관산의 북쪽 자락에 위치한 천관사는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남북국시대(신라) 애장왕(800~808년) 때에 영통화상(通靈和尙)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경내에 있는 삼층석탑(보물 제795호)과 석등(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4호)이 시기의 양식을 갖추고 있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출토유물 중 유리도가니를 비롯해 기와와 청자, 분청자, 백자 등이 확인됐다. 전남지역에서는 나주 복암리 유적에서 동(銅) 도가니가 출토된 바가 있으나 유리 도가니는 최초다.

천관사 출토 유리도가니는 원통형의 몸체에 둥근 바닥을 갖춘 형태로 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창건 당시 왕실을 비롯한 청해진 등과 연계된 천관사의 사세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물지에서 출토된 소조 나한상은 조각 수법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천관산 지역 불교 조각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경내에서 수습한 청자퇴화문말(馬)은 천관사가 천관산에서 거행하였던 국가 제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으며, 이전의 시·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청자향로와 청자음각당초문기와 등과 함께 고려시대 천관사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천관사 주지 지행 스님은 "천관사는 18세기 실학자 존재 위백규 선생이 쓴 글에 '48전각 89암자가 있다'는 말처럼 크게 융성했던 가람으로 발굴사업을 통해 그 형태를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향후 협의를 통해 반출된 유구와 문화재들을 전시공간을 마련해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8세기 청해진 등 연관 왕실사찰
18세기 실학서에 대가람 구전
천관사, 유구 및 문화재 전시 계획



장흥 천관사 발굴조사 현장 전경과 출토된 유리도가니모습(우측 하단)

이번 발굴조사는 2011년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조사로, 천관사의 규모와 가람배치 등의 성격을 밝히고 향후 체계적인 정비 복원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장흥군의회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흥군은 특히 조사 결과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으나 조사 면적의 한계로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위상이 매우 높았던 천관사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회관, 백혈병 환우 돕기 나서

난치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젊은 환우를 위해 불자들이 발벗고 나섰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보륭)는 전북불교회관 법우인 김경오 불자(20세)가 난치병인 벽혈병으로 1년 넘게 투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요법회 회원들과 함께 즉석 모금운동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지난 8월 6일 가족에게 전달했다.

전북불교회관은 일요법회 불전함의 보시금 80만원 전액을 김경오군의 어머니 송민숙 보살에게 전달했다. 지구촌 공생회 전북지부도 소식을 듣고 치료비 20만원을 보탰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형과 함께 살고 있는 김경오 군은 고3때인 지난해 백혈병이 발병해 학업도 포기하고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일요법회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석해 쾌유를 기원해왔다. 김경오 불자의 가족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매월 공양미 20kg을 보시해오고 있다.

이영배 전북불교회관 과장은 "작은 정성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하루속히 완쾌돼 건강한 모습으로 법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불교회관은 치료비 후원금외에도 헌혈증 기부 등 불자들의 작은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063)277-3497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천정원박람회서 초의 스님 일지암 재현

순천정원박람회에서 초의 스님의 일지암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0월 20일까지 순천만에서 열리는 순천정원박람회장 내 '일지암'은 관람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문화 유적지인 해남 대흥사의 '일지암'을 그대로 재현해 놨다.

'일지암'은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한 초의 선사가 1826년부터 40년 동안 머문 다원 암자를 원형으로 재현해 관람객이 다도 체험과 다식 만들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정원박람회장 내 색다른 공간이다.

또 이곳에서는 다도 및 다례 체험과 함께 고소한 다식을 만들어보고, 시식까지 할 수 있어 최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교육원 연광 스님 초청법회

"행복은 마음먹기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광주불교교육원(대표 이순규)는 8월 20일 교육원 강당에서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연광 스님은 참가대중들에게 '행복을 꿈꾸는 그대,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대'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법회에서 "행복은 마음의 크기에 다라 다가오는 것이 차이가 있다"며 "행복이 오면 불행도 같이 오는 것이 세상이 이치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행복을 여는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범식 前 이사장, 이순규 박사 등 200여 대중이 운집했다. 광주불교교육원은 연광 스님에 이어 8월 23일 충북 효심사 주지 성담 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살린 故차일혁 경무관 공덕비 제막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을 비롯한 대중이 공덕비를 제막하고 있다.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를 구한 차일혁 경무관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가 화엄사에 세워졌다.

故 차일혁 경무관(1920~1958)은 지난 1951년 6.25전쟁 당시 전북경찰국 제18전투대대장으로 임명돼 토벌작전이 진행된 지리산 일대의 화엄사, 천은사, 쌍계사, 금산사, 백양사, 선운사와 덕유산 일대의 사찰 소각 명령을 받았으나 기지를 발휘하여 사찰을 전화(戰火)에서 구한 인물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문화재호국인물로 선정을 했으며, 국가보훈처는 호국의 인물로 선정했으며, 조계종 초대종정 효봉 스님이 1958년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8월 21일 화엄사 박물관 입구에서 진행된 이날 공덕비 제막식에는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과 차 경무관의 후손인 차길진 법사, 전석종 전남지방경찰청장, 서기동 구례군수 등 300여 명이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차길진 법사는 경봉 스님 친필 '화엄'과 차일혁 경무관 관련 자료 5점을 화엄사 박물관에 기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신도회 암도 스님 초청법회



8월 18일 전국불교신도회는 전북불교회관 4층 법당에서 前포교원장 암도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봉행했다.

전북불교신도회(회장 김백호)는 8월 18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前 포교원장 암도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암도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 회장은 "도전과 혼미의 시대에 전북불교를 우뚝세우기 위해서는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신행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모든 사찰들이 전법과 포교 교육의 중심도량으로 나서자"고 말했다.

암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활 속에서 복을 쌓는 불교신행 활동을 생화불교라고 전제하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부처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팔정도를 행해야 한다. 또 계율과 보시를 통해 이웃과 함께 지혜와 복을 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불교신도회는 지역불교 발전을 염원하며 매월 1회 전국의 선지식을 초청해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계 세계순례대회 참석 잠정보류

불교계가 9월 28일부터 전주와 김제, 익산, 완주군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순례대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순례대회 불교조직위원회(위원장 보륭)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대종교 성지를 순례하는 세계순례대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보륭 스님은 본지와의 만남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지난 8월 6일 세계순례대회 조직위에 공문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9월 28일부터 9박 10일의 일정으로 전주, 익산, 김제, 완주군 일대에서 개최되는 세계순례대회에는 4대종교 성지를 순례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천주교 성지위주로 순례길로만 이어졌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다.

불교 조직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시의 '6대종교 관광활성화 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세계순례대회 참석을 잠정 보류하는 한편 현재 천주교 위주의 순례길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조직위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순례대회 법인화를 위해 필요한 불교조직위원장의 인감증명 등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8월 20일 전주시의 종교편향 행위 파악을 위한 실사에 들어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 •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개강 :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

동티모르 유소년축구팀 템플스테이 체험

8월16일~17일 삼광사서

'동티모르의 기적' 으로 불리는 동티모르 유소년축구단 31명이 부산 삼광사에서 머물며 템플스테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부산 삼광사 '힐링광장' (대표 무원)의 첫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사업으로 8월 17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3 경주 국제 유소년(U-12) 축구대회' 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팀을 초청했다.

축구팀은 8월 16일~17일 양일간 삼광사에서 머물며 우승기원을 위한 53존불대탑 탑돌이, 삼광사와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팀 간 자매결연, 후원물품 전달과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16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개최된 환영식에서 주지 무원 스님은 다문화 합장주를 선수들의 손목에 끼워주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만큼, 항상 끈기 있게 노력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기를 바라며, 경주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도 꼭 우승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동티모르의 신화를 만든 김신환 감독은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무원 스님에게 선수들 모두가 마음 깊이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다"며 "10년 전 부터 축구팀과 좋은 인연을 맺어 주시고, 오늘 삼광사에서 한국문화를 체험

김신환 감독 외 선수 31명

한국문화체험하며 우승 기원

하는 시간은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티모르 유소년축구단(감독 김신환)은 2003년 김신환 감독의 주도로 창단해 지난 2004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제30회 리베리노컵 국제소년 축구대회' 에서 건국 이래 첫 우승을 차지했다. 전쟁의 상흔과 빈곤에 허덕이는 동티모르 국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준 사건이었으며, 역경을 딛고 성취한 기적같은 성과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동티모르 유소년축구단 31명이 8월16일~17일 부산 삼광사에서 머물며 템플스테이 행사를 가졌다.

한편, 지난 8월 22일 '2013 경주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동티모르 유소년축구팀이 스포르팅 유소년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박경수 지사장

한반도평화기원 '금어연' 고불식

8월 20일 범어사 대웅전서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는 8월 2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한반도평화대회의 상징물인 '금어연' 고불식 행사를 개최했다.

수불 스님은 고불문에서 "한반도 평화기원이 원만 성취되기를 축원하는 상징물로서 역사적 사료로 길이 남을 '금어연' 을 제작했다"며 "제작을 위해 40여 명의 국내 최고 명장들이 혼신의 힘을 바친 대작불사이며, 오는 9월 한반도평화대회에서 '금어연' 의 행진에 함의된 지구촌 평화와 구국구세의 서원이 후대에까지 전해지길 축원"한다고 고했다.

연제작을 맡은 명천 스님은 "우리의 혼과 얼이 담긴 최고의 작품을 위해 전국의 박물관과 사적을 탐방하고, 각종 문헌과 명장들을 섭외해서 금어연이 탄생하게 됐다"며 "여느 연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명장들의 정성과 혼이 배인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감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완성된 '금어연' 의 제작기간은 2012년 6월에 시작 총 480일, 제작경비 3억원이 충당됐다. 연(輦)은 사찰에서 불상, 불명패, 위패, 가사 등을 이운할 때 사용한 가마 형태의 불교의식구다.

한편, 범어사는 백중을 하루 앞둔 이날, 보제루에서 방장 지유대종사를 모시고 2013년 하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금어연' 고불식

박경수 부산지사장

용호복지관, 다문화가정 결혼식

민 · 관 · 기업 협동지원, 환경 · 재능기부 테마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하지 못한 채 생활하던 다문화 가정의 결혼식부터 신혼여행까지 지원해주는 행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부산여성회관 ·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가 함께 지원하는 민 · 관 · 기업 협력의 다문화 복지사업이 진행됐다. 8월18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웨딩홀에서 저소득 다문화 가정 두 쌍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다.

2011년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만 이제야 결혼식을 올리게 된 마을버스 운전사인 김성찬(가명)씨는 "과거의 빚과 어린 두 딸까지 생겨 결혼식은 정말 꿈만 같았다"며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주신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김 씨는 아내를 위한 사랑의 편지를 통해 "좀 모자라고 부족한 나에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결혼식으로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오늘 난 너무 기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분신이며 생명입니다"라며 자신의 마음을 전해 하객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다. 이들의 결혼식 사연을 듣고 해운대 한화리조트 박봉주 본부장과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이 각각 주례를 맡고, 양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조은씨가 축가를, KBS 개그맨 한태양씨 등이 재능기부로 결혼식의 즐거움을 더했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결혼식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길 바란다"며 행사의 취지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051)628-6737 박경수 부산지사장


용호복지관 다문화 결혼식 장면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장마 끝나면 바로 비 피해 점검

여름이 지나는 길목에서 산사에 사는 스님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올 여름에는 비 피해가 없으셨나요?"

올 여름은 장마로 시작해서 무더위로 끝이 나는 분위기이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끝이 없을 것처럼 지속되던 장마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그 덕분인가? 더워서 견디기는 힘들었어도 물난리를 겪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사실상 산사에서는 더위보다 단시간에 쏟아지는 폭우가 힘들고 무서운 존재이다. 산지에 지어진 사찰들이 대부분 경사지를 절취하여 평지로 만든 땅에 자리를 잡고 있어 비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산사라고 해도 오래 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찰에서는 어지간한 비가 온다 해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물길을 제대로 만들어주어 사찰내부로 빗물이 들이닥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어진지 1300년 가까이 되는 불국사의 대웅전 영역을 보면, 석단 밖으로 석루조가 불쑥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다. 대웅전 마당의 물을 밖으로 빼내기 위한 시설이다. 불국사에서는 무설전 옆에 있던 우물에서 넘친 물이나 비가 오면 마당으로 흘러들어온 물을 아무 피해 없이 외부로 처리하기 위해 마당하부에까지 배수장치를 하였던 것이다.

불자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되면서 오래된 산사에서도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주변의 산을 무리하게 절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지형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토양의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형구조를 가지게 된다. 더구나 배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더 커지게 되어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큰 피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소소한 피해는 얼마든지 있다. 비만 오면 마당으로 물이 밀려들어와서 표토를 쓸어가 마당이 황폐화된다든지, 기단이 낮은 건물의 경우 기둥이 물에 잠겨 건물의 수명을 단축한다든지, 마당에 물이 차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환경이 습해진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는 다행히 비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무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 당장 사찰내외부의 배수체계를 점검하여 내년에도 비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 일 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조금만 비가 와도 마당으로 물이 밀려들어오는 경우는 배수시설점검이 절대 필요하다. 경기도 ㅅ사찰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꿈속서 폭포와 노니는 천혜(天惠)의 절경 희방사



조선시대 대학자인 서거정이 극찬한 28m 희방폭포는 내륙지방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다도 교실을 하고 있는 희방사내 소백산 산야초연구회 다실



희방폭포 위에 위치한 희방사 경내는 적막감이 흐른다.

폭포가 아름다운 사찰 2 - 풍기 희방사

소백산 오르는 길에 자리한 희방폭포는 소백산맥 최고 봉우리인 비로봉(1,439m)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 높이 28m로 내륙지방서 가장 큰 폭포다. 특히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폭포에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폭포를 위로 하고 한구비 오르면 고요한 정적 속에 희방사가 자리잡고 있다.

일찍이 조선시대 학자 서거정이 '꿈속에서 노니는 천혜의 곳(天惠夢遊處)'이라고 격찬한 희방폭포를 품은 희방계곡. 소백산 영봉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려 한층 운치를 더해주는 희방계곡은 풍기로부터 죽령에 이르러 희방사로 오르는 절경들을 품은 계곡이다. 영주서 단양으로 넘어가는 옛 죽령길을 따라 10여 분쯤이면 희방계곡이 시작된다. 소백산 관리사무소를 지나 계곡 쪽으로 접어들면 울창한 수림, 큼직큼직한 돌과 바위 틈새로 흐르는 시원한 물소리가 순례객을 반긴다. 곳곳에 작은 폭포를 만나고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한 숲속길을 잠시 걷노라면 땅이 갈라질 듯 굉음을 내는 계곡 물소리를 듣게 된다.

얼마 후 눈앞으로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나타나는데 다리 위에 올라서면 28여 미터 높이서 수직하강 하는 폭포를 보게 된다. 바로 희방 폭포다. 희방계곡 명소 중 하나로 해발 700m에 위치한 희방폭포는 소백산 연화봉 밑 깊은 골짜기서 발원해 몇 천 구비를 돌고 돌아 이곳에 멈춰,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소리와 함께 그 물줄기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마치 소백산 영기를 뿜어내는 듯 절벽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폭포수는 가히 계곡의 으뜸이라 할만하다. 폭포 큰 물줄기 아래로도 또 작은 폭포가 이단으로 떨어져 기대 이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 주는데 희방폭포는 경상도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폭포로 손꼽힌다.

소백산 제 1경이라 꼽히는 희방폭포를 왼쪽으로 끼고 계곡 옆 오솔길을 오르면 빽빽한 숲속 깊숙이 자리한 희방사가 있다. 절 아래 천지를 뒤흔들 것 같던 폭포의 굉음과는 정반대로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희방사. 이 절은 선덕여왕 12년(643)에 두운조사가 창건한 사찰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단아한 모습으로 걸터앉았다.

사찰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느 날 산길을 가던 두운 조사는 사람을 잡아먹다 비녀가 목에 걸려 신음하던 호랑이를 발견했다. 두운 조사가 그 비녀를 빼내 호랑이를 살려 주었다. 그 후 호랑이는 두운 조사의 은혜를 갚고자 어느 양가집 규수를 물어다 주었는데, 그 규수는 바로 경주호장(慶州戶長)의 무남독녀였다. 경주호장은 딸을 살려 준 두운조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절을 지

조선시대 서거정 희방폭포 극찬
희방사, 두운조사 설화 전해져
사찰서 〈훈민정음언해본〉 판본 발견

었다. 절 이름 역시 은혜를 갚게 되어 기쁘다는 뜻의 '희(喜)'와 두운조사 참선방이란 것을 상징하는 '방(方)'을 써서 희방사(喜方寺)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당시, 경주호장은 이것으로도 은혜에 대한 보답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죽령고개 아래 마을 계곡에 무쇠다리를 놓아 주었는데, 지금도 고개 밑의 마을을 수철동(水鐵洞)이라 부른다.

한편 희방사는 1568년(선조 1)에 새긴 〈월인석보〉 1·2권의 판목을 보존하고 있었으나 6.25전란 때 훈민정음 원판, 월인석보 판목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소실되기 전 찍어둔 〈훈민정음 언해본〉 판본 한 권이 화재더미 속에서 발견돼 훈민정음 창제 내력을 밝혀 주고 있다. 지금의 건물은 1953년에 중건된 것으로 이곳에는 영조 18년에 제작된 동종(지방 유형문화재 제226호)이 함께 보관되어 있다.

희방계곡을 들어서면서 세속의 시름은 사라지고 희방폭포의 시원한 물줄기 앞에서 세상의 온갖 소음은 그 소리를 잊어버리며 고즈넉한 고찰 희방사에서 동종의 은은한 소리 울려 퍼지면 그곳이 바로 '꿈속에서 노니는 천혜(天惠)의 절경'이다.

풍기 희방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동종…조선후기 범종의 혼합 형식



이 동종은 1986년 12월 11일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226호로 지정되었다. 원래는 1742년(영조 18)에 주조된 충청북도 단양 대흥사의 종이다. 승장인 해철(海哲)과 초부(楚符) 등이 중간 크기의 종으로 만들었다.

크기는 높이 88cm, 용뉴 18cm, 밑지름 56.5cm이다. 모양은 쌍룡으로 이루어진 용뉴 아래 포탄형의 종신(鐘身)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외형선은 볼록한 종정(鐘頂)에서 구연부(口緣部)를 향해 벌어지면서 내려오는 형태를 하고 있다. 종신 윗부분에는 둥근 모양의 범자(梵字)로 된 상대(上帶) 아래 연화당초문의 유곽대(乳廓帶)와 연화무늬의 종유(鐘乳)로 구성된 4개의 유곽과 연화가지를 쥐고 있는 4구의 보살 입상이 교대로 그려져 있다. 이 동종은 비교적 안정감이 있고 조선 후기 범종의 한 유형인 혼합형식의 종으로, 전통적인 수법에 외래 요소인 쌍룡의 용뉴와 띠장식이 합해져 있다. 대웅전 맨 왼쪽 구석에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있으니 일부러 찾아보자.

주변보기

▲찾아가는 길

–승용차

서울 ~ 경부(중부)고속도로 ~ 신갈(호법) I.C ~ 영동고속도로 ~ 남원주 I.C ~ 중앙고속도로 ~서제천 I.C ~ 단양 ~ 풍기(희방)【소요시간 : 서울에서 풍기까지 3시간 30분】

–기차

중앙선 하행 : 청량리 ~ 단양 ~ 풍기(1일 10회)

–버스

서울 ~ 영주 : 동서울터미널(1일 21회)

–시내버스

풍기 → 희방사 : 소요시간 20분(1일 13회)

영주 → 희방사 : 소요시간 40분 (1일 13회)

▲맛집



약선당(054-638-2728)은 약선정식과 인삼정식이 유명하다. '약선'(藥膳)은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이다. 요리연구가 박순화씨가 개발한 정식은 조미료 대신 효소를 양념으로 사용하고 영주에서 나는 제철 재료를 사용해 맛이 담백하다. 특히 주 메뉴를 제외한 나머지 요리가 매일 바뀌고 모든 음식에는 인삼을 갈아 넣는다. 풍기한방삼계탕(054-638-2600)은 감초·당귀·하수오 등 13가지의 약재를 우려낸 물을 육수로 사용해 독특한 맛을 낸다. 25년째 삼계탕을 요리해온 주인장 오경옥씨는 "삼계탕 한 그릇을 먹으면 십전대보탕 한 대접을 먹은 것과 같다"고 말한다. 순흥전통묵집(054-634-4614)은 묵조밥이 맛있고, 정도너츠(054-636-0067)는 생강도너츠가 유명하다.

▲숙박

선비촌(054-638-7114)은 전통가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숙박 외에 고택관람·전통예절·한문·다례·전통놀이·전통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저자거리에서는 토속음식점, 공방, 특산품점, 전통민속놀이 공연장과 체험장 등을 운영한다.

이외에 선비문화수련원(054-631-9888), 물도리예술촌(054-633-8111), 영주청소년수련관(054-633-0924), 옥녀봉자연휴양림(054-636-5928), 풍기인삼관광호텔(054-637-8800) 등.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지리산 토암사 검색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밀납양초를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 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하실 수 있습니다.





3×6식물성사군자

3×6사군자 (7.4ϕ×14.5cm)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ϕ×29cm)



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7.4ϕ×29cm)



한봉밀납양초 – 4호/3호/2호/1호/밀대전사자/
돈타레전사자/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약쑥1호예술연꽃양초/야광 연꽃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불교와 미학

노인과 빈두로존자

‘침묵의 말세’를 지키는 늙은 아라한

부처가 없는 세상, 부처의 가르침도 사라져버린 세상을 말법시대라고 한다. 소위 ‘말세’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도덕과 정의, 원칙마저 사라진 말세, 어느 누구도 희생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지만 서로서로 쫓고 쫓기다가 죽음에 이르러야 그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허무하고 냉혹한 현실을 멕시코와 접경지대에 위치한 텍사스 어느 사막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사건의 현장으로 옮겨놓는다.

황량한 사막을 배경으로 우연히 일확천금을 한 사냥꾼과 그를 뒤쫓는 추적자, 그리고 추적자를 노리는 킬러의 숨 막히는 추격전을 그리는 이 영화는 언뜻 서부영화처럼 보이지만 서부영화에 흔히 나오는 음악도, 악당을 쳐부수는 영웅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사냥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마약 밀매 현장에서 주운 200만 달러 때문에 순식간에 쫓기는 신세가 된 사냥꾼 모스와 파리를 죽이듯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범 쉬거의 잔혹한 추격전이 전면에 배치된다.

그들은 왜 쫓고 쫓기는 것일까?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을 걸고 빼앗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돈을 얻기 위해 모스는 자신이 무엇을 걸었는지조차 모른 채 목숨을 건 내기를 하고 있다. 설사 알았다고 해도 멈출 수 없다. 연쇄살인범 쉬거는 죽음에 이르러야 끝나는 탐욕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인생은 매순간이 갈림길이고 선택이지. 어느 순간 당신은 선택을 했어. 다 거기서 초래된 일이지. 결산은 꼼꼼하고 조금의 빈틈도 없어. 그림은 그려졌고 당신은 거기에서 선 하나도 지울 수 없어. 당신 뜻대로 동전을 움직일 수는 없지. 절대로, 인생의 길은 쉽게 바뀌지 않아. 급격하게 바뀌는 일은 더구나 없지.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처음부터 정해졌어.”

거액을 습득하는 행운과 동시에 살인마에게 쫓기는 불행이 시작된다. 돈이 없으면 종교인마저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모스가 습득한 거액 중 죽기 전에 사용한 돈은 고작 몇 십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모스를 뒤쫓는 쉬거는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인다. 그의 살인은 돈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복수나 정의의 구현을 위한 것도 아니다. 끔직한 살인을 저지르면서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동전 던지기로 살인을 결정한다.

“자, 동전의 앞면이야? 뒷면이야? 골라, 선택은 내가 해. 그것이 네 운명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에 맡겨져 있다. 돈을 얻는 것이 우연의 결과이듯이 죽음도 우연히 결정된다. 우연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며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한 것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쉬거는 우연이 판을 치고 끊임없이 게임의 룰이 바뀌는 자본주의 사회의 무자비함과 무도함을 상징한다.

누가 쉬거의 무자비한 살육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죄 없는 모스의 아내를 살해하고 떠나는 순간,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자동차 사고로 그는 치명상을 입는다. 카오스와 혼돈, 바로 그것이 우연이 지배하는 현실의 진짜 모습이다.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은 이 현실을 과장하지 않고 그러나 애써 희망을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단서를 찾을 수 없는 희대의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늙은 보안관 벨은 이 영화에 관조적 성찰의 지점을 제공한다. 그 덕분에 이 영화는 서부개척시대의 무용담을 그린 서부영화도 아니고 연쇄살인극을 그린 스릴러 영화도 아닌,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아메리카의 현실을 비추는 초상이 된다.

“나이가 들면 다 보이게 돼.”

늙은 보안관 벨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살인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곧 쉬거의 살인사건에 그의 오랜 경험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20년 전에는 사람 죽이는 이유가 분명했어. 그런데 요즘은 알 수가 없다니까. 왜 사람을 죽이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정의도 도덕도 사라진 세상, 늙은 보안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음조차 원칙을 따르거나 순서에 맞추

시간성 표현한 유일한 도상들
청장년, 노년 모든 세대 표현
노인으로 묘사된 빈두로 존자
미래 부처 도래까지 중생 제도

어 오는 것이 아니다. 늘 변화하는 현실을 따를 수 없는 노인은 시대에 뒤쳐진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

늙은 보안관 벨은 삼촌에게 푸념조로 이야기 한다.

“언제나 생각했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신이 어떻게든 내 삶으로 찾아올 거라고. 그런데 오지 않네요.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아마 내가 신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삼촌이 대꾸한다. “네가 겪은 것도 새로운 건 아니야. 이 나라에선 사람들이 늘 힘들어.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 거야. 너를 기다려주지도 않을 거고. 그게 바로 허무야.”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미국은 법도 없고 원칙도 없는 나라이다. 폭력만 난무하는 이 나라는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지혜와 편안함이 쓸모 없는 나라, 그것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 고대의 명저 〈노자(老子)〉는, 성은 이(李)씨고 이름은 이(耳)이고 자는 담(聃)이라고 전해지는 옛날 주나라의 어느 늙은이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공자보다 스물 살 정도 연장자이며 공자가 예(禮)를 물었다고 전해지는 이 인물이 실존인물인지는 의심스럽다. 그의 이름이 왜 ‘노자’인가에 대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70년 있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미 노인이었다는, 지금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물론 사실이 아니겠지만, 이 이야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사실성이 아니라 노자의 ‘늙음’이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전통에서 늙음은 지혜의 원천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노자〉는 어느 ‘늙은이’의 이야기로 세상에 없는 지혜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옛날 사람들은 부처님을 ‘황면노자(黃面老子)’라고 불렀다. 불상의 황금빛 때문에 이렇게 불렀던 것인데, 그것은 불교가 도교와 동일시하여 생긴 현상이 아니라 늙은이를 지혜로운 존재로 보는 중국적 사유가 투영된 결과이다.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불상은 늙은이의 모습이 아니다. 적멸의 몸을 상징하는 붓다의 몸은 시간성을 떠나있기 때문에 불상에는 나이와 같은 시간적인 것이 표현되지 않는다. 대부분 초월적인 인물을 묘사하는 불교의 도상에는 시간성이 표현된 경우는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시간성이 강조된 도상이 있다. 다름 아니라 나한상이다. 나한의 얼굴에는 청년, 장년, 노년의 특징이 뚜렷이 표현된다. 아마도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아라한에게는 초월적인 속성보다 인간적인 속성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나한상들을 많이 얻게 되었다.

그런데 오백 명의 아라한 중 대표인 나반존자, 즉 빈두로존자는 백발에 흰 수염을 드리우고 흰 눈썹이 길게 드리운 늙은이로 묘사된다. 운문사 사리암의 나반존자는 점잖고 부드럽고 온화한 할아버지라면, 해인사 희랑대의 나반존자는 웃음 가득한 주름진 얼굴이 동자처럼 해맑다. 자연으로 돌아간 듯한 천진난만한 얼굴에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등장하는 늙은 보안관의 쭈그러들고 무력한 표정은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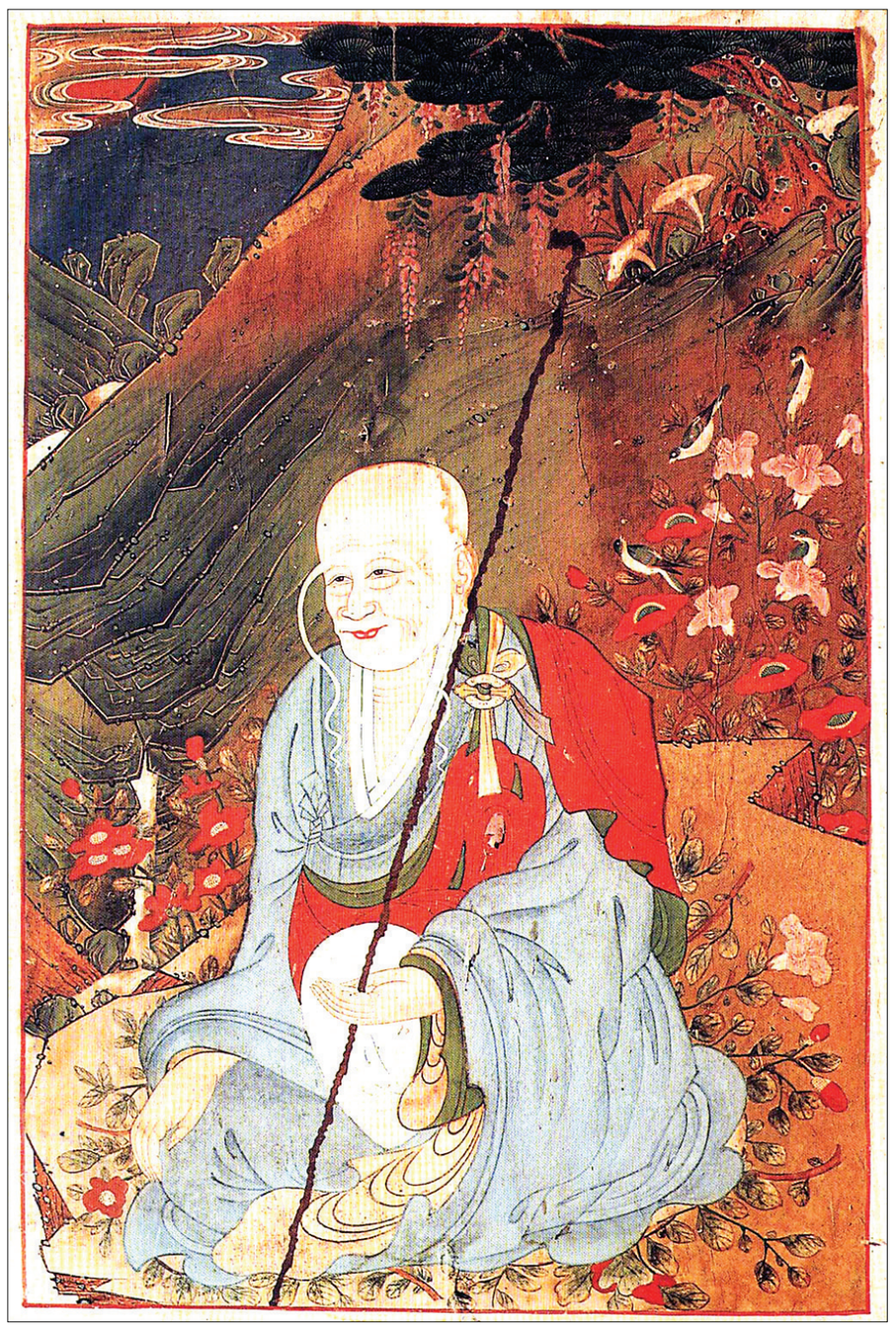
그렇다면 나반존자는 왜 노인인가? 경전의 근거에 따라 미래의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신통력으로 목숨을 연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굳이 노인으로 그를 표현했던 것은 동아시아 전통에 내려오는 ‘노인에 대한 존경’ 때문이다. 사회변동이 거의 없었던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지혜는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늙음은 지혜의 원천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나한의 천진한 얼굴은 과거 동아시아 사회에서 육체적인 힘과 물질적 소유보다 자연으로 회귀하는 소박함과 무욕이 더 높이 평가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래의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처가 없는 세상, 무도하고 냉혹하며 부처님의 말씀이 사라진 침묵의 말세를 지키는 존재는 모든 욕망이 무상함을 깨달은 욕심 없고 지혜로운 늙은 아라한일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나라에서 노인은 육체적인 쇠약함이나 세상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무력함으로 특징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만큼 지혜롭고 무욕한 존재로서 특징지어진다.

‘노인을 위한 나라’, 젊은 대륙 미국에는 없고 늙은 대륙 아시아에는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이뿐만 아니라 늙은이조차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 오늘날 한국사회, 한국불교에도 여전히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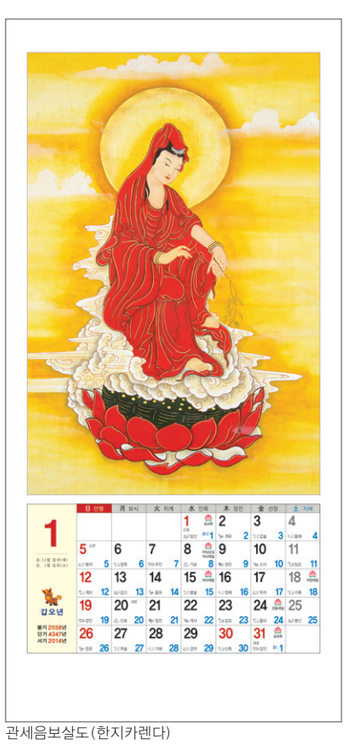


직지사 성보박물관 소장 대승사 독성탱(사진 위)과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스틸컷(사진 아래). 영화는 사회변화에 무력한 노인보안관을 그리고있다. 하지만 동양에서 노인은 인생의 지혜를 터득해 후세에 전하는 역할을 한다.

2014년 삼보불교 달력 주문 접수중!
《카다록과 카렌다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카렌다 지역판매 가맹점 모집
문의전화. 031) 732-9905 Fax. 031) 732-8972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제작하여 보급 해 왔으며, 2014 갑오년에도 의미있고 주제가 있는 새로운 카렌다들을 추가로 제작 하였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카렌다,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들을 만나보세요.


관세음보살도(한지카렌다)


지혜동자


연꽃향기


법음이 깃든 산사


구도자의 길


산사와 주련


반야심경


운봉스님의 달마도


심우도


산사에 피는 야생화


민족의 산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8대 성지순례)


산사의 미(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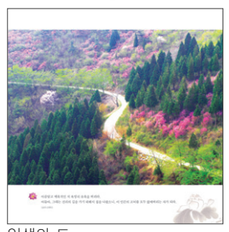

보현스님의 동승이야기


천진동자 1월


천진동자 2월


천진동자 3월


천진동자 4월


인생의 도



생활한방차


불보살님의 미소


풍경소리


한국의 보탑


천진동자 1월


천진동자 5월


천진동자 7월


천진동자 8월

천진동자 10월

천진동자 11월

천진동자 12월

삼보불교달력 전국 지역 가맹점

서울. 다보사 02-816-0600, 불심원 02-725-0250, 성불사 02-735-3543, 정릉만물 02-941-4247 경기. 동두천 명성불교사 031-862-2792, 수원 종로불교사 031-254-1080, 안양 관음불교사 031-444-9689 대전. 불교전시관 042-256-4127
전남. 구례 문화불교사 061-783-2627, 순천 영태불교사 061-753-4304, 해남 불교용품 061-532-8604 대구. 동화불교사 053-257-7578 경북. 포항 동호불상서점 054-244-3365 부산. 반야불교용품점 051-751-7720

선지로 경전 해석…“화엄경 번역 후 자신감 생겨”



方山老의 無影樹 〈27〉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송찬우 교수



송찬우 중앙승가대 교수
통도사 입산, 선림고경총서 등 30여 권 번역

먹 가는 시간 아까워 사다 써
자신의 책 없어 〈화엄경〉도 빌려
권속 늘리려는 ‘전강’ 풍습 거부
宗旨 없으면 글자만 새기는 죽은 학문
장점만 보고 단점을 말하지 않아

-어떻게 해서 탄허 스님과 인연이 되었나요?

제 나이 스물한 살 때인가 동국대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때(1971년 경) 탄허 스님께서 동국대 대학선원장으로 계셔서, 1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러 오시더라구요. 근데, 오셔서 강의하실 때에 책은 안 들고 오시고, 분필 하나만 들고서 유불선 삼교의 원전을 전부 외워서 강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강의를 처음 보고서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 나는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얼마나 공부를 하면 저리 될까를 생각하였어요. 그때부터 스님은 나의 흠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탄허 스님의 유묵은 유명한데요, 결혼 기념으로 병풍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노스님(탄허)은 남들이 글씨를 써 달라고 하는 것을 귀찮아하셨습니다. 글씨를 쓰려면 먹을 제대로 갈아야 하는데, 스님은 먹 가는 시간을 아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먹을 갈지 않고, 먹물을 사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유묵은 힘차고 독특한 글씨이지만, 간혹 글씨가 탁하고 묵색이 좋지 않은 것이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화선지 종이도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책을 얼마나 가지고 계셨나요?

또 탄허 스님은 당신의 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일제시대, 상원사에서 공부하실 때에도 화엄경이 없었대요. 그래서 고암 스님의 책을 빌려서 하셨는데, 10년에 걸쳐서 번역을 완성하여 출판하시고 나서, 고암 스님에게 보답하시는 차원에서 화엄경 한 질을 드렸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노스님(탄허)은 책을 안 사요. 스님은 대학자, 대강백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당연히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에게는 책이 없어요. 스님은 늘 책을 빌려 본 것입니다. 스님은 책을 빌려서 짧은 것은 외워버리고, 긴 것은 만년필로 필사를 해 가지고 봤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스님이 경전을 다 외우시니까 책이 많을 줄 아는데, 책이 없어요. 스님은 사집, 사교까지 다 번역을 하셨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서재의 책은 별로 없어요. 스님은 그런 식으로 번역을 다 하신 것입니다.

-탄허 스님은 시간을 아껴서 번역을 하셨지요?

맞아요. 스님은 신도 공양청에 가셔도 시간이 나시면 원고를 쓰셨어요. 절대 시간이 난다고 잡담을 안 하십니다. 스님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스님은 저녁 아홉 시만 되면 주무십니다. 그러시고 나서 빠르면 새벽 한 시에 일어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 시 경에는 일어나십니다. 그러면 한 시에 일어나시면, 더 자지를 않으시고 세면을 하시고 그냥 앉아서 한 시간 동안 정진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책을 펴고, 원고를 쓰십니다. 그러면 아침 공양을 여섯시에 하시면 남들이 한나절에 한 것 이상을 벌써 새벽에 다 하신 것입니다. 신도가 와서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면 스님은 인사를 받고 간단한 안부를 물으시고 나서는 더 이상 자질구레한 말은 않으시고 딱 돌아서 원고를 쓰십니다. 그러면 신도가 미안해서 가곤 했지요.

-탄허 스님의 학문, 강맥은 누구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독학해서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전강에 대한 것을 들려주세요.

탄허 스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선방에서는 면면심수(面面心受)를 해야 하기에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강원에는 전강이라는 것이 없었답니다. 스님은 전강이라는 괴이한 풍습을 무시하셨어요. 경전을 읽을 때에 불교에는 술어가 너무 많아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불교수준이 높아서 사전이 없어도 볼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불교가 배척을 받아서 경전을 보려면 깜깜절벽이었어요. 그래서 인악스님, 연담 유일 스님 같은 거물 스님들이 나와서 경전을 주석해 놓은 것이 소위 사기(私記)입니다. 그 사기가 사전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기가 없으면 경전을 못 봐요. 그런데 이것도 강사 스님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 사기는 필사본만 있지, 판각본이 없어요. 유통을 안 시켜서 그리 된 것입니다. 강사 스님들이 몰래 그것을 보면서 가르치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를 잘 받들어 주고 자신의 강맥을 이어나갈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그렇게 사기를 전달하는 것이 전강입니다. 요즈음 말로 하면 사기는 기득권 유지 성격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 탄허 스님의 앞에 어떤 스님이 와서 전강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나는 한암 스님에게 전강 받은 일도 없는데, 무슨 놈의 전강이냐”고 하셨어요. 또 스님은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강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강사를 할 것이고,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강사를 하고 싶어도 강사를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사전이 나온 이후에는 전강이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요즈음 하는 것은 자기 권속을 늘리는 방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탄허 스님은 6·25가 나기 전에 통도사로 피난을 가셨는데, 통도사에 있다가 경기도에 잠시 있다가 오대산으로 내려가셨는데, 그때에 망월사에 들르신 것 같습니다.

탄허 스님이 6·25가 나기 이전에 통도사 백련암으로 가셨을 때에 산중 대중들에게 몇 번 특강을 해 주었는데, 그때 대중들을 놀라게 해준 일이 있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통도사 산중의 대중들이 강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였는데, 대중들은 스님이 옛날 식으로 책을 펴놓고 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흑판을 몇 개 이어붙인 것을 놓고 강의를 하셨는데, 순전히 백묵만 갖고 외워 제끼니까 듣던 사람들이 놀래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전 강의를 하시면서 흑판을 갖고 하신 것은 탄허 스님을 최초로 봐야 합니다.

-통도사에서의 칠판 강의에 대한 증언은 놀랍습니다.

제가 스님에게 여쭈어 봤어요. 언제부터 번역을 하시기 시작했냐구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당신 나이 마흔다섯 살(1957년) 때부터 번역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태백산 영은사 일소굴에서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화엄경이 10년인가, 9년 만에 탈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화엄경을 배우게 된 것은 일제 때, 한암 스님의 회상에서 화엄론이 있었던 것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그때에 한암 스님께서 탄허 스님에게 강의를 하도록 시켰다고 그래요. 그때 스님은 한암 스님 앞에서 거의 선지에 입각해서 경전을 풀어내신 것이지요. 그걸 하다 보니, 머리에 흰 머리가 날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 토를 뗀 것이었다고 그러셨어요. 스님은 상원사에 처음 와서는 일체 경전을 안 보려고 3년간 선방에서 정진을 했대요. 그러나 한암 스님께서 글을 할 줄 아는 탄허 스님에게 글을 봐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러지요. 입산 이전에 한문을 달통하고 들어갔으니, 하루 종일 경만 읽었는데 탄허 스님이 경을 한암 스님 앞에서 쭉 읽기를 무려 7년간을 했대요. 그때에 경덕전등록, 선문염송을 다 봤다고 그러셨습니다.

-탄허 스님의 경전관과 한암 스님의 경전관은 같았습니까?

스님은 한암 스님에게 경전을 배웠는데, 한암 스님의 경전관은 선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탄허 스님 역시 그렇습니다.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으로 부터 선사의 안목으로 경전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선지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탄허 스님의 강의가 일반 강사와는 달리 특수하게 보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만약 한암 스님이 살아 있으면 지금도 한암 스님에게 배울 것은 선지를 통해서 경전을 보는 것을 배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스님은 종지(宗旨)를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은 다른 강사들은 종지가 없다고 하시면서, 종지가 없으면 그것은 단지 글자만 새기는 것이며 죽은 학문이지 그러셨어요. 늘 종지를 강조했어요.

-탄허 스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스님에게서 분명하게 들었어요. 스님은 책 한 권을 빌리면 그 책을 완전히 외울 때까지 보고, 그것을 외운 후에야 딴 책을 보셨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를 말하면, 스님은 기신론을 외우고 싶어서 외우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종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지가 드러날 때까지 반복해 읽다 보니, 저절로 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을 가장 골탕을 먹인 책이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이라고 하셨지요.

-탄허 스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았어요. “언제부터 학문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셨습니까?” 하고요.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화엄경을 번역한 이후에는 통 두려운 것이 없었고, 그때부터 자심감이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스님은 인재양성을 강조하셨어요.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시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이 보통 큰스님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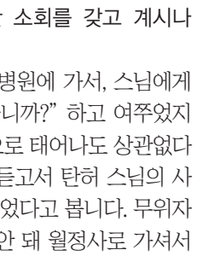
스님은 절대 사람의 장점을 보지, 단점을 보지 않아요. 단점이 10분의 9이고, 장점이 10분의 1이어도 장점 그것만을 봐요. 그런데 사람이 무난하더라도 아무런 장점이 없으면 사람으로 안 봐요.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해운 선생입니다. 스님은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지,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교, 노자 도덕경의 번역을 끝내고 방산굴에다가 인재양성의 기반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대전 학하리도 검토하였으나 거기는 터가 너무 작아서 안 되고, 월정사에다가 하시려고 구상을 했어요. 지금은 방산굴 앞이 선방이 되었지만 그곳은 경사진 밭이 제법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다가 방이 많은 집을 지어서, 쓸 만한 사람 20여 명을 받아서 공부를 시키려고 했어요. 절집에서 공부를 후원해 주는 구상을 했어요. 월정사가 후원해야, 절이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꿈을 스님은 꾸었어요. 스님은 공개적인 강의를 한 일이 없어요. 어떤 경전 한 권을 놓고 강의를 하신 적은 평생 동안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강사로 자처한 적도 없어요. 그때 스님의 나이가 70이 되니깐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바로 병이 나서 돌아가셔서 실행이 되지 않았지요. 그때 스님은 20년을 더 산다고 그러셨어요. 만약 더 사셨으면 그것을 하셨을 거예요. 병이 안 났으면 하셨을 것입니다. 스님은 20년을 키우면 인재가 안 나오겠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탄허 스님은 정치의식, 민족의식이 강하셨지요?

정치의식과 관련해서 스님에게 들은 말을 전해 드리지요. 당신이 6·25 무렵에 인민군이 와서 총을 들이댔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우리 불교도 사회주의이다. 봐라, 우리 불교는 삼의일발(三衣一鉢) 밖에 더 있냐, 그리고 개인 소유가 없다. 그래서 절대 평등한 제도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이 사회주의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하셨대요. 그러자 인민군이 동무 그러냐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걱정 말라고 곧 해방시켜 줄 테니깐 하고 그냥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님의 아버지는 보천교의 핵심 간부로서 거기에 장관급이라고 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6·25 때 인민군 치하에서 정읍의 군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좌익이고, 온건하게 보면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당신은 부르조아지였지요. 또 스님은 민족·주체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원각경과 기신론을 번역하실 때에 원효소와 함허득통소를 활용한 것에서도 나와요. 그때에 스님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스님의 좋은 책이 있는데, 굳이 중국 것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스님의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탄허 스님의 정체성에 대한 소회를 갖고 계시나요?

제가 돌아가실 때에 한양대병원에 가서, 스님에게 “가시면 어디로 태어나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지요. 그랬더니 스님은 그 무엇으로 태어나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서 탄허 스님의 사상에는 노장학이 짙게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무위자연 사상이지요. 그 뒤로 얼마 안 돼 월정사로 가셔서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한암 스님의 전법제자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스님은 당신이 한암 스님의 전법제자라는 것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암 스님의 법은 보문 스님과 난암 스님이 이었는데 보문 스님은 불행히도 50으로 단명했고, 난암 스님은 일본에 가서 조총련의 거물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난암 스님의 영향력이 커서, 그 스님을 회유하려고 탄허 스님을 일본에 보내서 만나보았답니다. 난암 스님에게 가보니 김일성의 사진은 대문짝만하게 걸어 놓고, 박정희 것은 조그만하게 걸어 놓았대요. 그리고 난암 스님이 김일성을 거의 수양아버지로 여기고, 방에는 김일성에게 받은 훈장이 즐비하였고, 석가나 공자도 김일성을 못 따라간다고 여겼으니 회유가 되겠어요. 그때 스님은 난암 스님이 준 신수대장경 원본을 받아서 가져왔어요. 그것이 학하리에 있었어요. 하여간 스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이 한암 스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대산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없었고 다 떠나고 그랬지만, 오대산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탄허 스님 계열밖에 없으니 자동적으로 탄허 스님이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출발일 : 2013년 9월 21일, 9월 28일 (단, 2회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 5일
출발일 : 2013년 9월 25일

■ 인천 / 김해공항 출발 - 실속 (타이항공 초특가)
* 국내선 항공 이용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7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 7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강력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10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2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29만원
• 대만	5일	12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무변신보살, 왜 여래의 정수리 못보나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8〉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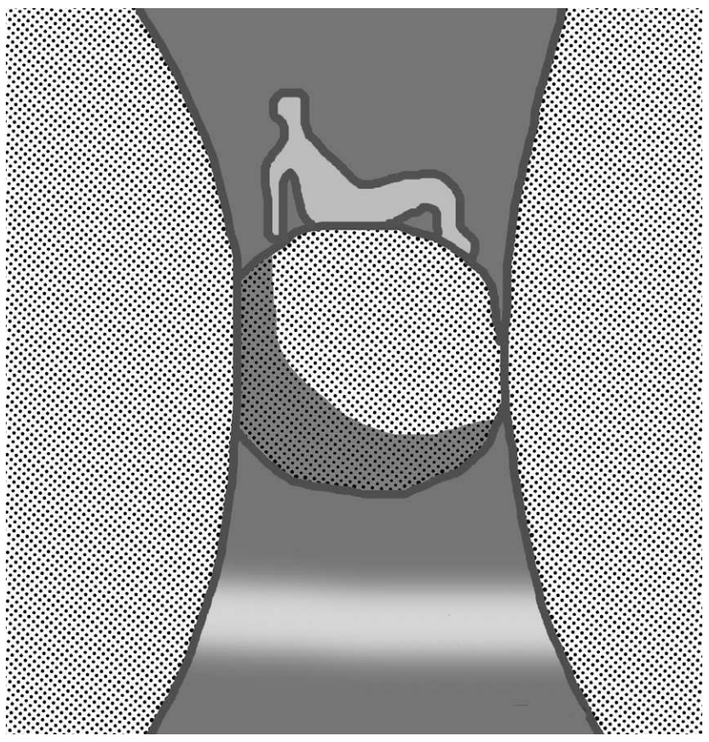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그러므로 "오직 이 일승(一乘)의 도가 있을 뿐,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단지 부처님의 방편설 만은 제외한다."고 하셨다.

한 마음에 대한 안목이 투철해지면 오직 일승만 실상일 뿐이고, 이승이나 삼승은 이미 구질구질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선은 오직 불이(不二)의 실상만 직지(直指)할 따름인 것이다. 다만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어리석은 눈높이에 맞추어 그때그때 방편을 베푸신 것은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니 예외로 한다. 후대에 와서 명안종사들이 언하(言下)에 계합해 들어오지 못하는 공부인을 위해 간화(看話)의 장치를 시설했던 것도 같은 노파심절에 의한 것이다. 위의 게송은 《법화경》의 〈방편품〉에 나오는 내용이다.

7. 무변신보살

배휴가 물었다.
"무변신보살(無邊身菩薩)은 왜 여래의 정수리를 보지 못합니까?"

배휴 재상은 황벽스님과 만나기 전에 이미 규봉종밀(圭峰宗密) 스님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 종밀은 화엄종 5조인 동시에 선종인 하택종 5조이기도 해서, 교(敎)와 선(禪)에 두루 밝았다. 그래서 배휴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된 것이다. 무변신보살이란 '가없는 몸의 보살'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테두리가 없는 무경계의 보살인데, 그런 보살이 왜 여래의 정수리를 보지 못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황벽선사가 대답했다.
"실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무변신보살이란 곧 여래이기 때문에 응당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무변신보살은 곧 여래이므로, 여래가 여래를 본다는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 무변신보살은 《열반경》의 〈서품〉에 나오는 보살이다.

다만 그대들에게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부처라는 변견(邊見)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중생이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가르침으로 하는 말이다. 또한 있다[有]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있다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없다[無]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없다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범부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범부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 성인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성인이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불법은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로서, 이런 저런 말들은 모두 공부인으로 하여금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가르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부처는 중생과 함께 양변을 이루므로, 부처를 구하면 곧 부처라는 변견에 떨어지게 된다. 미혹한 사람은 뭔가 잘 해보려고 '좋은 것'을 구하지만, 그 좋은 것은 곧 나쁜 것과 양변을 이루므로, 구하는 즉시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에 떨어지는 것이다. 불법은 불이의 중도다.

무변신보살이 곧
여래이기 때문에
응당 못 보는 것이다

불법은 무념, 무상, 무주
이런 저런 말들은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게
가르치는 방편
불법은 불이의 중도

견해만 없으면 즉시 무변신
견처가 있으면 곧 외도
여래란 모든 법에
여여하다는 뜻

낙처를 살필줄 알아야
묵연히 계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견해만 없으면 즉시 '가이 없는 몸[無邊身]'이다. 만일 무엇인가 견처(見處)가 있으면, 곧 외도라고 한다.

불법은 본래 청정으로 툭 트여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무언가 보았다거나 얻었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변견을 붙잡고 국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비로소 무변신과 조금이라도 상응할 분(分)이 있다.

외도란 모든 견해를 즐기지만, 보살은 모든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래란 곧 모든 법에 여여(如如)하다는 뜻이다.

외도란 분별적 견해에 탐착하여 밖으로 마음을 일으켜 나가기 때문에 외도라고 하는 것이다. 반면 보살은 다만 본래성품에 묵연히 계합하여 적적(寂寂) 부동할 따름이다. 보살은 하루 종일 움직여도, 조금도 움직인 바가 없다. 여래란 어떤 경계를 만나도 늘 여여하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허공은 흔적 없이 여여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미륵도 또한 그러하고, 모든 성현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 여여한 즉 남[生]이 없고, 여여한 즉 멸(滅)도 없다. 여여한 즉 봄[見]도 없고, 여여한 즉 들음도 없다. 여래의 정수리는 즉시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뚜렷이 본다는 것 또한 없으므로 뚜렷하다는 변견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여여부동(如如不動)'한 것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며,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무슨 인과가 붙을 수 있겠나? 그 자리는 인과법이나 연기법과도 상관이 없다. 수없이 돌아가는 가운데,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불가사의 하다고 하는 것이다. 안목을 연 사람만이 그 근본 실상자리를 살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무변신보살이 여래의 정수리를 보니 안 보니 하는 말에 떨어지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니라, 그 낙처를 살필 줄 알아야 이런 말에 동요되지 않고 묵연히 계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 몸은 함이 없어서[無爲] 수로 셀 수 있는 범주에 떨어지지 않는다.

무변신보살처럼 부처님 몸 또한 가이 없다.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크다고 하면 가장 크고, 작다고 하면 가장 작다. 그것을 이제 '공(空)'이라고도 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다. 연기법에 따라서 크거나 작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보여진 모습으로는 그 실상을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크거나 작다는 양변에 떨어지지 말고, 즉각 당처에 착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㉞



부인이여, 여래가 그대에게 허락하므로 사양하지 말고 설해보도록 하소서

〈승만경〉

우리와 〈승만경〉

원효 스님 저서에 〈승만경소〉가 있었다. '소(疏)'는 주석서를 일컫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목록을 통해서만 알려질 뿐 〈승만경소〉 자체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일본스님들의 저서 중에 원효 스님의 〈승만경소〉를 인용한 것이 더러 있다. 그 인용구절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모아놓는 작업을 하신 분이, 얼마 전 불의에 작고하신 김상현 교수님이셨다.

일본의 스님들은 우리 스님의 저서인 〈승만경소〉를 읽고, 무언가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 스님의 저서를 그 편린(片鱗)이나마 만날 수 있으니 역시 도움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과연 〈승만경〉이 우리들에게 읽혀온 역사가 그것뿐일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승만경〉을 잘 안 읽었던 것일까? 원효 스님의 경우에서 그 해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같다.

원효 스님은 〈승만경소〉만 저술한 것이 아니라, 〈유마경소〉 역시 저술했다. 마찬가지로 전하지 않는다. 〈승만경〉 〈유마경〉은 공히 재가불자가 그 설법자로서 활약한 경전이다. 특히 〈유마경〉은, 유마거사로부터 출가한 스님들인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다 '한수' 배우는 장면이 실려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그 많은 사찰의 법회나 불교교양대학 등에서 〈승만경〉이나 〈유마경〉은 별로 강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유마경〉은 백봉 거사님이나 불연 선생님과 같은 재가자들이 강의한 적이 있고, 〈승만경〉은 근래 이인자 선생님의 발원으로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읽기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우리는 재가자가 설법한 경전, 이라는 형식을 벽(壁)으로 인식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벽 앞에 막혀버렸던 것이 아닌가 싶다. 다만 원효 스님 같은 큰스님이, "재가와 출가는 둘이 아니라"는 대승의 불이(不二)사상에 철저했던 것이리라.

일본의 〈승만경〉

우리에게 〈승만경〉이나 〈유마경〉이 그다지 널리 읽히지 못한 것은, 그만큼 우리 불교가 출가주의 불교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달랐다.

〈승만경〉 〈유마경〉 그리고 〈법화경〉은 그 역사의 첫걸음에서부터 밑바탕에 놓이게 된다. 한 사람의 거사에 의해서, 그 세 가지 경전이 강술(講述)되고 강찬(講讚)되었기 때문이다. 쇼토쿠(聖德)태자가 바로 그분이다.

고모가 스이코(推古)천황이었는데, 태자에게 정치를 맡겼다. 섭정(攝政)이 된 것이다. 이 쇼토쿠태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쌓은 분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17조 헌법'을 제정한 것이다.

중국에서도 황제가 불교를 강의한 일이



그림 · 박구원

있지만, 쇼토쿠 태자 역시 정무를 보는 한편으로 대신들에게 불교를 가르쳤다. 〈승만경〉 〈유마경〉 그리고 〈법화경〉이다. 이들 세 경전에 대해서 각기 주석서를 지었으며, 강의를 했다 한다.

물론 현재의 학문적인 연구로는 다른 이야기 역시 있다. 예컨대 〈승만경〉에 대한 주석서는 돈황문서라는 이야기 등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든, 이들 경전을 강의한 쇼토쿠태자에 대한 신앙(태자신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사찰의 법당에서 쇼토쿠태자를 모시고 예배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오늘날 일본불교의 한 특징으로 재가불교를 들고 있는데, 그 원류로 신란(親鸞)스님이 말해지기도 하지만 그 신란 스님 역시 쇼토쿠태자를 깊이 신앙했다. 그러니까 그 원류에 쇼토쿠태자가 있는 것이고, 바로 〈승만경〉 〈유마경〉 그리고 〈법화경〉과 같은 경전이 있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4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9월 중
◆ 개강일시 : 2013년 9월 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석장으로 포정문 두드려도 막을자 없어

〈주상운타첩〉에 수록된 추사의 편지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자료이다. 그가 이 편지를 쓴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8월 7일 병륵"과 "석장으로 포정문을 크게 두드리며 초의가 왔다고 한다면"이다. 포정문은 조선시대에 감사가 집무하던 포정사의 정문을 말한 것이므로, 대략 이 편지는 추사가 벼슬을 했던 시기에 쓴 것이라 추정된다. 아울러 초의가 여행을 준비한 후, 함께 동행을 바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대략 1838년 이전 8월7일에 쓴 것이라 짐작된다. 한편 추사는 연이어 보낸 초의의 편지에 답을 못했던 탓이 자신의 병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니 그 사연을 들어 보자.


〈주상운타첩〉에 실린 추사의 편지

금강산 유람 무산된 초의를 달래
추사가 벼슬했던 시기에 쓴 편지

그 사이 병이 심해짐으로 인해 (그대가 보낸)편지를 살펴보지 못했고,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보낸 편지에 행장을 갖추어 (떠나려는)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대체로 지금의 행차는 나와 인연이 없을 듯합니다. 영남에서 보낸 글처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가을이나 명년 봄 2~3월간에 (그것을)혼자만 즐기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일 석장으로 포정문을 크게 두드리며 초의가 왔다라고 말한다면 난간을 막는 자가 없을 것이니 편지의 유무에 기필할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없다면 봄에 천천히 한양을 다녀가는 것도 무방합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팔이 아파 이만. 8월 7일 병륵(間因添病不省有書未答矣 即又見書束裝臨岐 大槩今行與我無緣耳 嶺書不必而秋明春二三月間 勿孤其款款之意 如何如何 若以錫杖大叩布政門曰 艸衣來矣則無遮欄者 不必書之有無也 無以則春間 自京逶迤而去 亦復無妨 未知如何 千萬愼旃 腕疼艱此 八月 七日 病泐)

이 편지의 피봉에 "초의객탑(艸衣客榻)"이라 하였으니 초의의 행처(行處)가 대둔사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초의객탑"이란 대개 "객지의 나그네 초의에게" 라는 의미이다. 또한 추사가 높은 관직에 올랐던 것은 대략 1835년 8월 좌부승지에 임명된 것과 1836년 성균관 대사성, 1839년 5월 형조 참판에 낙점된 것이다.

따라서 이 편지에 "만일 석장으로 포정문을 크게 두드리며 초의가 왔다라고 말한다면 난간을 막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1838년 이전의 편지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초의가 행장을 준비하여 행차하려는 사정을 알았지만 동행할 수 없었던 그는 "지금의 행차는 나와 인연이 없을 듯"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초의의 행차는 무엇일까. 그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초의가 금강산을 여행하기 위해 두 번을 계획했으니 1834년과 1838년의 일이다. 초의는 두 번째 한양을 방문한 후, 1834년 가을, 취연과 함께 금강산 유람을 계획하고, 철선과 만휴도 함께 가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헌의 〈금당기주(琴堂記珠)〉에 "두 선사(초의와 취연)가 산천 김명희와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기로 약속하고, 불등을 가리키며 서약하였다. (초의가)천리 길을 달려와 약속을 지켰지만 산천이 병이 나서 그만두었다. 산천의 병을 살피며 수일동안 머물렀다"라고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초의의 첫 번째 금강산 유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

따라서 이 편지는 이러한 전 후 사정을 알았던 추사가 초의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일이 없다면 봄에 천천히 한양을 다녀가는 것도 무방합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아닐까. 그가 초의에게 "가을이나 명년 봄 2~3월간에 (그것을) 혼자만 즐기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말한 행간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진하게 전해진다. 더구나 그가 "만일 석장으로 포정문을 크게 두드리며 초의가 왔다라고 말한다면 난간을 막는 자가 없다"고 한 말은 이들의 신의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94년도 보이차茶

본초강목습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데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견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뚫고, 풍한(風漢)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 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쪄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飮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 × 지름 7㎝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풍경소리' 전법 14년 원칙 지킬 때 '성취'

이용성 (지하철 부처님 메신저 '풍경소리' 사무총장)

도시 곳곳에 나 있는 지하철은 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붐벼 때로는 '지옥철'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애환과 추억이 담겨있다. 바쁜 일상생활을 대변하는 지하철에서 조용히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슴을 따듯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풍경소리'다.

14년 넘게 '풍경소리'를 이끌고 있는 이용성 사무총장은 "풍경소리는 이름과 같이 은은한 울림과 차분한 감동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며 "처음 풍경소리를 시작할 때는 재정적인 문제 등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을 정도 였지만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풍경소리는 2012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의 지하철 역사환경 개선사업에서 게시판 철거 방침이 내려진 것이다. 연말까지 철거하라는 지시에 십수년간 문화포교의 뜻을 갖고 매진해 온 풍경소리 직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서울시 측이 종교적 부착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시 지하철 환경개선시민개혁단이 쾌적한 지하철 환경의 저해 요소로 게시판을 예로 들었기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은 곧바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풍경소리 게시판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지하철 문화 아이콘 풍경소리 · 사랑의 편지 철거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이슈 청원이 올라왔고 2000여명의 누리꾼이 여기에 동참했다. 이 흐름 때문인지 결국 서울시 측이 백지화로 선회했다.

"시민들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문화포교 일환으로 시민들의 마음수행이나 잠깐의 휴식을 제공해 온 풍경소리의 방향이 옳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1999년 첫 발 이후 2500 게시판

현재 풍경소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비영리 문화포교단체다. 1999년부터 전국 철도역과 지하철역 등에 게시판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파해왔다. 바쁜 생활로 인해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풍경소리는 잔잔한 울림과 감동을 주는 시원한 샘물이었다.

"1999년 8월 말 단체가 태동했어요. 그해 9월 28일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게시판 설치가 끝난 것을 창립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하철과 수도권전철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지하철 등 총 2500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 공공기관 화장실 등에도 작은 문구판을 설치하고 있어요."

이용성 사무총장은 일반 대중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목표가 불교신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 전체가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살아가는 것. 운영되는 것이 결국 포교의 목적이 아닐까요?"

풍경소리 운영에는 다양한 사찰들의 협찬 및 기부가 큰 힘이다. 게시판 하나당 운영비는 5만원 수준으로 2500개 게시판을 교체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설치하는 것 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붙이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초기 시작할 때는 총지종에서 목돈을 대줬어요. 삼천사에 이어 도선사 등 다양한 사찰에서 게시판 설치 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준 사찰은 게시판 하단에 이름을 넣고 있어요."

이 사무총장은 비영리단체의 활동들이 후원금이나 기부금에만 단순히 기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을 이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고료 및 운영비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좋기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게시된 내용을 모아 단행본을 내는 한편 외국인들을 위해 영문으로 된 글도 함께 싣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풍경소리만의 원칙은 지킵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글이 우선입니다. 예전에는 사찰에서 큰 스님 글을 실으면 협찬비를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어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풍경소리의 게시판에 실리는 글은 풍경소리 사무진에서 작가들에게 청탁하거나 독자들이 보내오는 글을 10인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채택한다. 교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 대략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1998년 종단사태가 풍경소리 낳아

그렇다면 풍경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불교계의 종단사태로 사회에 지탄을 받던 1998년이 시발점이었다. 그 중심에는 이용성 사무총장이 있었다.

"당시 종단 사태로 불교가 사회에서 안 좋게 보이던 때였습니다. 당시 종단 사태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불교계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인식을 다시금 회복할 것인가는 고민에 빠졌던 차에 개신교가 지하철 공간에서 하고 있던 '사랑의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개신교의 '사랑의 편지'는 1992년부터 지하철에 다양한 문구를 게시하고 있었다.

1999년 불교시민운동 차원 설립
400개 게시판서 현재 2500개로 증가
잔잔한 울림 · 감동의 콘텐츠로 자리

1981년 중앙대 불교학생회 활동
재정적 어려움에도 원칙 고수
미디어 발전 맞춘 문화포교 계획

"불교활동가들이 불교 내부 개혁만 바라보거나 아예 시민운동으로 치우치는 상황에서 불교적인 콘텐츠로 시민운동을 펼쳐보자는 시험적 성격도 강했어요. 당시 불교가 시민들에게 비춰진 불미스러운 것들이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죠."

이 사무총장은 요즘에는 템플스테이라던지 사찰음악회 등 시민들과 소통하는 불교콘텐츠가 많아져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풍경소리도 게시판 글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산물, 가공품, 효소 등의 나눔과 모음집 발간 등으로 콘텐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불교 바로잡기 나선 이후 풍경소리에서 14년

그렇다면 이 사무총장은 어떻게 풍경소리와 인연을 맺게 됐을까? 풍경소리 산파 역할을 한 이 사무총장은 어려서부터 불교계 활동가를 꿈꿔왔다. 불자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다. 1981년 중앙대에 입학한 그는 대학 내 불교학생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당시는 전두환 대통령 때였어요. 광주민주화운동 비디오를 보니 내가 사는 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당시 중앙대에서는 정치경제학 모임 등 스터디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 민주화 운동의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다 모임을 이끌던 선배들이 단체로 잡혀갔어요. 모임이 해체가 되며 불교운동과 사회운동을 결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무총장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사회과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이 진행하는 풍경소리 명상학교 명상강좌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은 … 이용성 사무총장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풍경소리 게시판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1981년 중앙대 철학과에 입학한 이용성 사무총장은 1986년부터 민중불교운동에 뛰어들었다.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행동본부에 민중불교연합회 대표로 참가하기도 한 그는 1988년 대승불교승가회 간사 등을 맡는 등 불교계 활동을 이어갔다. 1998년 종단사태 이후 풍경소리 창립을 이끌어 현재까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풍경소리 사무 외에는 5사단 수색대대 및 GOP대대 군법회를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풍경소리 명상학교에서 명상지도에 나서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학 스터디를 하며 사회운동을 펼쳤다. 3학년이 되며 대불련 중앙본부에서 조직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다 그해 9월에 육군으로 강제 징입됐어요. 이른바 녹화사업이었죠. 1986년 제대하고 나온 뒤 노동운동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성남에서 불교노동운동을 한 그는 1986년 말 민중불교연합회로 갔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헌법쟁취국민행동본부에 민불련을 대표해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 1988년 이후에는 명진, 성문 스님이 주축이 된 대승불교승가회의 간사를 맡기도 했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며 민주화 운동이 노동운동 등으로 변화했어요. 제 삶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결혼 후 가정을 일구며 생계수단이 필요해진 거죠."

이 사무총장은 그 후 광고기획사를 차리기도 하고 보험설계사 일을 하기도 했다. 야인 생활이었다. 그 와중에 97년 경 불교계에서 다시 일해보지 않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98년 종단 분규 때였다.

"당시에 느낀점이 있어요. 높은 이상, 대의도 이권이 개입되면 한순간에 변질되는 구나 라구요."

운영 어려움에도 나눔 실천 원칙 지킬 것

풍경소리는 그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사무실 임대료가 없어 옮겨 다니기도 여러 차례였다. 하지만 이 사무총장은 풍경소리의 창립정신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견지동에 있을 때였어요. 사무실 임대료를 올려달라는데 당시 350만원에 30만원을 월세로 냈어요. 450만원에 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월세는 어떻게 해봐도 보증금 100만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아 부처님께서 무료로 사무실을 구하라고 이렇게 상황을 만드셨구나' 하고 사찰로 사무실을 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좀 규모가 있다는 사찰들이 죄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사무실 걱정에 힘없이 터덜터덜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는데 故김재일 법사가 '어디 가냐' 며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사무실 사정을 얘기하니 '그럼 있어봐' 하더니 보문사에 수소문을 해서 인연다리를 놓아줬어요."

풍경소리는 보문사에서 2012년까지 11년 동안 있었다. "밀린 액자대금을 탕감해 준 액자회사부터 직원들 월급이 부족할 때마다 돈을 대준 스님들까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탐욕이 게재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은 성취되게 돼있다' 고요. 항상 초심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풍경소리는 2001년 부처님오신날 주간에 불교계 최초로 봉축열차를 꾸미고 행사에서의 모금액을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게시판 하단에 불교계 복지시설을 소개해 후원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저희 이사회가 열리면 그런 질타가 나오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껄덕껄덕 대면서 도울 돈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운영과 나눔 실천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풍경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총장은 명상 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풍경소리 명상학교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명상의 대중화를 통해 사회가 맑게 하자는 취지다. 먼 미래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계획도 있다.

"요즘 기술이 날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게시판 외에도 여러 방법이 새로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젊은 불자들이 뜻을 갖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불법에 따르고 대중을 위해 회향한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초심을 읽지 않고 젊은 마음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는 이용성 사무총장의 모습에서 문화포교란 터전을 가꾸는 젊은 기운이 넘쳐 나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GOP에서 불자 장병들과 함께. 2002년부터 5사단 수색대대에서 위문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용성 사무총장(가운데).

전법일기

말썽꾸러기들과 5박 6일

영어담마캠프 이야기(1)



그림 · 박구원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마음만큼 나의 마음은 설렌다. 이번 캠프에는 또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 어느덧 7회째를 맞는 영어담마캠프지만 매년 아이들의 캠프 접수가 시작되는 2달 전부터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나의 캠프에는 캠프 매니아들이 있다.

매년 여름 우리는 1년에 한번 만나는 날이 오면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의 모습을 그리며 잠을 설친다. 버스에 오르며 "스님! 저는 어제 밤에 스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서 잠을 잘수 없었어요" 하고 수줍게 이야기하는 캠프의 말썽꾸러기는 어느새 나의 마음을 녹여버린다. 또한 특이한 것은 이전 캠프의 말썽꾸러기들은 꼭 다음 캠프에도 참가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묘한 일중에 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팔공산 은해사로 캠프를 떠난다. 이번에는 나의 출가본사인 은해사로 결정을 하였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은해사를 비롯 백흥암을 보여주고 싶은마음도 있지만 두해 전 캠프홍보가 나갔을 때 걸려온 전화 때문이기도 한다.

"스님예, 정말 우리 아이 스님 캠프에 보내고 싶은데 너무 멀어예. 언제 대구 근처에서도 한번 해주이소~"

당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참으로 간절하여서 언젠가는 대구에서 해야지 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현실화 된 것이다. 매번 캠프에는 아이들 60~70명 교사30명. 늘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움직인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즐거워할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환희심이 가슴가득 솟는다. 미래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는 연기법적 이해와 생각의 멈춤을 통해 고요함으로 돌아가게 하는 수행프로그램은 아이들을 많이 변화시킨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영어를 통하여 진행하다보면 아이들은 종종 새로운 느낌과 다짐을 하게 된다.

버스가 출발하면서부터 간단한 아침식사와 함께 각 팀을 구분하는 색깔 팔찌가 주워지고 영어로 된 팀명에 대한 설명이 시작된다. 팀명은 육바라밀이다. Energy(정진), Patience(인욕), Giving(보시), Morality(지계), Wisdom(지혜), Meditation(선정).

다음은 외국인교사인 캐더린과 라노의 지도 아래 영어로 된 캠프 노래 두곡을 배운다. 아이들의 눈은 말똥말똥. 잘 안돼는 발음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며 열심히 따라 한다. 안전 벨트를 확인하고 돌아서면 어느새 우리 말썽꾸러기들은 의자 위로 넘나들며 장난을 친다. 교사들과 함께 다시 제대로 앉혀도 3분을 못 넘긴다.

'아이구, 이런 아이들과 5박 6일을 살아야 한다니….'

벌써부터 캠프가 얼마나 힘들지 감이 잡힌다. 요즘 캠프에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많다. 그래서 인지 더욱 긴장되고 힘이 많이 든다.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장난치고 울고 울리고…. 은해사까지 쉬면서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착각이다. 교사들과 스님들은 혹시 아이들이 다칠까 노심초사 제대로 앉아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부모의 잔소리에 벗어난 아이들은 신나서 어쩔 줄 모른다. 이때 갑자기 아이들을 잠잠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 그것은 버스 기사님이 안쓰러웠는지 틀어주신 만화영화. 제목은 '볼트(Bolt)'. 모든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 졌다. 아, 만화영화의 위력이여!!

어느새 4시간이 걸려 도착한 은해사. 버스에 내려 일주문을 통과한다. 소나무 숲 길을 따라 흐르는 작은 시내에는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치며 아이들을 반긴다. 작은 시내가 있는 산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산다는 옛말이 있다. 아이들이 5박6일의 캠프를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공단등 / 팔각봉축접등 / 주름등 / 왕생극락접등

칼라보카시연등 / 영가등

공단등 / 극락왕생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탐욕에 반대하는 '명상 시위' 화제

맥스 잔 등 골드만삭스 현관 앞서 명상 시위
인간 고통 · 글로벌 위기의 뿌리는 동일

현대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이곳의 본사 현관 앞에서 '명상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화제다. 그들은 바로 '파업하는 부처님 재단(Buddha on Strike Foundation)'의 회원들이다.

하루 3~4시간 정도 1~3명의 동참자들이 골드만삭스의 현관 맞은편에서 좌복에 앉아 명상을 한 지도 벌써 1개월을 넘긴 '명상 시위'는 SNS에 힘입어 미국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트라이시이클(Tricycle) 지가 보도했다.

"부처님께서 멀리해야 할 감정으로 탐욕을 꼽으셨어요"라고 전제한 '파업하는 부처님 재단' 맥스 잔(Max Zahn) 대표는 "우리는 이를 경고하고, 자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와 너'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찾자는 희망을 펴기 위해 이번 '명상 시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즉,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이 바로 '탐욕'이며, 이는 중독성 또한 강하기에 이를 견책해 일깨우는 게 필요하다. 이는 '파업하는 부처님 재단'에서 골드만삭스라는 글로벌 조직의 본사 현관에서 '명상 시위'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인간의 고통과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근본적 문제는 동일한 뿌리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한 잔 대표는 "그 뿌리는 탐욕에 찌든 시스템이며, 한 쪽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쪽에게 피해를 주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며 "월가, 골드만삭스 등이 바로 그런 시스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 경제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트라이시이클 지는 잔 대표의 말을 인용, "우리의 고통을 줄이고,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제 자본주의도 소통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리이시이클 지는 "이번 명상 시위는 불교의 교리와 자본주의의 원칙이 조화를 이루며 모든 이들의 '참 행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 체제로 눈을 돌리자는 데 힘을 실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트라이시이클 지는 "골드만삭스 현관의 명상 시위 장면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재되면서 미국 안팎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부처님의 가르침이 금융 산업의 개혁과 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mattbard / 트위터)", "명상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그러한 명상의 장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timzen / 트위터)", "자비심을 배우고 이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파업하는 부처님 재단'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Jim Spencer / 트위터)" 등의 반응도 전했다.

"소음이 명상 시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잔 대표는 "그러나 자비의 실천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힘을 더하고 있다"며 "이번 명상 시위가 우리 모두의 권리를 곤곤히 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파업하는 부처님 재단 회원들이 골드만삭스 현관 맞은 편에서 자본주의의 탐욕에 맞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상호 공존의 지혜를 찾기위해 명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가죽 · 향 · 꿀로 불교 예술품을?

中 현대미술가 장후안 작품 美전시 '눈길'

어쩌면 흉물스러울지도 모르겠다. 잔디밭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대한 불두(佛頭)와 설법인을 한 부처의 팔은 전시돼 있다기 보단 널브러져 있는 듯 보인다.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시에 있는 프레데릭 메이저 조각 공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장 후안(Zhang Huan)의 작품이다. 비범한 현대 미술가로 꼽히는 후안의 작품전이 '동양을 보고 서양을 마주하다(Looking East, Facing West)'라는 주제로 5월 24일부터 열리고 있다.

조각가, 화가, 사진가, 행위예술가 등 다양한 타이틀을 가진 후안의 작품은 소재와 표현기법에서 일반인들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소가죽, 향, 꿀, 생선 내장, 쇠사슬 등 작품 재료 범위는 제멋대로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 또한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소가죽을 통째로 써서 부처님 얼굴을 만드는가 하면 몸에 꿀과 액젓을 바른 채 파리가 꼬이길 기다리며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있기도 한다. 형식을 뛰어넘는 탓에 도발적이기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불편해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 작품 속에 깃든 극단적인 강렬함 때문에 언제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작가기도 하다.

메이저 조각 공원의 큐레이터 조셉 베쉐어(Joseph Becherer)는 "후안은 현대 예술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라며 "중국과 미국에서 그의 작품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세계 예술계에 통찰력과 영감을 제공해 준다"고 했다.

현대의 익명성과 중국 사회의 폐쇄성 등 그의 작품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지만 대표적 원천은 불교에 있다. 불교의 교리, 불교적 이미지, 부처의 형상 등이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모티프가 돼준다.

단단하고 강철같은 불변의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스테인리스로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향을 태우고 남은 재로 만든 불상을 빚기도 한다. 크기와 모양은 같되 재료만 다른 두 불상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베를린 붓다(Berlin Buddha)'라는 작품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두 불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좇았다.

재로 만든 두상에 향을 피워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하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입이 허물어지고 코가 내려앉고 종래는 두상이 존재했

기존 불교 예술과는 다른
도발적 · 실험적 작품들

는지조차 모른다. 많은 선사들이 일렀듯 깨닫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공성의 의미와 상통한다. 그런데 왜 하필 재였을까. 후안은 절에 갔다 향을 피우며 각기 소원을 빌고 있는 사람들은 보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흥분 됐다고 했다.

"많은 이들의 소망이 재로 남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허무하다기 보단 수많은 이들의 축원과 희망이 온전하게 남겨진 느낌이었죠."

인간의 본성을 돌아보고 작품에 이를 반영하려 한다는 장 후안. 분명 거리낌없이 다가가기는 어려우나 곱씹어볼 가치는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교를 모티프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중국 예술가 장 후안(Zhang Huan)의 작업은 '예술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명제와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인다. 극단적이고도 강렬한 그의 작품은 분명 논란이 되긴 하지만 작품 속에 자리한 사유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美 와이오밍 시에 첫 사찰 개원 될 듯

켄티 카운티 건축위원회, "사찰 신축 승인될 예정"

미국 와이오밍(Wyoming) 시에 첫 사찰이 개원될 전망이다.

지역 언론 '와이오밍 미'지는 8월 21일 "흉 도안(Hung Doan) 씨와 캠 부(Cam Vu) 씨가 18개월 전 미시간 주 켄티 카운티(Kent County) 건축 위원회에 제출한 사찰 신축 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찰 신축 계획에 따르면, 흉 도안 씨 등은 와이오밍 시의 U.S. 고속도로 131번과 간선도로 54번 교차 지점에 5.6에이커 부지를 매입, 사찰을 신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흉 도안 등은 18개월 전 부지 매입과 함께 와이오밍 시 건축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건축위원회 측은 "이번 계획은 흉 도안 씨를 비롯해 와이오밍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80여 명의 지역 불자들이 공동 발의해, 순조롭게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예불과 명상의 장소로 적극 활용되는 것은 물론 와이오밍 사회의 이해와 결속을 다지는 데 일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흉 도안 씨는 "와이오밍 시에는 80여 명 불자들이 있지만, 함께 모일 공간이 없다"며 "사찰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불교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며, 나아가 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웨스트 미시간 지역과의 교류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켄트 카운티와 주변 지역에도 다른 불교 사원이 있다. 지난해 와이오밍 시정 자료에 따르면 웨스트 미시간 지역에는 500여 명의 불교도들이 살고 있으며,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신앙대화연합(Interfaith Dialogue Association) 프레드 스텔라(Fred Stella) 대표의 말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신의 굴레를 벗고 경사스런 시간으로

대만 자재공덕회, '유령 달' 축제로 승화

아시아에서는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유령 달(Ghost Month)'이라 하고, 이 기간이 위험과 불행에 연관됐다고 믿는 오랜 경향이 있다. 그런데 대만의 거대 불교공동체인 '자재공덕회(Buddhist Compassion Relief Tzu Chi Foundation)'가 이 기간을 '경사스런 시간'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부디스트채널(BUDDHIST CHANNEL)의 8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재공덕회는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세계 900여 곳에서 법회를 개최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고 주변과 소통하는 것'으로 '옛 미신'의 굴레를 떨쳐내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운을 축제로 탈바꿈시키는 대만 유령 달 축제.

대만에서는 유령 달 기간 동안 수영, 여행, 휘파람, 저녁 산책 등을 하지 않는다. 유령 달에 그것을 하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빼앗긴다고 믿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자재공덕회는 하안거가 끝나는 시점과 '유령 달'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즐거운 시간"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자재공덕회는 '유령 달'을 축하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4,000여 명을 조직하고, 12개국에서 280,000여 명이 대만 '유령 달' 축제에 참여하게 하는 성과를 보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수 강 료 : 무료
■ 문 의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75-35

작지만 강한종단!!
禪大韓佛教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종도를 모십니다.
또 한 새롭게 새로운 종단에서 종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종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입 종 안 내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임명장,사찰등록증,지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
(종무법인) 禪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가입문의 : (02) 959-1825
종단사업부 : 070-7391-7767
본 종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으며 그 수익금은 종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종도가 잘 되어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 스 생 명 공 학 ※대리점 모집중



화제의 신간

8주 나를 비우는 시간

328쪽 | CD 수록 | 16,000원

태연한 척해도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눈썹을 찌푸리는 횟수가 늘지 않았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들, 스스로 자기에게 지운 짐들,
어쩌면 '나는 행복해야 해!'라는 기대까지……
생각들이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따라
잠시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마음을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2011년 5월 출간 이래 27개월 연속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근심이 들러붙을 데가 없는 마음을 만드는 8주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마크 윌리엄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임상심리학 교수이자 '옥스퍼드 마음챙김 센터' 소장이이다. 우울증과 자살 문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MBCT)'를 공동 개발했다. MBCT는 우울증 재발률을 절반으로 낮춘 효과를 인정받아 영국 국립임상보건원으로부터 우울증 치료의 최우선 처방으로 권장되고 있다.



대니 펜맨
BBC와 〈인디펜던트〉 지에서 일하는 저널리스트로, 패러글라이딩 도중에 심각한 사고를 당해 끊임없는 통증과 간헐적인 신체 기능 마비로 고통을 겪다가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자유를 얻었다.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불광출판사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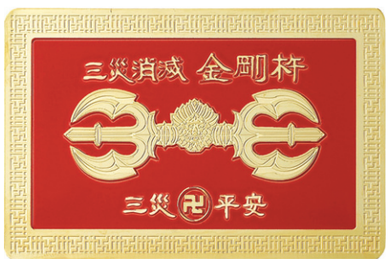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원
2,000부 이상 @ 9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26.5㎝



11월 1월

우리도 연꽃같이(한지)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63㎝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19㎝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선(수첩) 200부 이상 @ 650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13.4㎝ • 매수 : 18장



향기로운 꽃(미니)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600
• 규격 : 8.9㎝×9.5㎝
• 매수 : 16장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당신의 마음을 힐링해드립니다”

BBS불교방송TV ‘마음 인생을 바꾸다 시즌2’



BBS불교방송TV ‘마음 인생을 바꾸다 시즌2’가 새롭게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힐링이 대세인 요즘 BBS불교방송TV ‘마음 인생을 바꾸다 시즌2’(연출 이영우)가 새롭게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선업스님(꽐행복선원장), 최은경(BBS아나운서), 야운(불자가수)이 진행을 맡은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출연해 상담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불자가수 야운 첫 MC 데뷔
가수 황규영 등 게스트 출연

‘마음 인생을 바꾸다 시즌2’는 현재 첫 녹화를 마치고 8월 27일 오후 2시 첫 전파를 탄다. 담당 이영우 피디는 “지난 2011년 황수경 교수(동국대)와 최은경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년 간 방송돼 인기를 끌었다. 방송종료 후 불교계 힐링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꾸며 시즌2를 제작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한다.

게스트로는 1회 가수 황규영, 2회 창업컨설턴트 홍순재 씨가 각각 출연한다. 황규영은 ‘나는 문제 없어’로 인기를 모았지만 잇따른 앨범 실패로 고난을 겪었다. 현재 재즈밴드를 만들어 새롭게 재기하는 모습을 프로그램에서 보여준다. 창업컨설턴트 홍순재 씨 역시 스물일곱에 주얼리 사업으로 70억을 벌었다가 사업실패로 노숙자 신세로 전락 다시 창업 컨설턴트로 재기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처음 MC를 맡게 된 불자 가수 야운은 “MC로는 첫 무대라 많이 떨렸고 긴장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녹화를 끝낼 수 있었다. 게스트들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나도 힐링을 받은 느낌”이라며 “앞으로 불교계의 재간둥이로 톡톡히 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밖에도 ‘마음 인생을 바꾸다 시즌2’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례자가 전화연결 상담을 하는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불교 5대명절 특집 힐링콘서트도 진행한다. 방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전파를 타며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재방송 된다.

정혜숙 기자

“찬불가도 이제 전문교육 시대 돌입했죠”

동국대평생교육원 찬불힐링스쿨 개강



동국대 평생교육원 박경준 원장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부르고 있는 찬불가는 삼귀의와 사홍서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음정을 맞춰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들 제각각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를 의식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만큼 찬불가에 대한 인식과 절실한 마음가짐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찬불힐링스쿨은 찬불가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그 영역을 확대하고 불자들에게 신심을 심어주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국대 평생교육원 원장 박경준 교수(불교학과)는 찬불 힐링 스쿨의 개설 취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8월 21일 동국대 평생교육원 원장실을 찾아 9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찬불가 힐링스쿨’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찬불가는 불교신행의 한 축을 이루며 불법홍포의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처님에 대한 예경과 찬탄뿐 아니라 참회와 발원 명상과 선정 깨달음과 진리 기쁨과 치유의 노래가 곧 찬불가다. 하지만 찬불가의 현실은 여전히 인적 물적 기반이 빈약한 상태로 불자들에게 생활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경준 원장은 찬불힐링스쿨 개원은 전문 음악인 양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동국대는 음악대학이 없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을 보강하기 위해 평생교육원에서는 2011년 음악원을 만들어 클래식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계종 종립학교라는 동국대의 취지에 걸맞는 찬불가 교육 과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결국 찬불가의 발전과 불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설된 프로그램이 찬불가 힐링스쿨입니다.”

강사진도 화려하다. △숙명여대 음대 대학원 성악과를 졸업한 소프라노 정행 스님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바리톤 김재일(서울대 음대 성악과 강사)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이수자 채수정 △이화여대 예술대학 한국음악 전공 강사 강권순 △봉은사 선불남성합창단 지휘자 민선희 △한국방송예술교육원 겸임교수 이동원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9월 9일~12월 16일 15주 과정
이론과 실기 갖춘 프로그램 눈길
전문음악대학원 설립이 목표

교육과정은 찬불가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찬불가의 폭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자 구성됐다. △왜 찬불가를 불러야 할까요? △바리톤 김재일과 함께하는 정겨운 가곡, 정다운 찬불가 △정가(正歌)로 찬불가 이해하기 △경전 속의 음악이야기 △게임과 음악이 함께하는 민선희의 ‘찬불가로 힐링되기’ △아름다운 소리 △판소리로 만나는 불교 음악 등 총 15주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동국대 평생교육원이 찬불 힐링 스쿨을 개설 9월 9일부터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간다. 사진은 불교연합합창단의 공연 장면.

종교음악 자체가 경건함과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불교 신행의 첫걸음으로 찬불가는 어떻게 인식되고 불려지느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찬불힐링스쿨은 이런 점에서 찬불가에 대한 확산과 보급 다양화는 물론 노래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래는 그 장르와 분위기에 따라 형식도 달라지고 전해지는 감동이 다르죠. 정말 좋은 노래는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진정 그 사람의 마음을 힐링시키죠. 이것이 카타르시스고 환희심이죠. 찬불가가 다양한 장르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신심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찬불힐링스쿨은 새로운 형식의 찬불가 창작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동국대는 찬불힐링스쿨을 시작으로 평생교육원 불교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음악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박 원장은 “찬불가는 앞으로 무한한 변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하죠. 전문 교육과정은 찬불가와 관련한 반주자 지휘자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은 물론 입체적 역동적 유기적 시스템을 확보해 불교음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의는 9월 9일~12월 16일이며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진행된다. (02)2260-372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차명순 ‘매듭의 멋과 향기’ 展

8월 29일~9월 3일 라메르갤러리서

한올 차명순 작가의 매듭작품 개인전이 8월 29일~9월 3일 인사동 라메르갤러리에서 열린다. ‘매듭의 멋과 향기’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옥삼작 노리개, 매미 삼작 노리개, 금투호삼작 직조 노리개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외 비취삼작 노리개

예로부터 장식 수단이었던 전통 매듭은 오랜 시간을 거쳐 민속 공예의 대표적 분야로 자리잡았다. 과거 손끝으로 전해온 전통 매듭에는 선조들의 생활과 역사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지혜와 예술이 담겨 있다.

작가는 “우리 고유한 문화유산인 전통매듭을 지키기 위해 40여년 노력해 왔다”며 “이렇게 전통 매듭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시를 여는 소감을 얘기한다.

차명순 작가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미국 MIT 대학 전시, 멕시코 국립박물관 전시, 연세대 박물관 초청 전시 및 강의 등을 열었으며 1997년 매듭기능전승자로 지정되었다. (02)779-1741

정혜숙 기자

다문화가족 위한 찬불 향연 펼친다

풍경소리 ‘덕신 스님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위해 김천을 찾는다. 2013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가 8월 28일 오후 7시 김천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덕신 스님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공연은 찬불가 포교를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의 후원을 받아 열리는 이 공연은 대중들이 찬불가를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풍경소리는 “소외되고 문화혜택이 적은 지역에 찬불가를 보급하는 것은 물론 문화포교를 하자는 취지로 다문화 음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그 시작으로 마라톤으로 유명한 진오 스님이 센터장으로 있는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가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전한다.

소외계층에 문화 향유 기회 제공
8월 28일 김천문화예술공연장서

출연진으로는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를 비롯해, 테너 허철영(불교성악가), 테너 이준형, 소프라노 김양희, 대중가수 설유진 등이 출연 화합의 무대를 펼친다.

풍경소리는 “문화적으로 소외 될 수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대중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아름다운 소통과 함께하는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음악회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02)723-9836

정혜숙 기자

불자가수 아웃사이더 ‘불후의 명곡2’ 최종 우승



불자가수 아웃사이더가 ‘불후의 명곡2’에서 최종우승을 차지했다. 8월 17일 방송된 KBS2 ‘불후의 명곡2’는 ‘장미화 VS 임희숙’ 라이벌전이 펼쳐져 랩, 트로트, 록발라드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홍진영과 팀을 이룬 아웃사이더는 신나는 복고풍 무대로 관객뿐 아니라 출연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불자가수 장미화의 ‘안녕하세요’를 편곡해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무대를 만들었다.

정혜숙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개정판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불단’은 열반을 죽음이라 하는 것과 같은 표현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수미단, 불탁, 불단→영기좌(靈氣座) 영기단(靈氣壇) ㊦



일반 명칭을 택하여 일차원적으로 불단(불상이 자리 잡는 단)이라고 말하면 그른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전문용어로는 상징을 살렸다고 여기고 써 온 용어로서 규모가 작으면 수미좌라 부르고 크면 수미단이라 부르듯, 규모가 작으면 영기좌(靈氣座), 규모가 크면 영기단(靈氣壇)으로 부르면 어떨까 제안한다. 명칭과 용어는 다르다. 명칭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 명사이어서 잘못 이름 지어 그른 길로 인도하는 것 보다는 낫지만,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서 의미가 전혀 없으며 그런 명칭은 용어가 아니다. 명칭은 대상이 특별한 상징을 보일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하는 전문용어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조형미술의 해석과정에서 사막과 같은 무생명(無生命)으로부터 상징의 숲이라는 대생명(大生命)으로 인도하는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조형미술의 놀라운 상징을 읽어내면 비로소 ‘창조적 용어(創造的 用語)’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래가 앉는 단(불단)’이라는 말은 여래가 열반에 들었다는 것을 여래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수미단은 그릇된 것이므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

영기단 안에는 ‘무량한 물’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중국의 불화에서 여래가 앉아 있는 수미단을 아주 조금 들추어 주어서 그 안에 바다가 넘실대는 파도를 엿본 적이 있다. 즉 그것은 무한한 영기가 충만해 있음을 뜻한다. ‘영묘한 물’에서 갖가지 영기문이 나타난다.’ 즉 영기단이라는 육면체의 거대한 나무 상자는 ‘만병(滿甁)’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 즉 망망대해(茫茫大海)가 들어있다. 그 진실은 표면에 새긴 수많은 영기문으로 알 수 있다. 만일 그 무한한 공간에 물이나 영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처럼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기문을 표면에 새겨질 수 없다. 그러므로 영기단 맨 아래의 영기창으로부터 용(龍)의 얼굴이 나오고 입에서 영기문이 좌우로 뻗친다. 그것은 불단 맨 밑으로부터 ‘물’이 무량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상징한다.

바로 만물을 영기화생하게 만드는 영기좌(靈氣座: 작은 대좌)나 영기단(靈氣壇: 큰 대좌)에서 마침내 절대적 진리인 여래가 화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래가 영기화생하는 장엄한 광경을 보여 주는 그 근원적 표현이 영기단인데, 불단이라는 명칭으로는 그 엄청난 상징을 떠 올릴 수 없다. ‘여래와 보살을 영기화생시키는 단’이라는 명칭을 줄여서 ‘영기좌’나 ‘영기단’이라 부르려는 것이다. 이처럼 ‘영기에서 여래가 화생하고, 화생한 여래로부터 영기가 발산한다’는 원리에서 보면 화생한 여래에서 발산하는 영기는 바로 설법할 때 여래의 입에서 발산하는 법문(法門), 즉 성음(聖音), 혹은 영음(靈音)이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조선시대에 여래로부터 발산하는 이른 바 광배(光背)가 대부분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의 영기단을 채색분석하면서 설명해보기로 한다.

경산시 동학산(東鶴山) 경흥사(慶興寺)의 영기단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았을 때 매우 놀랐다. 부산의 도반들과 함께 경흥사에 가서 조선시대의 영기단을 보았다.(그림 ①) 고맙게도 파손된 불단에서 3개의 목판을 취하여 현재의 영기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놀란 까닭은 이 불단의 영기문이 고구려 사신총 영기문의 전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림 ②) 앞면의 것은 일반적인 조선시대의 형식으로 모두 영기문에서 만물이 생성하는 도상인데 다음 회에서 다룰 것이다. 측면의 것만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채색분석 한 도면에 설명을 붙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글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그림 ③, ④) 이 영기문 조각은 매우 입체적이어서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매듭에서 사방으로 발산하는 영기문을 표현했으므로 뒤에 숨어있는 것도 많다. 그래서 부분을 크게 그려서 채색분석 해보았다.(그림 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중요한, 생명이 충만한 조형들을 그릇된 용어와 의미 없는 용어로 숨 막히도록 묵을 졸라왔는가,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자신이 속한 문화가 강요하는 좁은 정신적 틀 안에서 스스로를 속박할 수 없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 영기단 전경



그림 ② 영기단 측면의 영기문



그림 ③ 영기문 채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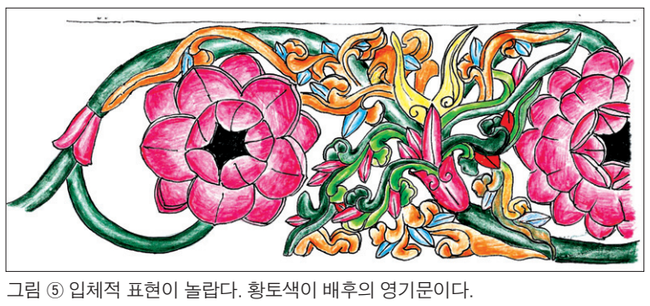


그림 ⑤ 입체적 표현이 놀랍다. 황토색이 배후의 영기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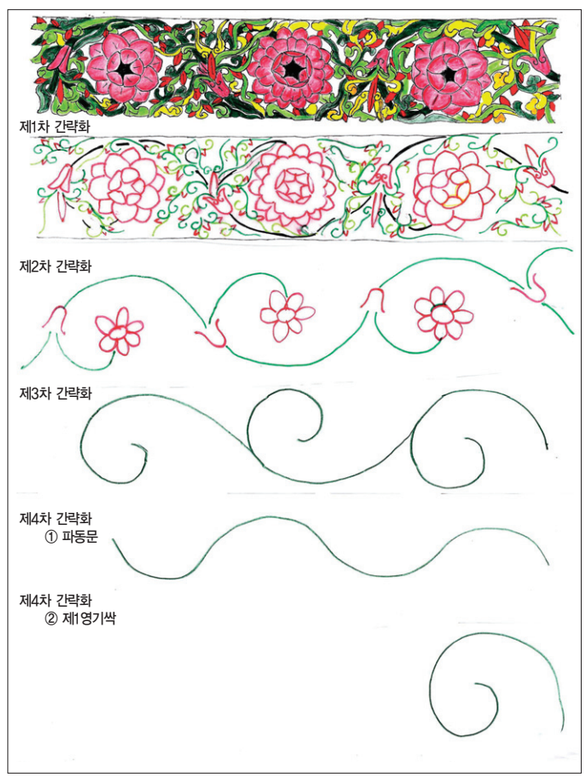


그림 ④ 영기문의 단순화 과정

① 첫째번의 영기문으로 된 매듭에서 좌우로 굵은 영기문 줄기가 뻗쳐나가고, 그 갈래 사이에서 긴 빨간 연봉 같은 것이 두 개 나오는데 ‘만물’을 상징하며, 동시에 제3영기싹 영기문들이 다투어 쏟아져 나온다.
② 제2 영기문 매듭에서도 역시 긴 빨간색의 만물을 상징하는 형태에서 노란색 영기문이 발산하고, 동시에 〈제3영기싹의 연쇄적 영기문〉이 폭발적으로 좌우로 발산하여 여백을 빈틈없이 채운다. 그리고 굵은 줄기 두 가닥 가운데 한 줄기는 영기꽃으로 이어지는데 복잡한 영기문의 전개에 가리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도상은 커다란 영기꽃이 화생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영기문이 다른 모든 영기단의 바탕을 이루어 온갖 영조(靈鳥)와 온갖 영수(靈獸)들이 화생하며 영기단의 장엄한 광경을 보여준다.
③ 바로 이러한 만물이 화생하는 영기단에서 여래들이 마침내 화생한다. 그러므로 여래의 화생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영기단이다.
④ 영기문의 단순화 과정
• 제1차 단순화 – 채색분석한 영기문을 선(線)으로 환원시키면 제1차 단순화가 이루어 져 파악하기 쉽다. 자세히 보면 제3영기싹이 덩굴모양으로 끊임없이 전개하여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2차 단순화 – 이 영기문의 골자에서 매듭으로부터 다시 영기 줄기가 두 갈래로 갈 라 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제3차 단순화 – 제1영기싹의 가장 기본적 영기문으로 환원되므로 가장 중요한 영기문 이다. 일체의 영기문의 기본적 전개를 보여준다. 물을 상징하므로 이 영기문을 바탕으로 일체의 생명이 생성된다.
• 제4차 단순화 1.~파동만이 남는다. 물리학에서 만물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 다.
• 제4차 단순화 2.~제1영기싹이 모든 영기문의 시초가 된다. 영기문의 가장 중요한 가 장 작은 단위이다.

藥이 되는 사찰음식

새콤달콤 채소와 오곡가루로 영양 챙기세요



오곡소스의 가지 애호박찜

△재료(4인 기준)
○ 애호박 1개, 가지 1개
○ 소 - 표고버섯 3장, 풋고추 2개, 홍고추 1개, 당근 30g,
○ 오곡소스 - 생콩가루, 들깨가루, 찹쌀가루, 서리태가루, 통보리가루 각 2큰술씩, 다시마물 1.5컵, 국간장 1큰술, 된장 1작은술, 고추장 1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애호박과 가지는 길이 4cm 정도로 잘라 열십자 모양을 내거나, 반으로 썰어 어슷하게 세 번 칼집을 넣어 모양을 만든 후 소금에 살짝 절여 소가 잘 들어가도록 한다.
② 표고버섯, 풋고추, 홍고추, 당근은 채썰어 소금으로 간하여 볶아 준비한다.
③ 절인 애호박과 가지에 소를 채운다.
④ 다시마물 반컵에 양념을 넣어 잘 개어 둔다.
⑤ 냄비에 애호박과 가지를 넣고 다시마 국물 1컵을 부어 끓인 후 양념을 넣고 3분 정도 뜸을 들인다.

오이선

△재료(4인 기준)
○ 오이 1개
○ 소 - 노란파프리카 1/4개, 홍피망 1/4개, 표고버섯 2개
○ 단촛물 - 물 3큰술, 매실식초 3큰술, 매실액 3큰술, 소금 1/2작은술



△만드는 법
① 오이는 길이대로 절반으로 자른 다음 4cm 정도의 길이로 어슷하게 세 번 칼집을 넣어 소금에 절인다.
② 노란파프리카, 홍피망, 표고버섯은 채썰어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볶아 준비한다.
③ 절인 오이는 살짝 볶아 식힌 후 소를 채운다.
④ 냄비에 단촛물 재료를 넣고 살짝 데워 식힌 후 먹기 직전에 오이에 뿌려 낸다.

여름채소는 냉각 효과 있어

식욕을 자극하는 여름철 대표 채소인 오이, 가지, 애호박을 이용하여 새콤달콤한 맛으로 흩어진 기를 모으고, 오곡가루로 영양이 가득한 일품요리를 만들어 본다. 오이는 이뇨작용이 뛰어나 부종이나 위가 약하거나 장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할 때,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볶아서 먹게 되면 더욱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단맛이 증가되게 된다. 여기에 매실을 이용한 식초와 청으로 새콤달콤한 맛을 더하게 되면 신맛의 수렴하는 작용으로 인해 기를 모을 수 있게 된다. 가지는 붓기를 빼고 통증을 가라앉히며 혈압을 낮추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여름채소로 냉각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여름을 타거나 몸이 화끈거릴 때나 열이 많을 때 먹으면 효과가 있다.

애호박은 이뇨작용, 간기능과 위장기능을 강화하여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다. 애호박과 가지에 소를 넣고 익힐 때 애호박과 가지의 익는 정도가 다름으로 애호박을 먼저 넣고 한 번 끓으면 가지를 넣어 주어야 좋다. 그리고 여기에 구수한 된장과 고추장으로 간을 맞추고 오곡가루를 넣어 깊은 맛을 낸다. 단, 찜으로 조리할 때 다시마국물에 오곡가루를 풀어 두었다가 넣어야 날가루 냄새가 나지 않게 된다. 오곡가루를 모두 준비하기 어려울 때는 여름철에 많이 먹는 미숫가루를 이용해도 좋다. 그리고 오곡은 잘 씻어 프라이팬에 볶은 후 컷터에 갈아서 냉동보관 후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하면 된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크기 : 직경 10mm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효당’, 한국근대지성사의 귀중한 자료



효당 최범술

효당 최범술 문집

김상현 엮음 | 나라연출판 제작 | 비매품

“보통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생후 닷새 된 갓난아이라 죽었을 것인데 오히려 기는 시늉을 하였을 정도로 범이나 수리처럼 강인한 체질이라 하여 아명을 범술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효당 최범술(曉堂 崔凡述 · 1904~1979) 스님. 그 이름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여러 대목에서 뚜렷하고 중요한 이름으로 만날 수 있다. 부처님께 귀의한 불제자로서, 빼앗긴 나라를 찾아 나선 독립운동가로서, 민족의 미래를 걱정한 교육자와 정치가로서, 차문화를 넓힌 다인으로서. 책은 그가 남긴 문장들을 모은 문집이다.


故 김상현 교수


김상현 교수를 대신해 문집을 발간한 박태원 교수

그 문장들을 모은 이는 올해 7월 21일 별세한 김상현 동국대 교수다. 그는 효당 스님의 제자다. 한국불교사와 한국불교사상사 탐구에 쏟은 그의 정성과 열정에 스승의 삶이 관여했음은 의심할 수 없음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넓히고 힘껏 달리게 해준 스승을 기리고 싶었다. 효당의 삶이 지니는 각별한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기에, 김상현은 효당의 유업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동시에 스승의 궤적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었다. 효당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자신의 한 과업으로 여겼다. 역사가 될 수 있고, 문화가 될 수 있고, 전법이 될 수 있는, 스승의 소중한 글들을 찾아내고 정리해 오던 그가 느닷없이 세연을 접었다. 그렇게 효당의 제자 김상현은 스승의 문집을 엮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책은 故 김상현 교수의 매부인 박태원 울산대학교 교수가 마무리했다. 처남이 미처 마치지 못한 일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박태원 교수가 문집을 완성한 것이다.

김상현 교수를 대신해 문집을 완성한 박태원 교수는 서문에서 “김상현 선생이 준비해왔던 〈효당문집〉을 고인의 영전에 올리는 것이 급하게나마 그를 기리는 일의 하나일 수 있다고 여겼다. 마침 49재 가운데 제3재를 그의 정신적 고향인 다솔사에서 모시기로 했기에, 다솔사 재에서 바칠 수 있도록 그가 남긴 원고를 책으로 엮었다. 정식 출판을 하려면 수록된 글들의 저자나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우선 비매품으로 만들어 그의 영전에 바친다.”며 발간의 경위를 밝히고 있다.

효당 최범술은 1904년 경남 사천군 곤양면에서 태어났다. 4남3녀의 넷째아들로 태어난 그는 1910년 고향의 사립학교인 개진학교에 입학했으나, 재학


효당(오른쪽 두번째)과 김상현(왼쪽 세번째)

효당이 남긴 문헌 모은 ‘문집’
제자 故 김상현 교수가 모으고
매부 박태원 교수가 발간
고인 다솔사 3재 때 헌정

중 일본인 교사 배척과 동맹휴학 사건으로 퇴학당한 후 곤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고향의 다솔사와의 인연으로 14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했다.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왕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옥고를 치렀으며, 1931년 만해 스님이 불교계의 비밀결사인 만당(卍黨)을 조직하자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다시 옥고를 치렀다. 1933년 도쿄의 다이쇼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에 조선불교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명성여자학교를 설립했다. 1942년 김법린 등과 해인사, 다솔사 등에서 한글을 가르치다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시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1947년 해인사 주지로 살았고, 1948년 제헌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국의 다도〉등의 저서를 남겼다.

효당은 특별한 시대를 특별한 행보로 헤쳐나간 거인이다. 한국인들이 최초로 경험하는 문명 차원의 전환 시대에 효당은 몸담고 있었다. 효당이 질주한 시대는 이러한 비상한 조건들로써 직조되어 있었고, 이 조건들은 민족사나 세계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별한 것들이었다.

효당과 다솔사에 수렴되고, 또 그로부터 발산해 간 시절 인연들은, 그 세월만큼이나 특별하다. 책은 그 격동의 전환시대에서 민족의 활로를 모색하고 인류의 희망을 예비하고자 했던 전통진영 진보지성들의 절절한 고민과 분투가 응축되어 있다. ‘효당’과 효당이 남긴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불교, 한국학, 문화, 예술, 정치, 교육 등 전방위로 펼쳐진 효당의 행보와 성취가 한국 근대지성사 탐구의 중대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책은 제1장 ‘청춘은 아름다워라’, 제2장 ‘독립운동과 정치활동’, 제3장 ‘불교에 관한 논설’, 제4장 ‘차와 문화’, 제5장 ‘만해선생을 기리며’, 제6장 ‘불교 관련 논문’, 제7장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 총 일곱 개의 장과 부록1 ‘효당 스님에 관한 글모음’, 부록2 ‘효당 강의필록’, 부록3 ‘효당 스님 연보’, 부록4 ‘사진자료 모음’ 등 네 개의 부록으로 엮어졌다. 제1장 ‘청춘은 아름다워라’는 1975년 국제신문에 연재했던 것으로, 효당 자신이 정리한 인생회고록이며, 제7장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1983년 동국출판사가 발행한 단행본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반야심경〉 260자, 한 자, 한 자 살펴 보기

주시자, 관자재보살로 사는 법

동암 스님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2천원



한자로 제목은 10자, 본문은 260자.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줄여서 ‘반야심경’은 불자들이 법회 또는 행사에서 늘 독송하는 불교 경전이다. 그러나 그토록 독송하고, 외우고 사경하는 반야심경이지만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독송하고 사경하는 예가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책은 〈반야심경〉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글을 읽고 어떻게 이해했으며 이해 체득한 사람은 무엇을 얻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한 무엇에 대한 기록물인가? 등등 반야심경의 이해를 이끌어 주는 책이다. 저자 동암 스님(동해 명상사 주지)의 수행과 관찰을 통해 접근한 반야심경에 대한 해설과 휴정 스님의 ‘해탈열반시’의 해설이 수록되어 있어 두 글을 비교해가며 읽어 볼 수 있다.

책이 설명하는 반야심경과 서산대사의 ‘해탈열반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깨달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즉 저자가 설명하는 반야심경 본문 260자의 내용은 사라자라는 제자를 대상으로 설법을 하지만 오직 개인 내면, 마음과 그 마음을 ‘보는 자’ 그리고 보는 대상에 대한 법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관자재보살’이란 주시자, 응시자, 지켜보는 자, 관찰자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가 보는 깨달은 보살이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무아인중수자(無我人衆壽者: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즉 무아에 통달한 사람, 사상(四相)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주시자가 된 자’를 여래는 참다운 보살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반야심경〉의 관자재보살이 몸과 생각을 지켜보는 ‘주시자’임을 깨닫게 되면 온갖 두려움과 공포, 고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허상임을 알게 된다.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시기와 질투, 남들과의 비교 등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허상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 이는 서산대사가 〈산가귀감〉에서 남긴 ‘해탈열반시’란 게송처럼 마음의 모든 고통과 재앙을 벗어나 고요하고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는 순간이란 것이 저자의 관점이다.

저자는 반야심경과 해탈열반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 이 법문을 이정표로 살아간다면 현세에서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에고(ego)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해탈이며, 아욕다라삼막삼보리를 깨닫는 수행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독자들이 고통과 두려움,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빚어진 모든 고통과 나아가 생사(生死)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책에 들어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4 ~ 8/20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를	원택	조계종출판사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이것이 간화선이다	무비	민족사
7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울북
8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9	인간불교,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성운대사	운주사
10	티베트불교 수행의 설계도	사이토 타모츠	하늘북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티베트로 불교를 ‘가져온’ 마르빠의 전기

밀라레빠의 스승, 마르빠

장 옌 헤루까 지음 | 날란다역경위원회 영역
양미성, 양승규 옮김 | 탐구사 펴냄 | 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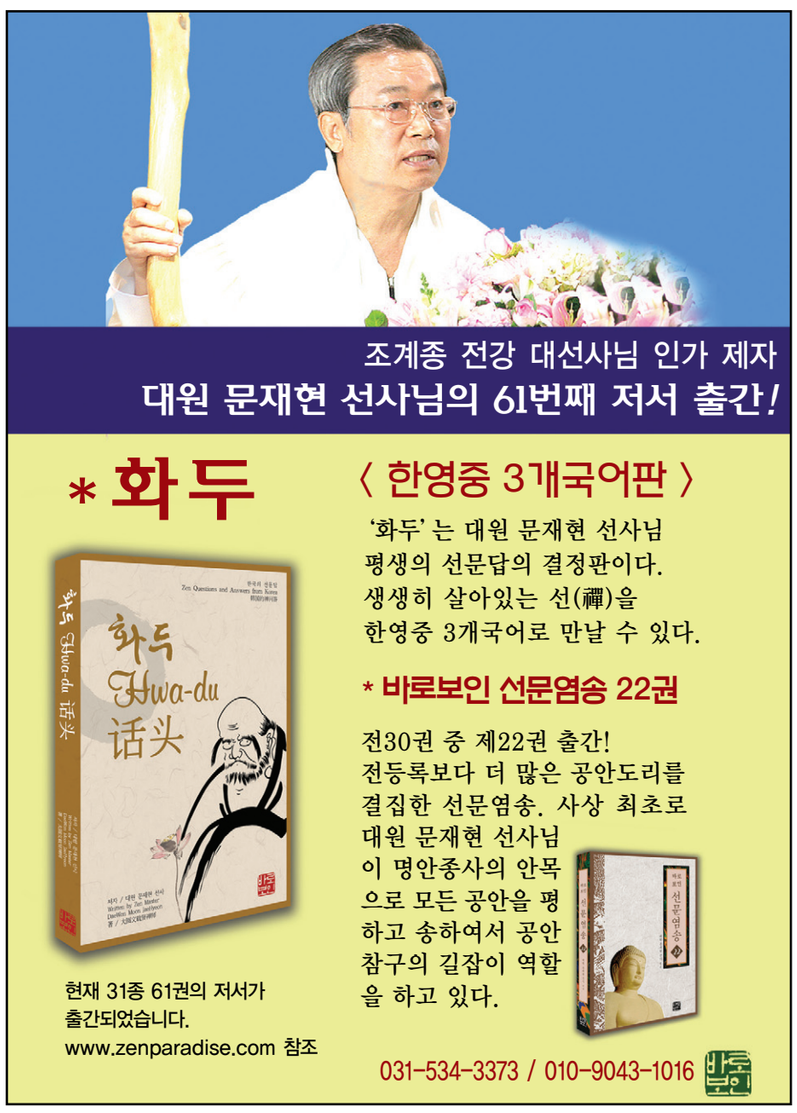
티베트불교 까규파의 시조인 역경사 마르빠(1012-1097)의 전기이다. 마르빠는 후기 인도불교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인도를 세 번이나 찾았다. 나로빠, 마이뜨리빠 등의 제자가 되어 20여 년간 인도에 머무르며 많은 가르침을 배워와 티베트에서 실천수행 계보인 까규파를 열었다. 그의 수제자는 히말라야의 요기로 알려진 밀라레빠이며, 이 책의 저자도 말라레빠의 계보에 속하는 15~16세기 티베트의 유명한 스승인 짱 옌 헤루까이다.

마르빠의 생애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고대 티베트인들이 인도에서 티베트로 불법을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알려주는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마르빠는 단순히 산스크리트어를 티베트어로 옮긴 역경사가 아니라, 실제로 불교를 티베트로 ‘가져온’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학자이고 수행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농부이자 재가자로서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때문에 그의 일대기에는 역경(譯經)과 수행을 어떻게 한데 결부시킬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례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까규파, 겔룩파, 사꺄파, 닝마파의 4대 종파로 이루어진 티베트불교 안에서도 까규파는 실천수행을 가장 중시하는 종파로 알려져 있다. 이 종파는 밀교가 전성기에 이른 후기 인도불교의 거장 틸로빠, 나로빠 등의 계보를 이은 티베트의 역경사 마르빠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마르빠의 수제자 밀라레빠의 전기(〈히말라야의 요기 밀라레빠〉)와 그의 깨달음 노래를 모은 〈밀라레빠 십만송〉이 번역 출간되었으나, 스승인 마르빠의 전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책은 미국에서 나온 책은 영역본 〈역경사 마르빠의 생애〉를 옮긴 것인데, 마르빠의 계보와 까규파의 수행 전통 등을 해설한 머리말과 자세한 용어해설이 함께 들어 있어 티베트불교에 생소한 일반 독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티베트불교는 동아시아 대승불교 전통에 생소한 많은 전문용어들을 포함하고 있고, 수행 체계도 상대적으로 복잡다단한 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전기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티베트불교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한결 수월할 것이다. 책은 마르빠가 많은 어려움을 무릅 쓰고 인도를 찾아 당대 인도불교의 최고봉이라고 할 나로빠, 마이뜨리빠 등 스승들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직접 전수받는 과정과, 그 가르침과 경전들을 가져와 티베트에서 법을 펴는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이 전기는 무엇보다도 마르빠가 스승들에게 헌신하는 자세와, 자신이 체험하고 깨달은 바를 많은 노래로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과정 등을 그의 인간적 면모와 함께 놀랍도록 생생하게 드러낸다. 11세기의 인물 마르빠를 마치 직접 눈으로 보는 듯이 보여주는 15~16세기 저자의 안목과 필체가 인상적이다. 마르빠 이후 까규파는 그의 스승 나로빠가 예언한대로 더욱 발전해 갔고, 4개의 큰 지파와 8개의 작은 지파로 세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책은 까규파의 시조 마르빠에 대한 유일한 정본 전기이며, 책 중에 등장하는 노래들 중에는 수행법에 관한 나로빠와 마이뜨리빠의 중요한 지침들이 들어있다. 티베트불교에 대해 일반적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는 교양서이고, 수행자나 전문 연구자들에게는 마르빠와 그가 전하는 가르침에 대한 필수 안내서라 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두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30권 중 제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바른법

이뭐꼬? What is it? 일러라! Tell me at once!
하나 둘 셋, 이와 같아 넷이니라!
There four 1, 2, 3…
Swallow all beings Eject emptiness
존재를 삼켜 허공을 뱉아라
금강경 묘해妙解
묘봉운륵 송주(頌注)
신국판 | 흑백 | 768쪽 | 28,000원
조사선으로 푼 漢 · 英 · 韓 금강경 수행지침서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방장 혜암(惠菴) 선사의 법을 이은 묘봉 스님(대전 죽림정사 주석)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고, 선(禪)의 안목을 담아 독자적인 견해를 계송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 수행지침서. 금강경의 한문 원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독창적으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풀이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영역한 漢 · 英 · 韓 금강경 해설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금강경에 대한 선적(禪的)인 송주(頌注)를 “화장 끝내고 다시 분칠한 격”이라 자평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단청 / 탱화 / 개금 / 조각 / 보수
문화재수리 기능자 제 2632호
장 병 택
단청탱화 등 불사에 혼을 바친 31년 단아한 화공 장병택 명인
세상에는 세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스스로 좋아서 하는 사람, 시켜야만 하는 사람, 시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화공 장병택 명인은 자신의 취향을 불사의 일에 쏟아 붓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것이 녹아 흐른다.
태어나면서부터 일상을 배우며 커가면서 익히고 많은 것을 경험한다. 어려서는 부모을 의지하고 젊어서는 자신의 주관과 신념에 따르고 노년이 되어서는 자연의 섭리에 의존한다. 자신이 넘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의 장엄한 큰 힘에 기대고 싶어하며 소망하는 바램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흔적은 생활 구석구석에 묻어있고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면의 세계를 암시하듯 자신만의 독특한 표시나 기호 등을 문자나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냈으며 이것이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생활의 수단이나 상징으로 이어져 왔다.
단청은 이러한 암시적인 표현과 상징적 요소를 문양으로 나타냄으로서 우리 내면의 염원과 다가올 미래의 영생의 세계를 꿈꾸며 가시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무언의 장식이다.
화실 : 전북 정읍시 상동 253-8 현대 2차APT 103동 303호
전화 : 063)532-7062 휴대폰 : 011-676-7062 / 010-6380-7062

익살과 해학의 코드로 푼 불교미술



불교미술의 해학
권중서 지음
불광 펴냄
1만2600원

"절간 같다"는 말이 있다. 말이 끊겨 고요하고 적막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찰은 모름지기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곳이니 맞춤한 비유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 곳곳에 해학과 익살을 감춰놓고 은근히 즐겼던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거룩한' 사찰이라고 가만 놔뒀을 리 없다.

법당 천장에는 용과 족제비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고, 불화 속에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장난을 친다. 부처님이 앉아계신 대좌 밑에는 비굴한 용이 잠자리에게 쫓겨 다니고, 사천왕의 다리 밑에 깔린 생령좌는 반성하기보다는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파격적인 모습도 많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불상이 있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어느 사찰 벽화에는 술고래 이태백이 물고기를 타고 나타나 놀라게 한다.

어쩌면 사찰과 관련 없는 것 같은 이런 조각이나 그림들은 사람들에게 여유와 해학을 주기 위한 화승과 조각장의 재치이기도 하며 또 일반 서민이 법당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여유와 해학은 인도, 중국, 일본의 사찰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사찰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잘 살펴보면 대웅전에 사는 동물은 손으로 일일이 다 세기가 어려울 정도다. 개구리, 토끼, 용, 족제비, 잠자리, 호랑이 등등. 이런 모습은 범부의 눈으로는 쉽게 찾을 수 없다.

조상들은 그림이나 조각 곳곳에 이런 모습을 새겨 여유와 해학을 더해줬다.

100년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신륵사 극락보전의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는 익살의 압권이다. 부처님이 서방극락세계의 장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엄숙한 순간, 부처님의 제자가 자신이 그린 대나무 그림을 펼쳐 보이며 주위에 자랑을 한다. 주변의 다른 제자들은 서로 보여 달라며 아우성이다. 심지어 한 제자는 잘 안 보인다며 어깨너머로 손을 뻗는다. 물론 부처님께 혼날까봐 곁눈질을 하며 눈치를 보는 제자도 있다. 법문이 설해지는 팽팽한 자리에 잠시 긴장을 풀어주는 여유의 '장치'다.

1870년 조선 고종 때 만들어진 남양주 흥국사 만월보전 팔상성도 중 수하항마상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병(寶甁)을 마왕의 군대 앞에 내어놓으며 "너희가 이 보병을 쓰러뜨리면 나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자 마왕의 군대가 달라붙었다. 보병에 묶은 병을 밧줄로 묶고 당기는 놈, 무는 놈, 다리를 거는 놈, 북을 치며 격려하는 놈들이 들러붙었다. 보병은 끄덕도 하지 않자 마왕의 군대는 목적을 잊어버린 듯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며 난리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린 그림 한켠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쉬게 한다.

하지만 해학은 단순한 웃음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세태를 꼬집고 비웃을 수 있어야 진정한 해학이다. 해인사 대적광전 외벽에 있는 팔상성도 중 쌍림열반상을 보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자 사리비가 내린다.

오색영롱함에 눈이 멀 지경이다. 그런데 이 장엄의 순간에 이 무슨 일인가? 슬픔대신 사람들은 사리를 받기 위해 치마를 높이 치켜든다. 범부뿐만 아니다. 국왕도, 대신도 이 대열에 동참한다. 심지어 부처님을 지키던 사천왕도 부처님의 사리를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외호자

사찰 곳곳에 해학과 익살 숨겨 있어
사찰의 그림·문양 지혜와 자비 상징
현장 방문하고 찍은 260장 도판사용

팔부중 한 명은 그릇 속에 얼른 사리를 하나 넣는다. 욕심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처럼 이 책에는 사찰의 전각, 조각 그리고 그림 등 사찰의 구석구석, 곳곳에 남겨져 있는 불교미술의 해학과 익살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내고 있다.

사찰에 남겨진 그림이나 문양 하나하나는 모두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장치다. 하지만 때때로 세속의 염원을 배치해 민초들과 하나가 되기도 했다. 용주사 효행박물관에는 조선시대 만들어진 젖을 먹이는 부처님이 있다. 영락없는 조선시대 어머님의 모습이다.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만든 효행본찰 용주사다운 독특한 모습이다.

선운사 도솔암 내원궁 천장에는 한쌍의 물고기가 마치 교미를 하는 것처럼 엉켜 있다. 알고 보면 좀 민망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산을 염원했던 여인들의 심정이 그런 조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여유롭게 웃고 넘어갈 만하다. 이밖에도 국가의 안녕이나 왕의 안위를 기원하는 조각 그리고 망자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조각이나 문양도 보인다.

사실 이런 모습은 평범한 눈으로 관찰해 내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교육용으로 만든 사찰 안내서와는 많이 다르다. 대신 사찰의 구석구석을 뜯어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나 이 책의 미덕은 사찰에 담긴 이런 염원, 해학, 익살을 경전이나 불교설화 등이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하나하나 전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모두 260장의 도판이 사용되었다. 모두 저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렌즈에 담은 것이다. 저자는 이번 사찰 답사를 통해 사찰의 세밀한 모습을 관찰했음은 물론 그 모습이 모두 경전, 설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근거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데 노력했다.

단순히 유형의 문화를 학술적인 잣대에 들이대 근엄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다분히 불교 신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기도와 수행체험을 신경학적으로 조사 연구

신의 흔적을 찾아서

바바라 해거티 지음 | 홍지수 옮김
김영사 펴냄 | 1만4천원



이 책은 물질과학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영성의 과학'이라는 금단의 연구 주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영적 체험의 신경생리학적 연구라는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획기적인 발견에 전 세계를 주목시킨 화제작이 되었다. 출간과 동시에 언론계는 물론 과학계와 종교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모았으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뇌과학·신경신학·심신의학·유전학·철학·심리학 등 세계 석학들의 연구와 실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생생한 증언과 경험담, 집요한 취재와 검증을 통해 이 세계 너머에 대한 진실을 새롭게 밝혀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 믿음과 영성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과학이 탐구하고 있는 내용을 파헤친다. 저자는 세계 정상급 과학자들을 만나 그들이 시행한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의 영적 체험에 관해 어떤 내용들이 밝혀졌는지 설명한다. 불교 승려들과 프란체스코회 수녀들의 뇌 기능 분석에서 중보기도를 통해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 임사체험이 내세에 대해 시사하는 점에 이르기까지, 해거티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넘어 우리가 초월적 존재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세세히 추적한다. 인간이 어떻게, 왜 믿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과학이 어떤 발견을 하고 있는지도 심도 깊게 다룬다. 과학의 이면을 꿰뚫은 독보적 연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과학과 종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믿음과 생각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가? 기도를 듣고 병을 치유하는 신이 존재하는가?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도에 대해 연구 결과를 보면, 기도가 효험이 있다는 증거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HIV 바이러스의 진행을 막는 생각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한때 미신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과학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의 생각이 세포 수준에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바로 믿음의 생물학이다.

과학자들은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비신체적인 것들이, 유전자나 생활방식이나 복용하는 약처럼 우리 신체에 세포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정, 특히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심장발작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면역체계가 인플루엔자를 물리치려고 할 때 그 기능을 저하시킨다.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암 진행이나 유방암 회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서는 기도가 에이즈 말기 환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도 나왔다. 한국에서는 시험관 수정으로 임신하려는 여성들의 경우 중보기도를 받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임신할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믿음과 생각이 병도 치유 가능
오랜 기도는 신 접촉, 근거 희박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기도가 몸을 치유한다는 연구 결과만큼이나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어떤 경우에서는 악화되는 결과도 나왔다.

펜실베이니아대 방사선과 교수이자 정신의학과 교수인 앤드루 뉴버그는 티베트 불교 승려들, 프란체스코회 수녀들, 시크교도, 오순절파 기독교도 등 온갖 종교의 영성 전문가들을 연구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신과 교감을 나누거나 육신 밖에 있는 다른 차원에 접속하게 될까? 뉴버그는 아주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그거야 믿음의 체계가 어떤가에 달려 있겠죠. 종교를 가진 사람이 뇌 스캔을 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 신이 나와 소통하는 부위가 여기군.' 무신론자는 똑같은 뇌 스캔 자료를 보면서 그럴 겁니다. '이것 봐. 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니까.' 나한테 신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뇌를 스캔한다고 해도, 스캔 결과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신을 봤는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김주일 기자

조사선의 황금시대를 이끈 황벽선사 어록집

황벽어록

김태완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3천원



황벽희운 선사는 당나라 때의 걸출한 선승으로서 육조혜능-남악회양-마조도일-백장회해로 이어지는 법을 전해 받아 임제종의 시조인 임제의현에게 전해 주었다. 중국의 현 복건성 복주 사람으로 복주의 황벽산에서 출가하였고, 그 후 백장회해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았다. 대안사와 용흥사, 개원사에서 주석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단제선사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경덕전등록, 오등회원, 조당집 등에 선사의 행적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상국 배휴가 기록한 전심법요와 완릉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짧은 대화나 간단한 법어를 수록한 대개의 선어록과 달리, 황벽선사의 가르침을 기록한 전심법요와 완릉록은 길고 체계적인 대화와 상세한 법어를 싣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황벽선사의 이 어록은 육조혜능에게서 비롯되고 마조도일과 백장회해를 통해 정립된 조사선의 가르침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 후대에 조사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뒷날 임제종의 황룡혜남이 중국 조사선의 황금시대를 누렸던 마조, 백장, 황벽, 임제 등 4명 선사의 어록을 모아 사가어록을 간행하여 임제종의 종지를 전하는 전거로 삼았는데, 황벽선사의 어록인 전심법요와 완릉록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완릉록에는 성철스님의 말씀으로 유명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구절이 있고, 조계종 종지인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표현도 전심법요에 처음 등장한다. 오직 한 개 마음뿐이다. 황벽선사와 오랜 세월 문답을 주고받은 배휴는 전심법요의 서문에서 말하기를, "일심(一心)만을 오로지 전했을 뿐, 다시 다른 법은 없으셨다."고 했다. 이 말을 뒷받침하듯이 전심법요는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들이 오로지 한 개 마음이고, 다시 다른 법은 없다. 지금 이대로가 곧장 이것이니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테두리가 없으니 헤아릴 수 없다." 또 말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가 곧 중생이다. 중생일 때에도 이 마음은 줄어들지 않고, 부처일 때에도 이 마음은 불어나지 않는다.

나아가 육도만행(六度萬行)과 강바닥 모래알같이 많은 공덕을 본래 다 갖추고 있으니 수행에 의지하여 더할 필요가 없으며, 인연을 만

체계적 대화와 상세한 법어 실어
후대 조사선 발전에 크게 기여

나면 베풀고 인연이 사라지면 고요히 쉰다. 만약 이것이 부처임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함으로써 효과를 바란다면, 모두 망상(妄想)이어서 도와는 어긋난다."

마조선사가 말한 "이 마음이 곧 부처다(즉심시불)"를 이어받은 이 법문은 마음의 실상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 오로지 하나의 마음뿐이고, 이 마음이 부처이고 중생이며, 이 마음은 완전무결하여 수행을 통해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부처임을 믿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으로 다시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 오히려 더욱 잃는다고 말한다. "다만 중생은 모습에 집착하여 밖으로 구하니, 구할수록 더욱 잃는다.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잡으려 하니,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수 없다."

구하면 더욱 잃을 뿐 아니라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수 없다니, 그러면 구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 이 의문에 대한 선사의 대답은 더할 나위 없이 명쾌하다.

"이들 중생은 생각을 쉬고 헤아림을 잊는다면 부처는 저절로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렇듯 선사는 전심법요의 첫머리에 이미 선의 정수를 다 밝혀주었다. 그러나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무르익어 한 점 의혹이 없을 때까지 의문이 그치질 않기 마련이다. 이에 선사는 제자들과의 문답으로, 상당시중으로, 몸짓 등으로 계속해서 법을 가리키며 마음의 실상을 자세히 밝혀준다. 〈황벽어록〉은 불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갖가지 의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들이 수록돼 있어 선을 공부하는 데 좋은 안내서가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수륙영가천도
조상영가 태아영가 천도
부산 ↔ 일본오사카
일본오사카 ↔ 부산
우환,우울증,신경쇠약,불면증,비만,알콜중독,
가족갈등,변비,악몽,가위눌림,중풍,치매,암예방 등
모든 어려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수륙천도재
선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관광이 아니고 천도가 목적임. 좋은 일이 일어남.
특 강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천수경 특강을 들어보시면
불교수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상 제사 잘 모시는 방법 지도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010-3815-7162
풍수지리 수맥탐지 정 태 철
010-2797-1633
인터넷 : 꿈바위 불교교육원 검색. 불교 TV 꿈바위 활동
지역사회 활동할 분 특별기도. 가정집에서 포교활동 하실 분
노인점심식사, 쌀, 라면 보시자는 기도해 드림
꿈 바 위 불 교 교 육 원
010-6789-5008 대전 · 서울 · 부산 · 대구

나와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
손기원 박사의
지 혜 인
명 상 지 도 사
제2기 지도사 과정 모집 (1급, 2급)
늘어나는 '지혜인 명상'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혜인 명상 지도사' 양성 과정 오픈!
지혜인 명상은...
· 한국의 5천년 명상과 진리학습 전통 기반
한국인 명상법 + 서구의 장점 접목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인성,소통, 힐링 프로그램
· 선생님 임직원 청소년 일반인 대상 운영 중
▶2급 : 10~11월 60시간 ▶1급 : 11~12월 60시간
워크숍, 교재, DVD, 교육 참관, 자격증 수여
▶문의 :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340호

빙의(신병) 퇴마
9월 수강생 모집
퇴마 및 최면요법 과정 (전생과 미래를 본다)
1. 개강 : 2013. 9. 7 (토요일) 오전 11시 개강
2013. 9. 2 (월요일) 오후 2시 개강
2. 참가비 : 200만원 (8회, 과정별 교재제공)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담 후 수강결정)
퇴마특별과정 : 배웠으나 퇴마 못하는 분
1. 개강 : 2013. 9. 1 (일요일) 오후 2시 개강
2. 참가비 : 100만원 (4회, 문답식 교육, 문제해결)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담 후 수강결정)
개 인 지 도
1. 기문둔갑, 성명학, 빙의 퇴마와 최면요법
2. 시간, 장소 (서울과 의정부) 상담 후 결정
3. 지방출장 지도 2명이상
상담 : 예약상담
* 사주상담 * 심리상담, 우울증, 공포증 * 빙의퇴마
* 무 속 인 :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빙의 (신병) : 출장상담 및 출장 퇴마
• 신간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 주문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 비룡정사
• 저자 : 제행 스님 직접상담 및 지도
• 전화 : 011-772-4606. 02)588-4606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신충이 「원가」를 부른 까닭은 ?

누렇게 뜬 나무는 왕권 상실을 의미

1. 바둑과 약속

성덕왕과 소덕왕후(제3왕후) 김 씨 사이에서 태어난 승경(承慶)은 잠저(潛邸) 시절, 즉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때 현사 신충(信忠)과 대궐 정원의 잣나무 아래에서 자주 바둑을 두었다. 승경은 신충에게 "이 다음에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거가 될 것이다"며 신충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성덕왕은 왕과 성정왕후(제1왕후) 사이에서 태어나 당나라에 숙위(宿衛)로 가 있던 수충(守忠)을 내치고 대신 엄정왕후(제2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중경(重慶)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하지만 엄정왕후의 출궁(出宮)을 빌미로 중경 태자를 물러나게 하고 소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승경(承慶)을 태자로 삼으니 그가 바로 효성왕이다.

승경이 바둑을 두며 약속한 몇 달 뒤 성덕왕이 36년 재위를 마치고 승하하였다. 당시 15세무렵이던 승경(承慶)이 효성왕으로 즉위(737)하였다. 효성왕 재위 2년 봄에 당나라 현종은 사신을 보내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이어 왕이 왕비 박 씨와 결혼하자 당은 사신을 보내 왕비로 책봉하였다.

효성왕은 즉위한 뒤 공신(角弓)들에게 상을 주었다. 그런데 그만 신충을 잊어버리고 등급에 넣지 않았다.

이에 신충이 효성왕을 원망하여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이니 잣나무가 누렇게 시들어 버렸다. 그 소식을 들은 효성왕이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알아보도록 하였다. 사자(使者)는 신충이 지은 노래를 찾아 효성왕에게 바쳤다.

효성왕이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정무가 바빠 공신을 잊을 뻔 했구나."

이에 효성왕은 신충을 불러 이찬 벼슬을 주었다. 그러자 잣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효성왕은 재위 3년 봄 정월에 조고(祖考)의 사당에 참배하였다. 이즈음 효성왕은 부왕 성덕왕과 마찬가지로 첫 왕비를 왕실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중시 김의충(金義忠)이 죽자 이찬 신충을 중시(中侍)로 삼았다.

2월에는 왕의 아우 헌영(憲英)을 승진시켜 파진찬으로 삼았다. 3월에는 이찬 김순원(金順元)의 딸 혜명(惠明)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효성왕 6년 5월에 동모제(同母弟)인 헌영(憲英)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유성(流星)이 삼대성(參大聖星)을 범한 뒤 갑작스럽게 승하하였다. 유성이 삼대성을 범했다는 것은 아우인 헌영의 일파가 효성왕을 암살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재위 6년의 효성왕에 이어 헌영은 경덕왕으로 즉위하였다. 이어 중시는 신충에서 유정(惟正)으로 바뀌었다. 이후 신충은 한동안 이찬으로 재직했으며, 경덕왕 16년에는 상대등이 되었다.

하지만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경덕왕 역시 몇 차례의 반란을 감내해야만 했다. 16년 봄 정월에는 상대등 김사인(金思仁)이 병으로 퇴직하자 경덕왕은 이찬 신충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3월에는 내외 여러 관원의 월봉(月俸)을 없애고 다시 녹읍(祿邑)을 주었다. 이때 왕당파의 거두였던 신충은 아찬 김양상(金良相)을 우두머리로 하는 반대파에 밀리게 된다. 경덕왕 22년 8월에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옹(金邕)이 다 면직되었다.

2. 신충의 면직과 이순의 출가

이때 대나마 이준(李俊, 『고승전』에선 李純)은 왕의 총신이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속을 버리고 산중에 들어갔다. 그는 여러 번 불러도 나오지 않은 채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이준은 왕을 위하여 단속사(斷俗寺)를 창건하고 거기에 살았다. 그 뒤에 그는 왕이 음주가무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곧 궁문에 나아가 간하였다. "신이 들으니 옛날 걸주(桀紂)가 주색(酒色)에 빠져 음탕(淫蕩)과 안락(安樂)을 그칠 줄을 모르다가 마침내 정사가 문란하고 국가가 패망하였다고 하옵니다. 앞에 가던 수레가

효성왕, 외척 눈치에 신충 공훈 누락
원망하는 노래 써붙여 벼슬길 올라
효성왕 · 경덕왕 대 왕당파 거두로

엎어지면 뒤에 가는 수레는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왕께옵서는 허물을 고치시고 스스로 새롭게 하시어 나라의 수명을 영구하게 하옵소서."

왕은 그 말을 듣고 감탄하여 음악을 정지하고 정전(正殿)으로 불러들여 도(道)의 진리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듣고 여러 날 만에 그치었다.

신충은 효성왕과 경덕왕 두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지만 두 친구와 서로 약속하고 벼슬을 버린 뒤 남악인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양주동은 "신충이 단속사를 세웠다고 했으나 〈삼국사기〉의 경덕왕 22년 기록에 의하면 일연 선사는 '면'(免)자를 간과하여 신충과 김옹, 이순 3인이 함께 '왕의 총신이었지만 홀연히 하루 새벽에 세상을 피해 산으로 들어갔다'(爲王寵臣, 忽一旦, 避世入山)고 읽었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인용하면서 '신충과 두 벗이 서로 맹약하여 관복을 걸어두고 남악으로 들어가 다시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忠與二友相約, 掛冠入南岳, 再徵不就)고 쓰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일연은 "(그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왕을 위하여 단속사를 세우고, 거기에 머물면서 평생 속세를 떠나 대왕의 복을 빌겠다고 원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금당 뒷벽에 남아 있는 진영이 바로 신충이다"고 하였다고 적었다.

이에 양주동은 "〈삼국사기〉에 인용된 개별 삼인(三人)을 곧 삼(三) 화상으로 취단(驟斷)한 때문이다"고 하였다.

일연 또한 자신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기에 '할주'(割註)에서 "살펴보건대 〈삼화상전〉에는 신충봉성사(信忠奉聖寺)가 있어 여기 이 절과 서로 혼동된다. 그러나 따져보면 전생에나 있을 일인즉 여기의 신충이 아님이 분명하다.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고 적고 있다.

이어 일연은 "또 〈별기〉에 이런 말이 있다. '경덕왕 시대에 벼슬이 직장(直長)인 이준(〈고승전〉에선 이순이라 했다)이 일찍부터 나이 50이 되면 반드시 출가하여 절을 세우겠다고 발원하였다. 천보 7년 무자(748)에 나이 50이 되자 조연(槽淵)에 있던 작은 절을 고쳐 큰 절로 만들고 절 이름을 단속사(斷俗寺)라 하였다. 자신도 또한 머리를 깎고 법명을 공굉장로(孔宏長老)라 하여 절에 20년간 머물다가 죽었다."

그러면서 "〈삼국사(기)〉에 실린 것과 같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다 기록하여 의심을 없앤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삼국사기〉「신라본기」 제9 '경덕왕 23년' 조의 "23년 봄 정월에 이찬 만종(萬宗)으로 상대등을 삼고 아찬 양상(良相)으로 시중을 삼았다" 기록을 함께 보면 22년 8월에 복사꽃과 오얏꽃이 두 번째 피었을 때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옹이 모두 면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주동은 "삼국사기 원문은 신충, 김옹 두 사람의 사면(赦免)과 이순의 피세(避世) 입산(入山)이 개별사실로 서술되어 있는데 선사는 '면'(免)일자를 간과하여 신충, 양상, 이순 삼인이 모두 왕의 총신으로서 홀연히 어느 날 새벽에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들었다고 풀이하였다"고 하였다.

즉 양주동은 신충과 양상은 출가한 적이 없는데도 일연이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면' 일자를 간과하여 신충이 두 벗과 함께 벼슬을 버린 뒤 남악으로 들어갔다고 잘못 보았다고 적었다.

다시 말해서 일연은 『삼화상전』에 실린 신문왕대의 '신충봉성사'를 지은 '신충'과 효성왕의 벗이었던 신충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면' 일자를 간과하여 세 사람 모두를 출가한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일연은 이렇게 찬시를 붙였다.

"공명은 다 이루지 못했는데 귀밑털이 먼저 세고,/ 임금 총애 비록 많으나 한평생이 바쁘도다/ 언덕 저편 산이 자주 꿈속에

일연, 신충의 '면직'을 출가로 기록
이순 지은 단속사, '신충봉성사'와 혼동
이순 신충 김옹 3인 출가로 봐 찬시

찾아오니/ 내 가서 향불 피워 우리 임금 복비오리."

3. '원가'의 해석

향가는 주(술)가(呪述歌)와 치리가(治理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14수 중 '원가' 역시 이러한 공능을 지닌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잠저(潛邸) 시절의 효성왕과 바둑을 두며 벼슬을 약속받은 신충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망하는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이자 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시들어 버렸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여기서 나무의 소생은 나무로 상징된 권력의 재생, 왕권의 회복, 우주질서의 재생을 뜻한다. 또 바둑[圍碁]은 흔히 신전(神殿)이나 성수(聖樹)에서 지냈던 비밀스런 제사 또는 이에 관련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옛날에 반고(班固)는 "바둑판은 땅을 상징하고 두는 행위는 신명한 덕을 나타낸다. 흑백의 바둑돌은 음양의 이치이며, 바둑판에 돌을 포석(布石)함은 천문을 본뜬 것이다. 사상(四象)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대개 왕정(王政)이니, 바둑은 천원지방(天圓地方)과 음양사상(陰陽思想)을 위시하여 제왕의 치세[治], 오패(五霸)의 권세[權] 등이 재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풍요와 재생을 상징하는 성수 아래서의 바둑은 그 놀이 자체의 성격으로 보아 우주의 질서를 모사한 소우주적 실수행위(實修行爲)로 이해할 수 있다.(황패강)

잣나무는 우주의 나무이다. 우주의 나무는 세계의 이미지로 또는 세계의 축으로 인정된다. 우주의 주기적 재생 기능이나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우주나무의 작용은 이 경우 왕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신충의 첩가백수(帖添歌栢樹)는 우주나무의 이와 같은 기능을 정지 또는 손상시키는 주술이 되었다. 우주 중심에 있는 성수에 가해진 어떠한 저주도 우주의 질서에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것이다.

왕권과 동일시된 잣나무에 대한 가해는 곧 왕권에 대한 가해로 나타난다. 이는 유감주술(類感呪術)로 보인다. (양주동, 『국학연구논고』)

노래는 이러하다. "질(質) 좋은 잣이/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 너를 중(重)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낯이 변해 버리신 거울에여,/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갓/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 여희여 버린 처지여 버린 처지(處地)여." (김완진 역) "물 좋은 잣이/ 가을에 아니 이르러 떨어지매,/ '너하고 같이 다니고 싶구나' 하신,// 우러르던 얼굴이 변하신 데에야./ 달이 그림자여서 닿은 연못에/ 오고가는 물결에서 새어나감 같이,/ 모습이야 바라보나/ 세상 아무데에 숨은 적에야." (신재홍 역) "질 좋은 잣나무는 가을에 아니 그릇 떨어지되/ 너 어찌 잊으랴 말씀하신// 우럴던 낯은 변화셨도다./ 달 그림자 진 옛 못엣/ 흐르는 물결엣 모래인양/ 모습이사 바라나/ 세상 모두 잃은 처지여라."

실권이 없는 왕은 등극 이후에 신충을 잊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외척세력의 간섭으로 그를 등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신충은 각박한 인정세태와 무정한 세상사를 탄식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 노래가 '욕구충족의 상징적 제의가 되어 주가(呪歌)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끝〉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여러분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민족문화추진회, 『삼국유사』(민족문화문고, 1976).
김부식, 『삼국사기』, 신호열(동서문화사, 1976;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65; 1990 중판).
황패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현암사, 198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누렇게 뜬 잣나무. 신충은 자신의 공을 잊은 왕을 원망하는 노래인 '원가'를 지어 벼슬길에 올랐다. 잣나무는 왕실을 상징한다.

부적기름의 혁명

松 송 根 근 油 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 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값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217회
깨달은 3000배

절, 염불, 독경, 참선, 행선, 와선, 부처님호흡법을
삼매체험한 에너지로 에고 중생 맘 확 녹이고

진짜 참회 처음 공개!!

착한척, 잘난척, 아는척, 똑똑한척,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복짓고, 업장소멸, 참회기도, 갖가지 수행하는데 왜 병, 불행에 쫓기고 있나?

※천도재, 조상타령, 귀신타령, 팔자타령, 돈타령, 절대 하지 않음

⊙ 날 짜 : 8월 31일 (토) 저녁 9시 ~
9월 1일 아침 7시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수련복, 기도포, 수건)
⊙ 장 소 : 법왕정사 울산 언양법당
KTX울산역 3분, 서·울산IC 3분,
언양버스터미널 1분

※청소년불자들이 삼매를 체험하고 깨달음으로 나가며 학교에서 리더로, 세상에서 글로벌리더로 성장하는 깨달음의 법회를 준비중입니다.

깨달음쉬운불교 · 깨달음빠른불교 · 깨달음주는불교
법왕 참부처님 참불교 법왕정사
www.법왕정사.net
☎ 052)254-7768. 010.3487.0035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 난 집은 물로써 꺼야 하듯이
현명한 이, 지혜로운 이, 영리한 이들은
바람에 솜털 날려가듯이 일어나는 걱정을 떨쳐버린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포항)
010-6569-1010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010-8677-2861

현대의학이 증명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전통 비밀수련법.
잃어버린 건강 젊음 되찾는 대 자연 기공 치유 수련법.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 재발없이 평생건강 지도
보증금 권리금 없는 포교원
잘 운영하실 스님, 법사님! 환영.
449-5315
010-2344-730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모든 고민은 네이버에서
"샤먼노트"를 검색해 보세요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관 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얼굴,손금만 봐도 무슨, 어떤 질병이 있는지(가족문제,재판문제,산소조상 문제)를한 눈에 알수있다.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 나이 관계 없음
◎ 스님 특별 개인지도
010-4014-8822

아 미 타 선 원
서울 강남,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사주카페 동업하실
보살님 구합니다
010-4633-457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기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 목탁, 송주북, 정근북, 법고)
– 천수바라, 작법(나비무), 49재, 천도재, 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실전위주 교육(재가불자가능)
불공의식,천도재,49재,점안식
천수바라,나비무
010-9263-8057
부산 은진사. 인호, 수법 합장

악성피부질환 해결
전통의약 자연치유비법으로 악성 무좀, 악성종기, 악성골수염, 악성 피부염,재발하는 축농증, 아주심한 아토피염, 버거씨병, 기타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 어려운 분에게 해당됩니다.
아픈스님께는 무료 보시합니다.
010-3028-6579

최 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우울증,각종심리치료와 최면의 전과정 실기위주 속성요점 강의
• 배웠으나 활용 안되는 분 환영
• 교재 제공, 개인, 그룹 (출장가)
• 사주명리학도 개인지도함
부산 현불사
010-9342-9794

女 사무 보조원 구합니다
서울 강북(40~50대 초반)
010-9087-62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74-4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633-8445

향기도의 비법
• 몸 속 13군데에 박혀있는 업(삿든 기운)을 소멸시키는 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부전 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6575-1719

포교불사 및 불사 함께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9148-8738

빈 절이나 가난한 암자를 무보시로 운영 관리해 드립니다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어려운 사찰을 구합니다
(법납 40년 비구승, 탄성스님)
010-7534-4848

강원도 설악산 조용한 암자입니다
기도 수행하면서 가족같이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원합니다
(초보자 환영, 보수 절충 됨)
033)463-3150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총무스님 010-5511-7000

흰개미 박멸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 목조 건물의 기둥 및 서까래 등을 망가뜨리는 흰개미를 박멸하여 드립니다.
KJI방역 010-2684-9216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에 초대합니다
서울 9월 29일, 창원 9월 7일 ~ 8일, 광주 9월14일
각 지역 공개강좌 참여가능합니다.
네이버–원네스 가족세우기 / naverhealingonenessfamily
문의전화 010-4114-6600
니르바나 혜산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무료공개강좌 (영가찾는법 강좌)
생년월일시로 간단하게 찾는 법과 사주로 쉽게 찾는 법 등과 운에서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왕초보라도 가능함.
※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찾아 기도를 해주어야 모든 일이 풀린다.
무료공개강좌 –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 명리기초 및 영가특강반 :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통신강의 ☞ 지방거주나 시간이 없는 분 – 통신강의는 DVD 보내드림
백암역리원 ☎ 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3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0-1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삼 보 양 초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으며 오래 탑니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삼보양초의 종류
1) 원기둥 홈초(대) 1박스 20개. 9만원
2) 돈타레 홈 (중대) 1박스 40개 9만원
3) 밀대 (중) 1박스 50개 7만5천원
4) 등신불 (소) 1박스 40개.....9만원
▣ 삼보양초는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종단차원에서 공급하여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사업자번호 : 615-82-71773 (한국불교재단)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010-5789-6630
사업부계좌 : 농협 302-0587-1926-11 이창민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 사업본부

영가 찾는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 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8월 30일 (금) 오후 2시
• 대 상 – 역학 왕초보자, 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기 초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딛히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통신반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은행) 옆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 비 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육임CD프로그램 효 사 비 결
정확합니다
당면사 / 일생사 / 성부단정이
확실 합니다.
정가 600만원
고복자 효사
02)738-8680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맷돌이나 숫돌이 닳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땐가 다 닳아 없어진다. 나무를 심으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새 자라 큰 나무가 된다. 하루하루 꾸준히 수행에 정진하다 보면 어느 샌가 그 수행은 깊어져 마침내 저 불멸의 곳에 이르게 된다. - 선림보훈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위치 : 서울
- 대지 : 20
- 법당 : 50*2동
- 대지 : 1000
- 가액 : 6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급)안내

- 서울 인왕산자락 사찰
- 토지임야포함 약 400㎡
- 법당, 목조건물 약 80㎡
- 요사채 약 100㎡, 주차장 있음
- 그외 다수 있음
- 가액: 12억 8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 4층 건물에 4층 45평
- 시설완비. 주차장
- 석가모니 삼존불(백옥)
- 보증금 1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1-592-9599

암 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 평수 : 340평
- 건물 3동
- 공항에서 10분거리
- 가액 : 7억

018-590-3583

사찰안내

옆에 맑은물이흐르고 붕어와 연꽃이 피는 연못이 있는 공기좋고 아름다운절

- 대지 포함 1.000평
- 사과나무, 호두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있음
- 위치: 경북 예천
- 가격 : 몽땅3억

011-861-625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면적 : 120평
- 법당 : 30
- 요사 : 60평
- 가액 : 12억5천

- 위치 : 부산전통사찰
- 면적 : 1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4억5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및 토 굴 안 내

경주 토굴 안내

- 총부지 : 730평
- 법당 요사채 60평
- 아생화가 어울러진 아름다운 토굴
- 마을 앞 넓은 호수, 텃밭 100평
- 양도가 : 3억 2천만원

아 름 다 운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 역사와 정원수 다량
- 나비형 큰 호수
- 양도가 : 1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강원도 토굴 다량확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 대지 80평, 2층 법당 아래층 요사채, 앞텃밭
- 평수 : 32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 꼭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723-664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건물중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동구 내동 1번지
- 대구 동화사 근처
- 평수 366평
- 하천부지 포함 600평
- 가액: 2억 7천만원
- 하실 분만 연락바랍니다

010-3729-4108

신축 사찰 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 전세 6천만원
- 양도 : 3억 5천(대출금 1억 포함)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 시내 중심가
- 상가 3층, 38평
- 삼존불, 집기시설 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 7년째 운영중

010-2020-18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아파트상가 2층 약 60평
- 큰법당, 공양간, 샤워실 방3개, 시설 특A급
- 보증금1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3800만원 (조절 불가능)
- 스님이 운영하기 좋은 포교원
- 개원한지 약 6년

010-7576-172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남해안 소재
- 토지 : 총 10,953평(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 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체,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6동 주차장 완비
- 현재 추모관 성업중
- 가액 : 4억 8천만원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5444-0807

도심속의 작은암자

- 위치 : 부산시내(북구) 주차용이
- 1층 와가 방2칸 약 26~30평정도
- 법당 : 삼존불, 신중, 영가단. 산신용왕 별도
- 국유지(철도부지) : 사용료내고 있슴
- 6천 8백만원(조절가)

011-575-9707

포 교 원 안 내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4층건물 중 2층 45평
- 방3, 베란다에 주방
- 에어컨 2대, 원목탁자 닷집
- 주변에 가락시장 로데오거리
- 보증금 2천만원 월 145만원
- 시설비 없음. 즉시법회가능
- 지하철 문정역에서 3분거리

02)4430-108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세종 첫마을에서 5분거리 금강이 내려다보임
- 대지 260평, 건평 62평 , 2층 슬라브
- 육각정 포함
- 가액: 5억 5천만원

011-548-7485

신축한옥(급)안내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대지: 약 145평, 건물: 약 50평
- 2010년 건물준공
- 목조건물로 편백나무로 시공
- 사찰로 사용 적합
- 가액: 2억5천만원곳

010-2525-0499
018-502-4614

수 목 장 사 찰 터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소재지
- 대지, 임, 벽돌집 90평 2동. 180평 3년
- 자격: 종교법인체 치악산조망권
- 5,000기 조성가능 함 . 합 10,657평 (수목장 사업시 투자하실분 있구요 계약전 상담 가능)
- 융자 7억 5천만원
- 양도금 15억

010-3288-1317

포교원 및 쑥뜸방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3층건물 중 2~3층 전체 (약 100평)
- 구조: 법당, 요사채, 쑥뜸방 2개, 집기시설완벽, 아파트빌라 밀집지역 교통아주 편리
- 특이사항: 쑥뜸절찬성업중 (하루 쑥뜸 20~30명, 쑥뜸개원한지 3개월째)
- 보증금 600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협의가능(쑥뜸 노하우 알려줌, 초보자 가능)

010-2899-1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해운대 시립미술관역 2번 출구
- 평수 : 60평 (여유 도량 40평 별도 사용가능)
- 구조 : 법당 1개, 방 3개, 화장실 2개, 창고 1개, 공양간, 다용도실
- 집기 시설 완벽
- 교통 : 버스정류장3분거리,지하철역1분거리
- 주변 시설이 편리하고 아파트 밀집 지역.
- 보증금 :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시설비 있습니다.

010-9380-719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불상별도)

010-2251-33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안산 터미널 부근
- 대로변 2층 약 35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보증금1000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3111-9056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천하명당 강화 마니산
- 경관 최고 바다보임
- 임야 4100평, 건축 허가 200평
- 전기 수도 완비
- 가액: 답사 후 절충

010-7390-85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동대구역 근교
- 한옥 36평
- 삼존불, 산신,용왕, 소옥불 77불모심
- 보증금 5백만원 / 월25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0-3381-08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 평수 90평
- 3층, 방3개, 친견실1, 시설완벽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대세지(새로 조성)
- 전세금 2천만원 월세 無
- 시설비 3천만원
- 스님 사정상 급 양도함

010-3750-54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굴암리 202번지
- 규모 900평
- 가액: 평당 4만원 (40000)

011-286-7371
033)563-16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낙동강변
- 총 850평
- 종교용지 300평
- 법당 22평/ 다용도용 30평
- 요사채 30평 (추가 10평)
- 연못 조성 예정지 및 주차장 , 텃밭
- 그 외 800평가량 이용 가능함
- 가액: 2억 5천만원 (대출금 있음)

스님010-2353-9933

암 자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절충 (700만원)
- 조용하고 기도하기 좋은 곳

010-4576-288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 2층 (시청뒤)
- 전체 40평, 삼존불 및 탱화, 북大, 종大, 가전제품 일체, 몸만 들어오시면 됨.
- 친견실1, 방2, 공양간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에 월 35만원 (총 2300만원)

010-9421-0772

사찰같은 시골집 안내

- 위치 : 대지 약 400평, 건평 40평
- 자연석조경, 석조지장보살
- 전세금 7,000만. 승속 무관
- 사찰경내 있음, 경관수려함
- 대웅전, 시설공용할 수 있음
- 충남, 아산, 유구 근교있음

010-3630-32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350
- 기본적인 법당시설
- 4층 약 60평, 탱화없음
- 아파트 밀집지역, 포교 적합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
- 전세 6천만원

010-2880-4455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선혜사
- 주 지 : 혜신 (박경미)
- 주 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831-5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자비심 일깨우기

초걈 트룽파 (승려 · 티베트)

〈4〉 인내 바라밀

"이익과 승리는 남에게, 손실과 패배는 나에게"

이제부터 다루게 되는 세 번째 부류의 주제들은 그 모든 수행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법과 관련돼 있다. 즉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일을 당신 여정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부류의 주제들은 인내 바라밀과 연관돼 있다. 인내의 정의는 참고 견뎌내는 것이다. 하지만 인내는 때를 기다리거나 속도를 늦춘다는 뜻이 아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당신은 그것에 단순 반응하지는 않는다. 위엄을 지닌 채 견뎌내며 세상의 공격성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다.

모든 악을 깨달음의 길로 변형시키기

모든 경험을 길로 삼는다는 사고방식은 이 부분의 중심이 되는 다음 주제에 잘 드러나 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든 역경을 깨달음의 길로 변형시킨다."

이 말은 당신의 일상에 어떤 일-환경 · 정치 · 심리 문제 등-이 벌어지든 그것을 주의력의 한 부분으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와 같은 주의력은 보리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지닌 상태에서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을 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삶이 기대했던 대로 진행된다 해도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물은 항상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장애물이 가로막으면 당신은 그 장애물과 연관된 모든 역경(빈곤한 정신 상태, 손익에 대한 집착, 모든 종류의 경쟁심 등)을 깨달음의 길로 변형시켜야 한다.

이것은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메시지이다. 그것은 빈곤에 시달린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것과 연관돼 있다. 당신은 병에 걸린 아버지와 정신 나간 어머니를 두고 있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또는 삶이 일그러져 있고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 대부분은 자신의 소심함과 비겁성, 그리고 빈곤한 정신 상태의 표현으로 간주돼야 한다.

이미 절대적 보리심과 상대적 보리심에 내포된 가능성을 경험해 보았고, 보내기와 받아들이기도 수행해 보았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의 풍족함에 기뻐하며 자신감을 쌓기 시작해야 한다. 그 풍요는 관대함의 본질이다. 그것은 내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빈곤에 시달리는 느낌을 갖는 대신 주변의 모든 것을 활용해 대처하는 여유를 갖는 것이다.

비난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기

일상에서 무슨 경험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자신이 베푼 친절의 대가로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비난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린다는 말은 우리의 수행과 자각, 이해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와 난점들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뜻한다. 모든 잘못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우리는 조직을 비난할 수도 있고, 정부를 비난할 수도 있고, 경찰을 비난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는 무한히 다양한 대상과 상황들을 비난할 수 있다. 사실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의 완고한 자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른다. 이 주제는 보디사트바 여정의 핵심이다. 비록 누군가가 끔찍한 과오를 저지른 뒤 당신 탓을 한다면 당신은 그 비난을 떠맡아야 한다. 영향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태도는 상황을 훨씬 더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통제하게 해준다.

당신은 "그것은 내 탓입니다. 이런 저런 일이 발생해서 이런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당신은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누군가와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당신이 이미 모든 비난을 떠맡았기 때문이다. 일단 비난을 받아들이고 나서 누군가와 이야기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다. 그러면 당신은 상황을 명료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 문제에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사람에게 감사하기

이 세상이 없이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고, 깨달음을 향한 여정도 있을 수 없다. 세상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작업의 기반을 거부하고 길 자체를 거부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 근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기반을 둔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느낌을 지니는 한,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걷고 있다는 약간의 인식을 지니는 한, 외관상 장애물처럼 보이는 그 모든 작은 문제들을 길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변형된다.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피드백을 받을 수도 없고, 노력을 기울일 대상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수행 대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즉 짜증나는 일과 문제들 모두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없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사실상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위를 걸을 수조차 없는 것이다. 앉아서 하는 명상을 수행하는 동안 밖에서 소음이 나지 않는다면 알아차림을 계발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기만 하다면 관심을 기울여 해결해 낼 대상을 아무것도 지니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사방이 백지로 보일 것이다.

이 특정한 가르침의 중심 의미는 우리의 피와 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내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기억해 두면 좋을만한 짧은 구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티베트 사람들은 그 구절을 문고리 같은 곳에 붙여 놓는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이익과 승리는 타인에게, 손실과 패배는 나 자신에게."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말은 끔찍할 정도로 자신에게 가혹한 것으로 들릴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 때문에 시무룩해져서는 안 된다. 도리어 우리는 그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마침내 대범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손실을 우리 자신에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은 환상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겪는 손실 · 패배는 게임일 뿐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할 때 느끼는 고통

그저 '골치 아픈 일일 뿐'이라 생각해야

어려운 상황 닥칠 때 고마움 느끼는 것

수행 시 알아차림 · 자각과 같아

지각 있는 모든 존재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과 관계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아 밖으로 성장해 나아갈 기회를 결코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제의 중심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장애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손실과 패배'는 사실상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고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게임일 뿐이다.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해서 다소 짜증이 난 상태처럼 우리 삶에 항상 일어나는 자잘한 경험들을 지칭하며, 진짜 고통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우리는 원하던 것을 항상 얻지는 못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곤 한다. 우리는 돈을 탕진하거나 차 사고를 내거나 하면 무언가를 향해, 다른 누군가를 향해,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향해 화를 낸다. 그것은 진짜 고통이 아니라 그저 골치 아픈 일일 뿐이다.

이 접근법의 요지는 온갖 종류의 골치 아픈 일에 대처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무슨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것을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문제로 여기지 말고, 그저 오고 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네 가지 수행이 최상의 방편

△덕을 쌓기: 첫 번째 수행은 덕을 쌓는 것이다. 여기서 쌓는다는 말은 자의식을 부풀리기 위해 무언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거나 성스러운 것과 관계 맺으려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가르침과 법을 가까이하고, 예술 작품 · 이미지 · 조각 · 회화 · 책 등의 형태로 표현된 근본적 온전성과 연관을 맺고 우리 자신을 노출 시킨다. 덕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들과 관계 맺으며 가능한 한 최대의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 붇는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때는 존경심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덕의 축적은 세 가지 유형의 격려 문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문구는 주제가 아니라 주제를 실천하도록 격려해 주는 자극제다. 그 문구들은 다음과 같다. "내가 아픈 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되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길. 내가 살아남는 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되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길.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되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길."

당신은 이 접근법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매우 나약한 사람의 자세라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열어젖히도록 해주는 지극히 지적인 방식으로 취해져야 한다.

이 수행, 또는 방편의 요점은 순전히 쾌락만 바라기 보단 무언가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으로부터 무언가 얻기를 기대하지 않고, 좋지 못한 결과에도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대와 불안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게 내버려두어야 한다. 특히 욕망이나 불안을 느낄 때면 당신은 기존 방식과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즉 당신은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불안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악한 행위 내려놓기: 당신은 악한 행위를 내려놓는 심리적 수행을 해야 한다. 이 가르침의 요점은 과거의 잘못된 자신의 행실을 직시한 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신경증적 범죄 행위는 그 자체로 온갖 종류의 범죄와 파괴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모든 종류의 경박성을 일으키는 신경증의 근본 원리 그 자체다. 이런 신경증적 범죄 행위를 해소시키려면 불교식 고백으로 해소해야 한다. 불교식 고백은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신경증에 싫증을 내는 것이다. 엄청난 당혹감, 완전히 형편없어진 듯한,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진 듯한 이 기분을 느끼는 것이 고백의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그 행동을 자제하거나, 뉘우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피난처를 구하는 것이다. 이미 두 단계를 거쳤다면 악행이란 것이 한 사람의 용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미 누군가로부터 죄를 용서받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신경증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항복시킬 때라야 가능하다.

고백의 네 번째 단계는 그 항복의 과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 이르면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항복시키고, 내어주고, 열어젖히게 된다. 이제 그는 기대와 불안을 제거해달라고 기원해야 한다.

△돈에게 공양하기: 전통적으로는 세 번째 수행을 '혼령들 먹이주기'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혼령은 병과 불행 같은 것을 일으키는 존재로 티베트에서는 이들을 돈(dons)라 부른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면 언제든 고마운 느낌을 품기 시작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는 자신을 깨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상의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항상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기 보다는 알아차림이나 자각의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충격을 가해주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아무 이유도 없이 정욕을 일으키고, 자만심에 부풀어 오르는 일종의 신경증적 발작, 이것이 다름 아닌 돈이다. 당신은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다른 한편에서는 문제들도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고, 이는 알아차림 상태에 빈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수많은 돈들이 당신을 공격해오는 것이다.

알아차림을 상실했을 때 그와 같은 공격이 일어나면 당신은 그것을 환영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경고신호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둔한 정신상태를 지적해준 데 대해 감사해야 한다.

△다르마팔라에게 공양하기: 네 번째 수행은 다르마팔라, 즉 '가르침의 수호자'들에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축복하고 인도해주며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선생님인 뿌리 스승과 관계를 맺는다. 만일 당신이 법의 세계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유혹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수호자들이 당신을 몰아서 법의 세계 속으로 내팽개쳐 줄 것이다. 이것이 다르마팔라, 즉 수호자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라는 말의 의미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참글세상'에서 펴낸 〈자비심 일깨우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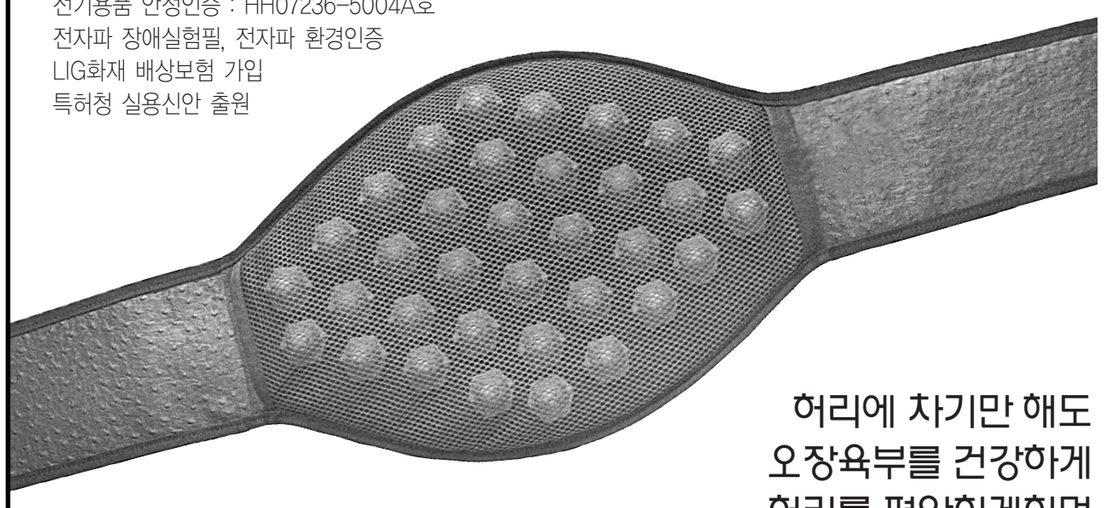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무덤속에서 어머니 젖 먹고 살아나 출가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35)

전생에 우유죽 공양한 수타의 공덕

전다월이라는 국왕이 있었다. 바라문을 받들어 섬겼으므로 국정을 다스리는 데도 역시 바라문들을 임용했다. 왕이 작은 부인을 중히 여기자 다른 부인들은 미워하고 질투하여 그의 신하 중 하나인 바라문에게 금을 선사하면서 왕에게 그녀를 헐뜯는 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신하는 왕에게 말했다.

"그 작은 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나라에 우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언짢아하면서 신하인 바라문에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미와 자식을 함께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중한 것인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만약 죽이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고 대왕도 죽을 것입니다."

얼마 후 작은 부인이 아들을 낳자 왕은 결국 두 사람을 죽여 버렸다. 그러나 잘못 죽여 아이는 무덤 안에서 살아났고, 그 어머니의 몸은 반이 썩지 않았기에 아이는 그 젖을 먹고 살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나 그 무덤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아이는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아이는 산짐승들과 함께 놀다가 날이 저물면 무덤으로 돌아가곤 했다. 아이의 나이 여섯 살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아이가 산짐승들과 놀고 있는 것이 염려되어 사문으로 변하여 아이에게 가셨다. 그리고 그를 불러 물으셨다.

"너는 누구 집의 아이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저는 집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무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사문을 따르는 일밖에 없을 것 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기원으로 가셨다. 그 아이는 비구들의 점잖은 행동과 법칙을 보고는 매우 좋아하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도 비구가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허락하시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머리카락이 저절로 떨어지고 옷은 가사로 변했다. 이름은 수타라고 지었다.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여 게으른 마음을 품지 않아서, 7일이 지나 아라한의 도를 얻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에게 말씀하셨다.

"전다월왕을 제도해야 한다."

수타가 그 국왕에게 갔더니 국왕이 말했다.

"나는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타가 말했다.

"국왕의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내 나이 이미 늙었고 벌써 때가 지났는데도 후사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수타가 왕의 말을 듣고 아예 대답도 하지 않고 혼자 웃고 말자, 왕은 이내 성을 내며 말했다.

"내가 사문에게 말을 했는데 아예 대답도 하지 않고 도리어 혼자서 웃기만 하는구나."

그러면서 왕은 이내 수타를 죽이려 했다. 수타가



삽화 · 강병호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가벼이 날아올라 공중에 서서 분신으로 몸을 끝없이 나고 들고 하자, 왕은 수타의 신통을 보고 이내 허물을 뉘우치며 말했다.

"제가 실로 어리석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원컨대 귀명(歸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타는 이내 공중에서 내려와 왕에게 말했다.

"만약 귀명을 하시겠다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저의 스승이시며 삼계의 높은 분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수타는 순식간에 왕과 백성들을 데리고 부처님께로 가서 3존에 귀명하고 5계 수지를 청하여 우바새가 되게 했다.

그 때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수타가 바로 왕자이다."

왕은 부처님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랐다. 그러자 다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옛날 구선니불 세상에 불사달이라는 국왕이 있었다. 그 나라 안의 백성들은 모두가 3존께 공양하며 살았다. 그때 어느 평범한 백성 하나가 일거리도 없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언제나 나라 안의 부자와 귀한 이를 위하여 품팔이로 수백 마리의 소를 대신 치며 살았다. 한 번은 왕과 백성들이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지금 3존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는 곳마다 안락하고 존귀하며 힘들여 고생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 백성은 생각했다.

'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소의 젖을 달여서 우유죽을 만드는 것뿐이다. 그것이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스님들께 올려야겠다.'

그러자 비구 스님들이 그를 위하여 축원을 했다.

'그대로 하여금 태어나는 세상마다 복을 얻게 하리라.'

그때부터는 그는 나고 죽기를 거듭하는 동안 내내 그 일로 인한 복을 받았다. 어떤 때는 하늘로 올라가 천인이 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땅으로 내려와 왕후가 되기도 했다.

한번은 왕이었을 때에 사냥을 나갔다가 새끼를 밴 좋은 암소를 죽이게 되었다. 그러자 부인은 왕에게 말했다.

'제발 그 새끼만은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의 주인은 죽은 소의 배를 갈라 꺼내 길렀다. 그 주인은 성이 나서 말했다.

'장차 저 왕도 이 소와 같이 되어라.'

그 후에 송아지의 혼신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아직 출생하기도 전에 그 어머니가 왕에 의해 죽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지금의 수타이다. 수타의 어머니는 바로 그때의 왕의 부인이며, 바라문은 바로 소의 주인이다. 수타가 무덤 안에서 태어났고, 그 어머니의 몸은 반쪽이 썩지 않아서 아이가 그 젖을 먹고 혼자서 자라나 클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생에 우유죽을 스님들께 공양했기 때문이다."

왕은 이 말씀을 듣고 뜻이 풀리면서 수다원의 되었다. (〈전다월국왕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㉟



추억

큰 스님들 곁에서 행복했던 시절

어느날, 옛날 사진첩을 보게 되었다. 그 옛날 처녀시절 아니 부산 불교 청년회 시절부터, 아주 오래된 사진을 오랜만에 꺼내 보게 되었다.

해인사 수련회에 갔을 때 자비보살이라 불렀던 지월 스님께서 주지로 계실 때였다. 종정 고암스님과 퇴설당의 성철 스님 일타 스님 법정 스님 지관 스님 그리고 현재 송광사 방장이신 보성 스님 등 큰 스님들이 그곳에 다 모여 계셨다. 대각사에서 기도하던 나는 서면에서 우연히 일타 스님을 만나면서부터 감로사를 알게 되었고, 스님의 속가 외삼촌인 보경 스님(자운 스님의 맏 상좌)이 주지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감로사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절이어서 나는 백일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새벽 감로사를 찾아 기도를 올렸다. 주지 보경 스님은 평소 엄격하고 불같은 성격이었으나 내게는 한없이 인자했다. 아마도 그 당시 처녀가 기도하는 일이 드문 일이어서 기특하게 생각 하신 것 같다. 매일 백팔배를 하고 나올 때마다 스님은 전날 재를 지낸 갖가지 과일이며 과자, 떡 등을 내어 주셨다. 그리고 일타 스님께서는 언제나 작설차를 드셨는데, 내가 차를 마시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행복했던 지난 날 떠올리면
함께 사는 사람들 소중해져

감로사엔 자운 스님이 가끔 다녀가시고 일타 스님, 도견 스님이 자주 오셔서 많은 스님들과 법담을 나누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나는 운이 좋았다. 스님께서 주시는 차도 마셨고 어렵지 않게 스님들의 법담도 곁에서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보경 스님의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무언가 근심이 있어보였다. 연유를 여쭙자 스님은 "내가 큰일을 저질렀지 뭐냐" 하시며 이야기 하시기를 해인사에 계시던 자운 스님께서 장삼과 가사 그리고 입을 옷들을 소포로 보내셨는데, 아무런 편지도 없고 해서 스님 입으라고 보내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옷들이 조금 커서 그 옷들을 모두 잘라 수선을 했는데 나중에 자운 스님이 "옷을 잘 받아 두었느냐?"며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나는 스님이 곤란한 지경임을 알면서도 상황이 우스워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스님께 죄송했다. 그래도 스님은 여전히 나를 챙겨주시고 잘 대해 주셨다.

어느 해인가 보경 스님이 출가한 날을 기념하여 스님과 함께 방생을 간 적이 있었다. 버스에는 노보살님들만 가득 타고 젊은 사람은 나 혼자여서 창밖만 보고 있을 때였다. 일타 스님께서 오셔서 나를 자가용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땐 자가용이 흔하지 않았다. 구포 강으로 갔을 때 여기저기서 아낙네들이 "내 고기 좀 사이소!" 하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스님은 다가가 고기 값을 물으셨다. 나는 "다 죽어가는 고기를 왜 다 사느냐"고 했더니 스님은 "가만히 좀 있어봐라 죽고 사는 것은 자기 명이고, 살려주는 마음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차비까지 다 털어 그곳의 고기를 다 사셨다. 그때서야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스님은 배를 빌려 타고 염불을 하시고 목탁을 치셨다.

나는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를 물에 놓아주다가 아까 본 잘 생긴 고기를 번쩍 들고 "스님! 이고기 참 크고 멋있지요?" 하면서 스님 앞에 보여드리기도 했다.

다음날 감로사에 갔을 때였다. 노보살님 한 분이 스님께 "왜 가시나를 하나 달고 다니느냐?"고 따지고 계셨다.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응, 이 아이 말인가? 바로 명초당 한약방 딸인데 신심이 있어 같이 가자고 했지." 하시니까 그 노 보살님 얼굴이 확 바뀌면서 내 손을 잡고는 "그래 네가 명초당 딸이라고?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 되어라."고 하셨다. 우리 집을 잘 아시고 계셨던 것이다.

그 보살님은 그 후 늘 나를 챙겨 주셨고 나는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다. 이렇듯 많은 스님들과 어른 보살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나의 신행생활은 늘 행복 했었다.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저 지난 시절로 묻어버리기엔 그 시절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다. 가금씩 행복했던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된다.

태국 항공사 승무원들

오늘 내가 절하는 방에서 26년 전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흔적을 보게 됐다. 오래 전 일이지만 다시 가슴이 설레었다. 그때만 해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어서 길도 험할 뿐 아니라 음식이며 여러 가지가 불편했다. 그때 30명의 도반들이 함께 했는데, 스님 15분, 우리 회원 15명이었다. 나는 당시 총무를 맡고 있었다. 요즘 우리나라의 폭염이 그때의 인도를 생각하게 했다.

23일의 긴 여행이었는데, 태국 항공 노조의 시위로 3일 동안 태국에 머물게 되었고, 여행은 예정보다 더 오래 걸렸다. 그러나 놀라웠던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방콕에서 인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였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승무원들이 몇몇 스님들께만 공양을 드리고 우리에겐 아무런 말이 없어, 우리 일행은 공양이 없는가보다 하며 가방에든 과자며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들의 공양이 끝나자 승무원들이 우리 식사를 가져왔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들을 특별히 공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스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보게 됐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대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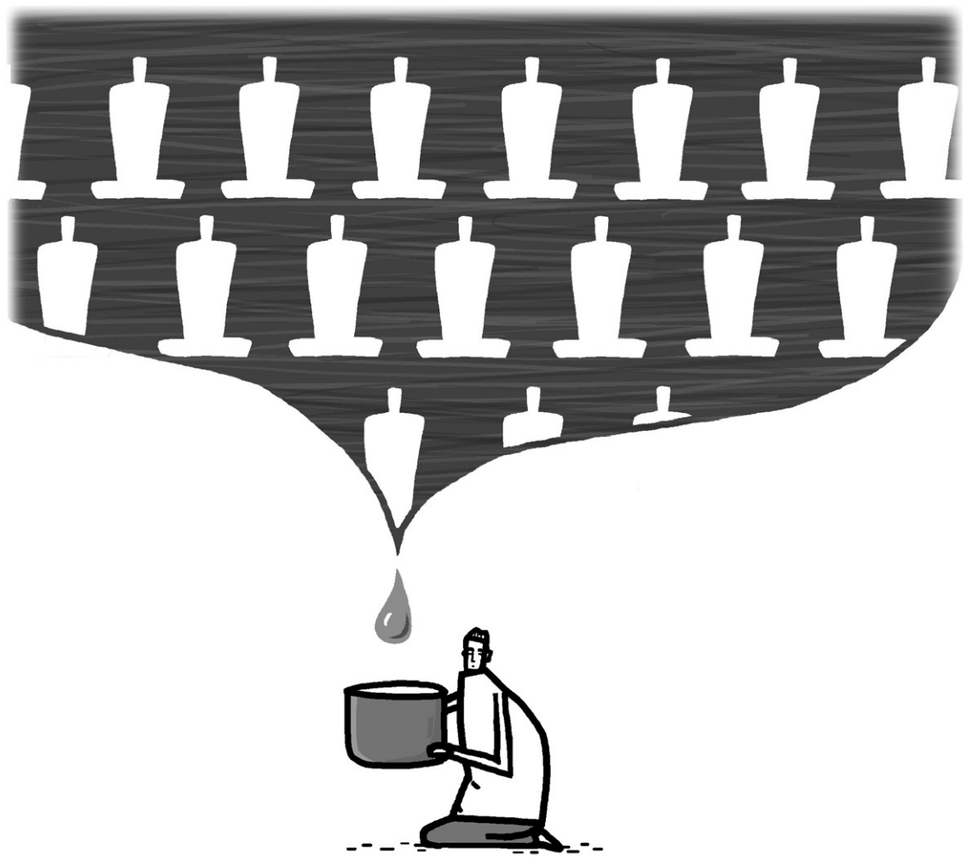
잘된다 못된다 개의치 말고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눈을 마주하면서 서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먹을 것이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도 내가 먹고 없는 것입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가 바로 이 도린가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러한 도리를 공부하는데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방황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도 또 이건 대승(大乘)이니 소승(小乘)이니 하면서, 여기는 체계가 잡혔느니 잡히지 않았느니 하고 생각들을 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아주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은 생활이 참선이요, 생활이 바로 진리요, 자기 마음을 탐구하는 데 대해서는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눕는 것도 모두가 참선이 되고 좌선(坐禪)·와선(臥禪)·입선(立禪)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잡히지 않은 듯하지만 일체 만법의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나가는 거, 질서를 지키고 도의를 알고 의리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이러한 전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진리를 그대로 탐구하고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고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체계가 섰느니 안 섰느니 하고 그거 논의하다가는 여러분이 죽으러 가는데 지금 관에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이것이 체계가 잡혔느니 안 잡혔느니,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고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죽은 세상 50%를 탐구해야 사는 세상 50%를 같이 귀합을 시켜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세세생생에 끄달림이 없이 윤회에 끄달리지 않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참된 모습을 탐구하는 데에 지침이 될 거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떻게 죽은 세상에 가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죽지 않은 이상에는 죽은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공(主人空)' 하는 것을 예전에 육조(六祖)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품이 스스로 청정함을 내 어찌 알았으리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스스로 갖추어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그림 · 최주현

즉, 물러서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구족함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내 마음이 내고 들이는 것을" 일체 만법을 말입니다. "내고 들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 천지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어서 돌아가는 뜻을, 대천세계·중천세계·소천세계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이치를 다 종합한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스스로서 직결된 거를 알고, 직결된 거를 알았으면 스스로서 자유롭게 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팔 법륜 마크가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유 사무(四有四無), 사무 사유라고 해도 되고 말입니다. 바로 일체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스스로서 그렇게 청정함을 알고, 스스로서 갖추어 있는 거를 알고, 스스로서 그렇게 구족함을 알고, 스스로서 참,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그 자유자재함을 자기가 알고, 스스로서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것을 갖다 주고 뺏어 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공부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을 주인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한마음이라는 이 부처, 부처가 없는 게 부처다 했죠. 한마음이라는 뜻은, 이것은 어떠한 대(對)가 없는 게 한마음이야. 어떠한 그 뭐가 붙지 않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 그 한마음의 도리는 돌아(원을 그려 보이시며).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육체도 모두가 같이 돌아가는 거야, 상대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면 상대가 살 수 없고 상대가 아니라면 내가 살 수 없듯이, 모두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찰나 생활이 한꺼번에 계합이 된 그 뜻을 주인공이라고 한 거라. 그러니 그 주인공은, 즉 말하자면 전체가 한데 합쳐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전체가 합쳐진 그것을 용광로라고도 하고 자가발전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못되는 거, 나중에 잘된다 못된다 이거는 개의치 말고 용광로에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한다면 재생돼서 나오는 쇠는 자동적으로 스스로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잘될까, 못될까 이런 건 걱정하지 말아야 이게 진짜 정통으로 놔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해서 놓고 난 뒤에 재차 '아이고, 이렇게 놓는다고 저 일이 저게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용광로에 정통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생돼서 나오는 거는 생각지 말고 여기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넣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넣는 작업만 한다면 바로 부설거사(浮雪居士)가 자기 앞의 일을 용도에 따라서 한 거나 같겠죠. 한 여자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19세가 된 후 부설거사를 만나보고 입이 떨어졌다죠. "나는 입이 떨어졌으니까 당신을 놓고는 못 살아.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안 한다면은 나는 당신이 돌아서자마자 죽어버리겠다." 하니까 부설거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 앞의 일을, 사람 죽는 걸 건지지 못하고 처리를 못한다면 부처님께 누(累)가 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뜻을 어기는 일이니까 그것을 살리고 보자. 앞의 일 치우지 못하고 저 먼데 치우려고 한다고 해서 치워지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그대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씨, 지혜.

그다음에 두 스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깔보고, 아래로 내려다보고, 아집을 가지고 그렇게 막말을 해도 태연하고 인의롭게 마음 상치 않게 대접을 해주고 한 그 뜻, 지혜, 자비. 그다음 셋째, 그 자비로써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주욱 달아놓고서 "하나하나 깨트려보게." 했던 거. 깨트려보니까 두 스님은 물과 병이 전부 다 그냥 떨어져서 깨졌고, 부설거사가 친 거는 병만 깨져서 떨어지고 물은 응고돼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할 때에 그 두 스님은 참 "오만과 자만,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이론에만 끄달려서, 큰스님한테 돌아다니면서 공부했다는 그 아집만 가졌으니 용서하십시오." 하고서 다시 일어나서 몸을 조아리고 절을 했으니, 보잘것없는 나무꾼같이 생긴 그 부설거사한테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이 몸뚱이는 저 병 껍데기와 같고 그 대롱대롱 매달린 응고된 물은 바로 우리의 성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성품은 변하지 않고 끄달림이 없고 여여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두 분 스님은 부설거사의 제자가

☞ 30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떻게 죽은 세상에 가겠습니까

☞ 29면에서 계속

되기로 작정을 하고 제자가 됐듯이, 그 마음 가짐가짐이 어느 누구든지 깔보지 않고, 하다못해 생각이 없든지 있든지, 목석이든지 목석이 아니든지, 돌이든 꽃나무든 죽어가는 나무든, 병신이든 병신이 아니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누구를 막론해 놓고 웃으면서 대해줄 수 있는 그 아량과 지혜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내가 못 배웠을 때 내 모습이요, 내가 수억겁 광년을 거쳐올 때 저런 모습을 하고 거쳐왔지 않나. 바로 나인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 모든 것에서 몰락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주 높은 산꼭대기, 제일 높은 데를 올라가는데 무엇을 자꾸 짊어지고 갈 바가 뭐 있습니까? 자꾸 놓고 가야지 사람 하나 몸뚱이 올라가는 것도 무거운데 어떻게 자꾸 생기는 대로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올라갈 때는 다 놓고 올라가십시오, 이겁니다. 조금만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이러면은 그냥 자만하고, 또 나쁜 게 보이고 좋은 게 보이고, 미운 게 보이고 또 예쁜 게 보이고 이걸 일일이 욕심내고, 그 아집을 가지고 나라는 조건에서 영 한 발짝도 떼놓지 못한다면 거기 자기가 갈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짐도 무거우니까, 이것도 (몸을 가리키시며) 공(空)해서 이것도 놓고 지금 터벅터벅 가는 바 없이 가고 있는데 자꾸 짊어질 게 뭐 있느냐는 얘깁니다.

다 놓고 가다 보면은 맨 상봉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둘러보니까 모두 그 위에서 내려다 보이더라 이거야. 전체를 볼 때 하고 조그만 개별적인 거 볼 때 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 이거야. 전체가 보이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기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로 인해서 일어나고 저기로 인해서 여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깐,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눌러지고 이쪽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거를 손을 댈 게 없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다 합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죠. 또 동 서가 둘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고, 대승 소승이 둘이 아니요, 어려운 사람 부자 사람 이것이 둘이 아니요, 권세 없는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과 둘이 아니요, 항상 뒤바뀌지더라 이거야. 돌아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다 주워 모아서 담아도 담긴 사이가 없더라. 담긴 사이가 없으니 내려와서는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내놔지더라.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우는 데는 천금 만금을 주고도 배우기 어려우니 지금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스스로 익히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서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자비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남의 책을 보고 남의 말을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어서 그거를 때에 따라선 얘길 하고 쓴다 해도 그거는 헛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經)을 본다 하더라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글을 볼 수가 있고 글을 볼 수 있어야 만법의 근원이 지혜롭게 그 한 글자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 여북하면 '백'은 전체를 말하고 '지'는 지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글은 우리가 지금 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다 좋다 하는 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하여튼 망상이라는 것도 놓고, 우정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놓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갖추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이놈의 게 왜 안되나?' 모질음을 쓰고, '이게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데 왜 안되나?' 이러면은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네가 가다가 "아이고, 다리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가나?" 하니까, 딱 서서 못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탈을 합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일러드려도 놓지 못하고 봤다 하더라도 또 미처 생각을 할 때는 '아이고, 이거 또….' 하고 방방방방 뛰고, 그렇게 뛸 때 또 놓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봤는데도 안된다.' 이거지. 안된다는 생각까지도 놔야 될 텐데 그걸 놓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 그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짜부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아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살죠." 이러는데 그 사람은 아주 살게 돼서 괜찮고 아, 이건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왜 놓는데도 그렇게 맡기는데도 안되느냐. 주인공, 살려주시오.' 이러면 오히려 안된단 말이야. 그거는 어리석은 행이 아니냐 이거죠. 해달라면 벌써 둘이 되는 거야. 해달라긴 누구더러 해달랍니까? 내 마음이 안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구더러 해달라 하는 겁니까? 그래 아까 얘기했듯 내 마음이 스스로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갖추어가지고, 일체 만법을 갖추어가지고 있다는 걸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있기 때문에 구족한 걸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있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능히 말입니다. 이것이 스스로서 자기 것이 돼서 스스로 당당하고 여여하게 이렇게 펴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치시기를 말입니다, 이렇게 목마른데 어느 누구가 물을 '먹지 마라.' 하는 사람 있습디까? 내가 목마르면 먹을 수 있게끔 하고 마음을 내서 육체를 움죽거리게 하고, 발을 떼어놓게 하고….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갖추어져 있는데, 깨쳤다 깨치지 못했다 하기 이전에. 목말라서 물 마시는데 누구가, 마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구족합니까, 이게. 여여하고 말입니다. 갖추어 가지고 있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스스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왜, 어려워서 나는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고. 그리고 욕심이 앞서서, 나라는 조건이 앞서서, 애착이 앞서서 말입니다.

요새는 값싼 사랑들을 하기 때문에 울고 짜고 모두 그러는데 값싼 사랑을 해서 값싼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겁니다. 한 눈물을 흘릴 때도 한 방울의 눈물이 온 바다를 이룰 수 있고, 온 바다를 한 눈물 방울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이 살 수 있게끔 한다면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우주 천지에서 여러분한테 열쇠를 맡길 것입니다. 그건 누가 주는 거냐. 그런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따 얘기하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질문자1(남): 9월 5일 낮 12시경에 스님 친견하고 지금 다시 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제게 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9월 8일 오후 8시 32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다시 스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불교 신자라고 자부할 수도 없고, 불교에 대한 아무런 예절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마음으로 스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거의 대부분의 동서양의 철학 서적을 거의 다 간파했다고 자부하고 왔지마는 스님의 한 말씀은 모든 개념을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상을 치르고 산소에 모시고 와서 느낀 것인데 그중에서 스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스님이 수행 중에 무덤을 우주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우주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주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무덤을 우주의 근본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설법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50%를 알 때에 보다 높은 산의 위치에 올라가서 뭔가를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라는, 사후의 세계가 귀신을 의미한다면은 저희들이 사후의 세계를, 무덤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저희 중생들에게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또 대부분의 자손들이 부모를 산소에 모실 때 아버님을 좀 더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싶어하는 자식들의 헛된 소망이 있는데 산소를 잘못 건드렸을 때 그 자손에게 어떤 해가 미친다는,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실 여부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묘지는 그 산의 산수라고도 하고 묘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둥글게 묘지를 댔죠? 그래서 거기다가 부모를 모시고 본 사람은 누구며 보여준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전 이후를 다 합쳐서 본 사람은 지금 산 사람이고, 보여준 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번째 가서 둥그렇게 돼 있는 것은 전후가 한데 합쳐진 바로 원 도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천상천하가 다 한데 합쳐서 뭉쳐진 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컵을 드시고) 산소라면 여기도 우주개공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이거나 이거나,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본 놈도 둘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묘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원심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 생각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산 사람도 둘이 아닙니다. 껍데기 병만 깨졌을 뿐이지 그 근본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물이 얼음이 됐다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됐다가 이럴 뿐이지, 얼음이라고 이름만 불렀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도 죽었으니 송장이라고 할 뿐이지 그것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니듯.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천지가 한데 계합이 된, 본 사람이 있고 그것을 뭉쳐놓은 게 있고 하니 그게 둘이 아닌 까닭에, 삼심(三心)이 둘이 아닌 까닭에 전체가 한데 (원을 그려 보이시고) 합쳐진….

우리가 이 도리를 어떤 때는 부처님의 도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도량은 어디고 다 도량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뚱그렇게 그냥 그려놓고는 말았더라. 어떤 사람은 뚱그렇게 그려놓고는 침 한 번 뱉는데 떨어질랑말랑 할 때 점 하나 찍어놓더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것도 저것도 묵묵히 있었던 분도 있었죠. 어떤 분은 송장을 타고 빙글빙글 서너 바퀴를 돌다가 그냥 훌쩍 나갔고요. 그러니 그것을 말로 형용할 수는 없으니 그대로 그런 것이고, 아까 끄트머리에 그랬죠. 우리가 그 마음이 채워지면은 스스로 알 것이니까 본 사람은 거기 누워 있는 사람, 묘지가 한데 합쳐진 것도 사람이 이렇게 모아놨고요. 마음이 한데, 이전 이후가 다 한데 모아진 셈이나 똑같은 거죠. 그거를 아시면은 원심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잘 탐구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놓고요.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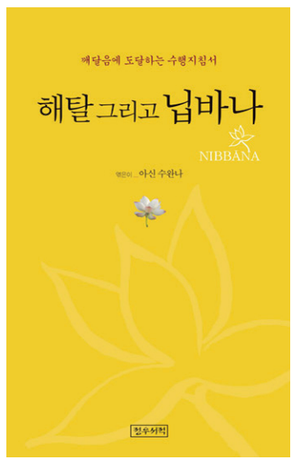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89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깔보지 않고
병신이든 병신이 아니든 똑똑하든 똑똑지 않든
누구를 막론해놓고 웃으면서 대해줄 수 있으며
'내가 못 배웠을 때 내 모습이다. 바로 나인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모든 것에서 몰락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닙바나 화제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닙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사람을 찾습니다



• 이름 : 이종협
• 나이 : 35세
• 특징 : 키 180cm 가량, 안경 착용

위 사람을 보셨거나 알고 계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 종협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

연락처 010-3813-8115
016-515-0778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불자 세상보기

핵발전소를 없애야 하는 이유



이원영
수원대 교수

요즘 들어 밥상에 앉으면 늘 고민이다. 이 생선은 후쿠시마 앞 바다를 다녀온 것일까? 좋아했던 참치나 생태를 보면 저절로 넘어가던 침이 이제는 아니다. 대구나 고등어는 어떤가? 오뎅은 정체불명의 잡고기와 명태살로 만들어진다는데, 방사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 정부를 믿을 수도 없다. 출출해도 김밥을 먹자니 그안에 들어있는 오뎅이나 역시 명태살로 만들어지는 게맛살이 걸린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자니 과자속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첨가물이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서 꺼림직하다.

지금 매일 300톤씩 고농도 방사능오염수를 바다에 퍼붇고 있단다. 대책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태평양을 넘어 우리 바다로 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꼭 먹어야 하는 소금은 나중에 어찌 될까? 세상의 모든 이가 이런 고민을 안할 수 없다. 이건 돈으로 계량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이다. 어업종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후쿠시마는 지금 우리 삶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댓가로 얻는 핵발전소의 전기는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 작년에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그전까지 17개 핵발전소가 공급했던 전기의 비중이 23%라고 한다. 77%는 화력이나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왔다는 것이다. 선언이후 그 가운데 8개를 정지시키고 9개를 가동시키고 있는데, 이 마저도 정기점검이나 고장의 이유로 해서 3개만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래도 별 문제없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어떤가. 원래 전기생산량에서 34% 쯤 차지하던 핵발전소 24개 가운데 지금 11개가 스톱상태고 13개만 가동되는 편이다. 산술적으로는 대략 20% 수준이다. 그런데도 무리가 없다. 셰일가스가 많이 채굴되고 수입되고 있어서 그 틈을 메워주고 있다고 한다. 또, 최근들어 전기절약운동과 태양광발전이 눈에 띄고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미약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고작 20%전기에 목매어져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린 자자손손 살아갈 터전의 운명을 거는데, 그에 비해 고작 20%의 전기라니!

핵발전이나 화력발전은 중앙집중식 생산방식이어서 자본투입형 산업의 형태를 가진다. 한국전력과 수많은 자회사들이 바로 그것이다. 후쿠시마사고의 책임이 있는 도쿄전력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태양과 바람과 지열과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에너지는 원료가 공짜다. 설치비의 손익분기점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동네 고용인력으로 유지관리도 한다.

동네에서 돈이 오가는 자립방식이다. 지금의 사찰전기 요금은 한전이 가져가지만 장래 에너지 자립스타일이 정착되면 그 돈이 상당히 절약될 뿐아니라 쓰이는 것도 지역민의 고용에 쓰인다. 독일은 최근 12년간 재생가능에너지분야의 일자리가 6만에서 36만으로 6배나 증가했다.

에너지절약을 하는 단열시공 리모델링 부문도 지역의 중소규모건설업체에서 시공과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수명이 다한 건물부터 수요가 커질 것인데 이 돈은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지역경제에서 돌고도는 돈이다. 돈값을 하는 돈인 것이다. 독일은 이런 분야에 미래경제의 중요한 몫이 있다고 봐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기존의 핵발전소 종사인력은 무얼 먹고사는가? 그것은 핵발전소 폐로시장의 규모가 크다. 1기를 해체하고 폐기하는 게 건설하는 비용인 3조원과 맞먹거나 2/3수준이라고 한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시장이 향후 50년간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핵재처리 따위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발상을 바꾸고 전면적이고 신속한 전환을 이루어가야 한다. 제2의 후쿠시마가 결코 나와서는 안된다.

발언대

해빙모드 따른 남북불교 교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게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북 불교도 잇달아 중국 심양에서 회의를 열고 하반기에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해빙모드에 따른 남북불교 교류 활성화 방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민간차원의 실질적 지원 절실



제정 스님
중앙종회의원,
신계사 전 도감

그동안 불신이 깊었던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풀려서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MB정부의 지난 대북 정책은 남북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못했고 결국 중국만 좋은 일을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꺼내 다시 풀어가고 새로운 미래를 세워나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런 화해 분위기 속에 우리 불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정 생각해 보야할 것이다.

가장 절실한 것은 의료지원이다. 소외 지역에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등 의료시설을 먼저 지어주고 남한의 의사들이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다면 그것은 불교가 대사회적인 측면에서 공헌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포교의 밑거름이 아닐까?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존 공생의 분위기는 결국 불자들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도사상 화쟁사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불교 정신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불자 모두 노력하자.

가능 분야부터 차근히 교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면서 남북교류가 큰 흐름에서 복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타결로 인해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도 활성화될 계기를 맞았다.

불교계에서는 종교와 민간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먼저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불교계도 동참해야 한다.

불교계는 지난 신계사 복원 및 불교문화재 유적발굴, 단청 보수지원 사업 등으로 민간교류에 있어서도 단순한 물품지원을 넘어 민족문화 공동의식 함양 등으로 큰 기여를 했다. 남북은 모두 불교문화가 저변에 자리하고 있기에 불교계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불교계의 남북교류 노력이 이제는 평양을 비롯한 도시위주로 진행됐으면 한다. 북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평양 중심, 도시 중심의 불교교류가 필요하다. 이는 차후 남북불교 교류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불교포교의 거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분야부터 차근히 접근하는 노력을 지속해 간다면 남북관계 복원과 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은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 그 것이 남북관계 해결의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높아진 조불련 위상 인정해야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
사무처장

남북불교는 지난 8월 17~22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교류회의를 가졌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첫 교류이자, 강수린 북한 조선적십자사 및 조불련 위원장 체제에서 처음 가진 불교교류이다.

지난 8월 14일~17일까지 민간단체 평양방문이 성사된 이후, 종교교류까지 확대됨으로써 오는 23일 이산가족 상봉과 25일 이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로부터 남북교류는 새롭게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심양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신계사와 영통사 등의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과 서산대사 제향 및 대각국사 다례제 등 기념행사, 인도적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교류사업이 올 연말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교류 내용은 남측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북측 조불련이 현격히 높아진 위상만큼 수용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불교교류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불교계의 역할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미 조불련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하반기까지 불교종단 수장들이 잇따라 바뀜에 따라 남북한 불교교류는 다시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社說

조계사·봉은사 역사지구 조성 환영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 들린다.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사찰인 서울 종로 조계사와 강남 봉은사가 시민들을 위한 역사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8월 20일에는 조계종과 서울시가 조계사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만 최대 3500억 원에 이르는 대작불사다. 조계종과 서울시는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역사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은 2013~2017년, 2018~2022년 총 2단계로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인사동과 조계사, 경복궁을 잇는 전통문화 벨트가 마련된다. 이곳에는 한국불교 현대사의 상흔인 '10.27 법난'을 잊지 않기 위한 역사교육관도 들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찰 신증축에 제약을 받아온 봉은사도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번 조정으로 서울시와 강남구는 봉은사 측이 수립해 둔 가람정비계획에 공원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을 추가시킨 변경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잇달은 도심 사찰들의 역사문화지구 조성 협약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계사와 봉은사는 인근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니만큼 이번 두 사찰의 역사문화지구 조성은 한국 관광사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불교계는 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전통문화진흥을 위한 대형 사업인만큼 서울시와 지자체 역시도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변화하는 조계사와 봉은사를 기대해 본다.

'100년 도약' 시작하는 대불련 50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8월 17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대불련은 1960년대 이후 한국불교를 기복 불교에서 청년 불교로 거듭 발전시키며 한국불교 대중화와 현대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활동이 가장 왕성하던 때에는 200여 대학에서 회원수만 해도 2만 명이 넘기도 했다. 50년 동안 총 회원수를 따져보면 30만 명에 달한다. 명실공히 한국불교 1700년사에 족적을 남길만한 대규모 조직이다.

특히 1960년대 대불련 회원들은 당대의 선지식들이었던 성철·청담·퇴옹·탄허·광덕·법정 스님 등 불교계의 큰 스님들을 만나면서 인생관·우주관이 불교적으로 바뀌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대불련을 거쳐간 이들중에는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되거나 출가의 길을 선택한 스님들도 상당수 있다. 명호근 쌍용양회 대표이사, 윤제철 대우인터내셔날 사외이사 등을 비롯해 前 태고종 부원장 법현 스님, 공주 원효사 주지 해월 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50년동안 대불련이 펼쳐온 활동들을 보면 이 조직이 반세기동안 얼마나 우리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50주년 기념식에 맞춰 발간된 〈대불련 50년사〉를 보면 대불련의 활동을 1960년대에는 창립과 구도의 열정, 1970년대를 전국조직으로 성장과 화랑대회,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를 민중불교운동과 한국불교 1600년 대회,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를 통일운동과 남북교류, 수행학교 등으로 정의했다.

앞으로도 대불련은 50주년 기념사업회를 조직해 '미래 50년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학 청년포교를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할 대학전법센터 건립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지성불교와 실천불교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 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100주년을 향해 힘찬 도약을 시작하기를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용도 특허 외 다수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산삼'을 드셨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 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셈이다.

◆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 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



"식물줄기세포는 분열조직이라 불리는 특수 구조안에 존재하며, 매우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다. 이들은 수백년동안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기관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nature 415, 751-754(2002)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 (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살렸습니다. 네이처지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분야 학술지입니다.

각종 특허와 언론보도를 통해 효과 입증
'한국산삼감정협회'에서 인증한 50년근 산삼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일치

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이상 함유되어 있다.

◆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 과 '장뇌삼' 이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배양근' 이 있다. 하지만 산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8호)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식물 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 방법) 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 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 있는 '셀원' 은 그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셀원'은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 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 을 통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감동을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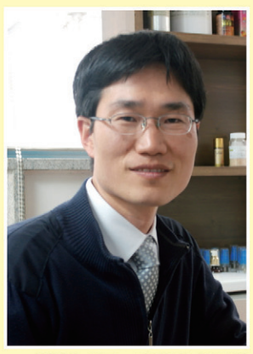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분에 한정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노화방지 기력회복 면역력강화 위·간보호 등에 탁월!

다 좋지만 '산삼' 만 하겠습니까?

장뇌삼, 산삼배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대한민국 사람 중 산삼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있나?



▲ '셀원'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위, 간 보호등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셀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은 식물 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산삼배양세포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섭취할수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다. 산삼배양세포를 먹으면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유효 성분들이 피를 말끔하게 풀어주고, 상처난 곳의 회복을 도우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몸을 지켜준다" 며 '셀원' 의 산삼배양세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산삼배양세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많은 분들이 산삼배양세포를 먹어 산삼의 영양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 출시를 기념하여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회에 산삼줄기세포를 느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 병이나 수술 후 기력회복이 필요하신 분
-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 ☑ 평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 ☑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정 2011년 2월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

세계가 놀란 '산삼 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들어나...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 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적으 로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 배양세포' 에서 우리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 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SBS KBS MBC YTN Discovery CHANNEL

SBS 8시 뉴스 |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세계 첫 성공"
MBC 9시 뉴스 | "나무도 복제·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YTN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디스커버리채널 |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여개국에 방영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표지 논문 게재 (2010년 11월호 표지논문)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산삼줄기세포 셀원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면역력 강화, 기력향상, 「셀원」 한박스에는 50년근 산삼 24뿌리의 산삼배양세포가 들어있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참당귀추출물, 솔 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상담문의 080-810-8100